

건국60주년기념

동북아역사재단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일시

2008년 5월 16일(금) 10시~18시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지하 1층)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건국60주년기념

동북아역사재단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인 사 말 씀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중·일 등 동북아의 역사관련 현안 등에 대한 연구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바른 역사를 세움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곳입니다. 건국 60주년에 즈음하여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저희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학계에서 남·북한 건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후 진행된 분단화 과정의 귀결점으로서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여 새 국가의 수립이 갖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1948년 남북한 건국이 갖는 의미를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자신의 틀만이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문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소련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1948년 남·북한 건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제1부 '남북한 건국과 열강에 대한 인식', 제2부 '남북한 건국에 대한 열강의 인식'으로 나누어 북한과 남한 자신의 열강 및 아시아 인식을 살펴본 뒤, 한반도 주변 4대 열강의 남북한 건국에 대한 인식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김홍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원장님, 기초발언을 해주시는 한국사연구소 정태현 소장님, 그리고 귀중한 발표를 해주시는 이주철·임종명·고정휴·기광서·이규수·임상범 교수님, 또한 토론과 사회를 맡아 수고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주최측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오늘의 한국사회의 바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한국현대사 연구를 촉진하는 기억할 만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일 정 안 내

10:00—10:30 **개회식**

인사말씀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홍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기조발언 정태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소장)

제1부 남북한 건국과 열강에 대한 인식 사회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 10:40—11:20 북한의 정부 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
—『정로』·『로동신문』·『근로자』를 중심으로—
발표 이주철(KBS 남북교류협력팀) 토론 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 11:20—12:00 大韓民國 樹立 前後 世界紀行記와 當代의 亞細亞·東洋 및 歐美·西
洋認識과 表象
발표 임종명(전남대 사학과) 토론 김현주(연세대 국문과)

12:00—13:30 **점심식사**

제2부 남북한 건국에 대한 열강의 인식 사회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 13:30—14:10 미국의 남·북한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
—태평양문제연구소(PII)와 그 기관지를 중심으로—
발표 고정휴(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토론 정병준(이화여대 사학과)
- 14:10—14:50 소련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도 『프라우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기광서(조선대 정치외교학부) 토론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14:50—15:30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일본의 한국인식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보도를 중심으로—
발표 이규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토론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 15:30—16:10 중국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 전후 중국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발표 임상범(성신여대 사학과) 토론 이재령(단국대 문과대학)

16:10—16:30 **휴식**

- 16:30—18:00 **제3부 종합토론** 사회 김성보(연세대 사학과)
토론 참석자 전원
-

차 례

제1부 남북한 건국과 열강에 대한 인식

- 북한의 정부 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 | 이주철 1
—『정로』·『로동신문』·『근로자』를 중심으로—
- 大韓民國 樹立 前後 世界紀行記와 當代의 亞細亞·東洋 및 歐美·西洋認識과 表象 | 임종명 19

제2부 남북한 건국에 대한 열강의 인식

- 미국의 남·북한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 | 고정휴 55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그 기관지를 중심으로—
- 소련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 기광서 75
—1948년도 『프라우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일본의 한국인식 | 이규수 97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보도를 중심으로—
- 중국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 임상범 115
—1948년 전후 중국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부 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

—「정로」·「로동신문」·「근로자」를 중심으로—

이 주 철

북한의 정부 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

—「정로」·「로동신문」·「근로자」를 중심으로—

이 주 철 (KBS 남북교류협력팀)

1. 머리말
2. 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미국을 중심으로
3. 정부 수립기 열강에 대한 인식 —1948년을 중심으로
4. 맺음말

1. 머리말

1948년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분단시대가 60년이 흘렀다. 향후 상당기간동안 이러한 분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하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영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한은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지난 시기에 있었던 불행했던 문제들에 대해 가능하면 논의를 회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감추기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향후 남북관계의 보다 진전된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지나간 역사,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과거사는 덮어 놓은 것으로 묻혀 지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나간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최대 상처인 분단정부의 수립과 6.25전쟁에 대한 논의는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이고, 또 당사자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부터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분단정부의 수립과정에서 북한정부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국가였던 미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방공간에서 북한을 영도했던 조선공산당북조

선분국의 기관지였던 『정로』와 북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론잡지 『근로자』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이 대중에게 공개된 신문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공분국이나 북로당 핵심의 내면적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글은 조공분국이나 북로당의 인식이 라기보다는 조공분국이나 북로당이 그들의 당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인식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조공분국이나 북로당의 인식을 명확히 정리할 계획이다.¹⁾

2. 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미국을 중심으로

1) 해방후

『정로』의 한반도 해방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위대한 붉은군대 그의 동맹자인 연합군의 힘으로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조선의 해방은 자체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힘으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 그러면서 '외국의 힘도 한 힘이 아니라 두 힘 즉 사회주의 국가인 소베트동맹의 힘과 자본민주국가인 영미의 힘으로 되었다'³⁾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서술을 보면 『정로』는 '소련이 미·영의 참전 요청에 따라 동맹자의 의리를 지키는 일방 원대 평화를 요구하는 국가로서 전쟁을 속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참전하였다', '소련의 참전으로 전쟁은 불과 10여일에 끝났는데, 이것은 조선으로 하여금 최후적 파멸, 치명적 파괴를 면하게 했고, 미군이 손쉽게 일본본토와 조선에 상륙한 것도 붉은군대의 참전에 있다'⁴⁾고 말하고 있다. 『정로』는 '소련은 조선을 일제침략가의 발톱에서 해방함에 가장 큰 선봉적 역할을 하였다'⁵⁾고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1) 각종 회의와 인명은 북한 자료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2) '창간사' 『정로』 1945.11.1

3) 위의 글, 같은 곳

4)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최용달', 『정로』, 1948.1.17-18,23-25

5) '붉은군대의 역사적 사명-박영빈' 『정로』, 1946.1.17-18

6) 무조건 항복의 요구를 거절했던 일본군벌은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 후 즉시 그 요구를 받아들였

해방직후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각지의 인민위원회를 모두 좌익세력의 소비에트화로 간주하고, 반소·반공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점령통치기구를 수립하였다.⁷⁾ 따라서 이 시기 조공분국의 대미인식은 제한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후

북한의 열강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 요소는 1945년 12월 말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관련된 정세변화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직후인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 책임비서 김일성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북부조선총국, 민주청년동맹, 조선독립동맹과 함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전적인 동의지지를 표명하였다.⁸⁾ 이 성명에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이하는 조공분국으로 줄임)은 '독일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인권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위대한 승리를 전취한 민주주의 4대연합국'이라는 표명을 통해 소·미·영·중 열강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열강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주의국가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 영·미, (반)식민지였던 신흥국가 중국으로 4국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⁹⁾는 점에서 조공분국이 내부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대해 명백하게 다른 인식을 가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3국결정은 전세계 노동계급과 피압박민족해방운동의 영수이며 전세계 평화와 안전의 가장 수호자인 스탈린동무의 지도와 모로토프동무의 외교의 승리인 것을 강조한다'하여 미·영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¹⁰⁾

하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시점에서 '미·소 양군의 철퇴'에 대한 조공분국의 관점은 '일본제국주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친일반동분자가 그대로 발호하는 현실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실현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민주주의적 국제진영의 본질'이 '파시스트에 대한 철저한 소탕을 임무'로 한다고 설

다고 서술하고 있음('붉은군대의 역사적 사명-박영빈' 「경로」, 1946.1.17-18

7)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반공체제 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3장

8) '조선에 대한 소미영3국외상 모스크바회의 결정에 대하여' 「경로」, 1946.1.9

9) '3국외상회의 조선문제결정과 조선공산당의 태도-오기섭동지의 강연' 「경로」, 1946.1.9-12, 16-18, 29

10) 위의 글, 같은 곳

명하고 있다.¹¹⁾ 즉 모스크바 3상회의 시점까지 조공분국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파시스트에 대한 소탕에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시점에는 '소·미 공적 방향의 해결'¹²⁾을 기대하는 입장이었음도 알 수 있다.

『정로』는 1946년 1월 25일에 21일에 발표된 남한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의 '조선국민에게 고함'¹³⁾이라는 성명서를 전하고 있는데, 이 성명이 반탁운동을 비판¹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도 조공분국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즈음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축사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현재 서울에는 반동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반동세력에 대하여서는 미국도 역시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중략)… 응인치 못할 반동분자의 폐약은 민주주의 국가와 침략국가를 동일시하는데서 나오는 오류에 있습니다.'¹⁵⁾라고 말하며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¹⁶⁾

동시에 『정로』는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탁운동에 대해 비판하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정을 폭로하고 있다. 『정로』는 남한의 반탁운동을 지지하는 신문들이 남한에 후견제를 확립하려고 힘쓴 것이 소련이고, 미국은 반대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⁷⁾ 그러면서 『정로』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없던 조선임시정부의 창건이 소련의 제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국이 5년의 기한 후에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오직 5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소련의 제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⁸⁾

『정로』가 밝힌 이러한 내용은 심각한 반탁운동에 대한 대응이지만, 동시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정에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

11)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최용달', 『정로』, 1946.1.17-18.29-25

12) 위의 글, 같은 곳

13) 이 성명서에는 '열국이 조선을 유리하도록 협력하는 이때 거반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오히려 이에 대한 반대의 시위, 그타 운동을 하여 치안을 교란케 하는 것은 조선을 위하여 해로운 뿐만 아니라 열국으로 하여금 조선에도 신탁통치를 강하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니 삼천만 국민은 오직 건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하였다고 『정로』는 소개함('모스크바회의결정 반대운동은 조선을 위해 불리, 건국에 매진함이 간요-하지중장성명' 『정로』, 1946.1.25)

14) 미군정은 반탁운동이 군정에 대한 반대운동, 또는 어느 세력이든 한국인들의 주도에 의한 독자적인 정부수립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정용숙, 「해방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한국사 52』, 국사편찬위원회, 46쪽)

15) '인민의 요구를 실행하는 정치위원회가 되라-김일성동지축사요지' 『정로』, 1946.1.26

16)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실행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처지도 아니었다(정용숙, 앞의 글, 47쪽)

17)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조선문제 결정 전말' 『정로』, 1946.1.27

18) 위의 글

다.¹⁹⁾ 즉 반탁운동이 전개되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정에서의 미국에 대한 조공분국의 인식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나게 되고,²⁰⁾ 특히 '반소반공의 길은 민족의 자멸의 길'이라고 『정로』는 주장한다.²¹⁾ 이어서 2월 초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시점에 『정로』는 '국제민주주의국가간의 이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중략)... 전후기의 체문제가 더욱더 생기는 새환경에서 이 연합이 여전히 공동결의에 가능하며 유력할 수 있을까'²²⁾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조공분국은 열강에 대해 우호감을 표현하였지만, 소련에 대한 적극 찬양의 입장과는 물론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언제나 소련에 대한 표명은 '전세계 노동계급의 영수이며 동서파시즘 박멸의 총재자며 영도자이며 전세계 평화의 위대한 보장자 스탈린'과 '위대한 붉은군대의 방조 하에서 북조선 인민의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반복되었다.²³⁾

이처럼 열강에 대한 조공분국의 인식은 구체적인 내부 정책으로 들어가면 일정한 견제와 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세력에 대해 '종교가는 간혹한 어떤 외태세력 혹은 민족 파시스트 등에 이용되지 말고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가장 충실히 싸워온 소련과 친선하며 조선공산당과 우의적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영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²⁴⁾

이 시기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철저하게 대소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임시정부 수립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즉각 독립이 친소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시정부 수립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²⁵⁾ 따라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후 조공분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미 인식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큰 것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는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수정불가능한 최종결정이고, 미소공위는 모스크바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단²⁶⁾했던 것이 조공분국의 대미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보도는 '반탁운동의 이면'이라는 보도에도 이어진다.('정로', 1946.1.29)

20) '전조선동포들에게 격함!' '정로', 1946.1.31

21) 위의 글

22) '반탁운동자의 소위 적화음모' '정로', 1946.2.7

23) '스탈린동지에게 보내는 메세이지' '정로', 1946.1.8

24) '기독교에 대한 일제언' '정로', 1946.1.9

25) 정용욱, 앞의 글, 49쪽

26) 정용욱, 앞의 글, 52쪽

3) 제1차 미소공위 이후

미소공위가 1946년 3월 개시되어, 서울 덕수궁에서 소련대표단 주석 쓰피코브 대장과 미국대표단 주석 아놀드소장이 토의를 진행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 공동コミュニ케 제5호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조선민주주의 제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 할 것을 밝혔고 이에 대응하여 조공본국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의 이름으로 내놓은 청원서를 통해 전폭적인 동의를 밝혔다.²⁷⁾ 이어서 조선신민당과 조선민주당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²⁸⁾

그러나 미소공위는 미군사령부가 남한에 있는 20개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토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미군사령부가 제출한 명부에는 민주주의민주전선에 속한 정당중 3개만이 기록되었고, 그 외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민주의원'에 속한 17개의 단체와 정당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조공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들인 전조선총노동자협의회, 전조선총여성동맹, 전조선민주청년동맹, 전조선총농민연맹과 같은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하지총장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조선사람이 반대주장한다면 실시 않될 수 있다'²⁹⁾고 하였고,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가 커뮤니케 제5호에 예정한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은 신탁을 찬성하거나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³⁰⁾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제1차 미소공위는 5월 8일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되었고,³¹⁾ 남한에서 5월 15일에 '정판사 위폐사건'이 발표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요동치게 되었다.

5월 16일 조공본국은 미소공위 결렬에 대하여 미국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5월 18일 조선공산당 본부가 수색을 당하고 해방일보가 정간처분을 받았다. 5월 19일 조공본국은 미소공위 휴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6월 3일에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발언이 정읍에서 발표되고, 7월 2일 소련 영사관이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이어서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고, 9월 7일에는 남한에서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 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체포령이 발표되었다.

결국 9월 18일에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이하는 북조선민전으로 줄

27) '북조선공당중앙의 청원서' 「정로」, 1946.4.26

28) '조선신민당의 성명서' 「정로」, 1946.4.26/ '조선민주주의 결정서' 「정로」, 1946.4.26

29) '서울에서 진행된 소-미공동위원회 사업의 경위-이즈베츠키야지에서 전개' 「정로」, 1946.5.17

30) 위의 글

31) 미국대표단은 미소공위 5호 성명에 합의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미소공위 결렬 방침을 굳히고 있었다(정용욱, 앞의 글, 58쪽)

입)에서 '미군정이 ... (중략)... 제국주의적 정책을 노골화하여 해방된 조선으로 하여금 또다시 식민지화하려는 음모와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³²⁾ 북조선민전은 미군정의 '민주신문'에 대한 정간처분과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 등을 일본제국주의 통감정치 이상의 폭정이라 비난하고, 미군정의 반동정책반대민중대회를 전북조선 각 중요도시와 농촌에서 개최할 것을 밝혔다.³³⁾

『로동신문』은 북조선민전 보도가 있는 같은 날 신문에 박헌영과 함께 미군정의 체포령을 받은 이강국이 북한에 들어와서 밝힌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강국은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강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고, 미군에 대한 기대는 환상이었다며 미국이 제국주의적 정체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⁴⁾ 이어서 이강국은 미국이 남한에서 일제잔재세력과 완전히 결탁하였으며, '괴뢰정권'을 수립시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⁵⁾

『로동신문』에 실린 이강국의 보고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해방직후 상황으로까지 연결되었는데, 여기에서 이강국은 해방이후 진행된 미군의 인민위원회 탄압과 친일파·민족반역자가 소생하여 미군정에서 등용되었음을 비난하고 있다. 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도 미군정이 조종하고 지지했다고 비난하고, 미군정의 엄호 하에서 '반동적인' 단독정부 수립 책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⁶⁾ 이강국은 미군정반동정책반대 평양시 민중대회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³⁷⁾ 『로동신문』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게재하고 있다.

이처럼 『로동신문』이 이강국의 매우 긴 장문의 보고를 게재한 것과 김일성·김두봉이 참석한 평양시 민중대회가 개최³⁸⁾된 사실은 이 시기에 미국에 대한 북조선로동당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또 『로동신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46년의 상황만이 아니라, 미군정이 해방직후 인민을 대표하는 인민위원회를 강압하였다며 해방직후로 소급하여 비난을 전개하였고, '미국 반동파들이 조선을 또다시 침략전쟁의 기지로 화하려는 음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⁹⁾

32) '남조선 미군정의 반동정책에 대한 제8차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46.9.20

33) 위의 글

34) '미군정의 반동정책에 관한 보고-남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 사무국장 이강국' 「로동신문」, 1946.9.20

35) 위의 글

36) 위의 글

37) '남조선주둔미군정반동정책에 관한 보고-미군정반동정책반대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이강국' 「로동신문」, 1946.9.24

38) '남조선미국군정의 폭압정책절대반대 -남조선의 반민주주의적 억압에 항의하는 25만 시민의 민중대회' 「로동신문」, 1946.9.24

39) '남조선미군정의 반동정책에 대한 항의문-9월20일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로동신문」.

이 시점에 『로동신문』이 미국정부의 중국 국민당군대에 대한 지원을 비판한 기사도 이즈음에 있어서 북로당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⁴⁰⁾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미소공위가 휴회에 들어간 5월 이후에 이미 조공분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비판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정적 계기는 박헌영 등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때라고 볼 수 있다.⁴¹⁾ 이어서 남한에서 '총파업' 등으로 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에서는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준비하면서 소련과 미국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가 진행되었다. 소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제적 원조'가 강조되었고, 미군정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총독정치 답습'이라고 비판하며⁴²⁾ 미군정의 '반동정책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⁴³⁾ 이어서 조선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미군정의 방조하에 실현되고 있다⁴⁴⁾고 인식되었고, 북조선민청은 '미군정의 반동적 식민지정책을 절대 반대하고,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민주적 청년들에 대한 성원'을 결정하였다.⁴⁵⁾

하지만 『로동신문』은 1946년 11월 초에 치스차코프대장의 '소련대표단은 공동위원회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하지중장에 대한 서신을 보도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1946년 말이 되면 『로동신문』은 미군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송이라는 필자를 동원한 글에서 『로동신문』은 미군정이 가능한 한 장기간 미국군대를 조선에 주둔시켜 조선을 미국의 상품시장으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⁷⁾ 이러

1946.9.25

40) '중국민주연맹대표 국내전과 미정책성명' 『로동신문』, 1946.9.10

41) 9월 14일 『로동신문』을 보면,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기 약 20일 전인 8월 17일에 '위례사건'에 관계해서 하지중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때만 해도 미군정이 조선공산당 중앙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는 단계로 전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소위 「위례사건」으로 하지중장에게 항의서한' 『로동신문』, 1946.9.14, 8월 6일자로 박헌영이 하지중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박헌영은 '식민지화는 미국의 목표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함) 『로동신문』, 1946.9.17

42) '인민위원회 위원선거 실시에 대하여 노동당 제2차 중앙확대위원회에서 보고-김일성' 『로동신문』, 1946.9.27

43) '노동당 제2차중앙확대위원회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인민위원회 위원선거 실시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결정서' 『로동신문』, 1946.9.27

44) '노동당의 창립과 당면한 제과업에 대하여-영환' 『로동신문』, 1946.9.28-27

45) '반동미군정 절대반대 맞쇼 박멸투쟁을 서약-북조선민청 제1차 대표대회' 『로동신문』, 1946.10.1

46) '조선주둔 소미 양군 사령관간에 서한교환-소미공동위원회 개개문제로' 『로동신문』, 1946.11.7

47) '남조선 입법기관의 정체와 그 선거-신고송' 『로동신문』, 1946.11.29, 12.1

더불어 미군정이 '입법의원'을 만들어 미군정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같은글) 동시에 『로동신문』은 소련외상 몰로토프의 연설을 보도하며, 영국군대의 회합 주둔, 미국군대의 중국

한 『로동신문』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계속 이어져, ‘남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군정이 미국의 소수독점자본에 의하여 직접 구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⁸⁾ 하지만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며, ‘조선인민은 미국에 대하여 여하한 선입견도 가질 것이 아니며, 오직 미국자체가 조선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책이 조선인민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미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⁴⁹⁾

이상의 입장은 북로당이 이 시기에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로동신문』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1년을 맞으면서 ‘소련군 대표들은 진정으로 모스크바회의 결정에 지명된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사업하고 있으며, 북조선주둔 소련사령관 치스차코프대장은 여러 차례 미군정대표단에게 공동위원회의 속개에 대한 서간을 보냈다’⁵⁰⁾며 미소공위 재개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4) 제2차 미소공위 재개 이후

1947년 신년호에서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미군정의 ‘반동정책’과 ‘제국주의적 정책’을 ‘간략히’ 비판하고, 1947년에는 반드시 3상회의 결정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⁵¹⁾ 『로동신문』은 이어서 미국의 전후정책이 1946년부터 2차대전 전시의 협력과는 반대되는 제국주의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식 형식적 민주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하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제1주년 기념대회에서 김일성은 남한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한 장의 휴지로 변했다⁵³⁾고 하면서도, 미군정에 대한 비난을 억제하고 ‘소련정부와 미국정부가 소미공동위원회를 신속히 속개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역사적 결정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고 말하였다.⁵⁴⁾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희망 섞인 발언에 이어, 『로동신문

주둔을 비판하고 있다. (‘22일 연합국기구총회 제1위원회석상진술한 소외상 몰로토프의 연설-외국에 주둔한 연합국군대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49.11.30)

48) ‘미군정의 반동정책과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 『로동신문』, 1946.12.7-8

49) 같은 글

50) ‘모스크바 3상회의 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 1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동신문』, 1946.12.28

51) ‘전국인민에게 고함-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로동신문』, 1947.1.1

52) ‘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 『로동신문』, 1947.1.116

53) ‘조선정치형세에 대한 보고-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제1주년 기념대회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로동신문』, 1947.2.9

』은 소련 외상 몰로토프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규정된 자기의 민주정부를…(중략)… 가까운 장래에 조선인민은 자기정부를 수립할 것을 나는 감히 확언하는 바입니다”⁵⁵⁾는 축전을 보도하면서 ‘소연방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성의껏 실행함으로써 하루바삐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가 수립’될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러한 『로동신문』의 보도는 제2차 미소공위를 기대하며 미군정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북로당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4월에 『로동신문』은 미 국무장관 마샬과 소련외상 몰로토프 사이의 서신⁵⁶⁾을 보도하였는데, 여기에서 마샬은 1차 미소공위 결렬의 원인을 설명하고 “가급적 신속히 공동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몰로토프는 “5월 20일 경성시에서 소미공동위원회를 재개하며 또 공동위원회가 금년 7월과 8월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문제를 완성한 사업의 결과를 양국 정부의 심사에 넘길 것”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로동신문』은 미·소 양국 외상간의 서신교환에 대해 소련외상의 제의를 ‘대만쪽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하면서, “목적의 달성이 가깝다는 희망을 전조선인민의 갖게 되었다”며 희망을 피력하였다.⁵⁷⁾

이상과 같은 『로동신문』의 미군정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2차 미소공위가 재개된(5월 21)후 1달 가량 지난 6월 14일 북조선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 대회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연설로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은 여기에서 “조선이 자기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으며, …(중략)…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시기에 들어선 것”, “서울에서 진행되는 회담의 결과에 불원한 장래에 진정한 민주주의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⁸⁾

1947년 7월호 『근로자』에 실린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 수립과 북조선로동당의 주장’을 통해서도 이상과 같은 북로당의 인식을 볼 수 있는데, 북로당은 미소공위 지체의 원인을 ‘반동파쇼 잔당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만 돌리고 비난하고 있다. 동시에 이즈음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김일성과 북로당이 모두 미소공위의 성공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데, 이 사실은 김일성의

54) 같은 글

55) ‘소련 외상 몰로토프시의 축전에 대하여’ 『로동신문』, 1947.2.28

56) ‘브·므·몰로토프와 드·마샬간에 조선문제에 관한 서한교환’ 『로동신문』, 1947.4.24

57) ‘몰로토프와 마샬간의 조선문제에 관한 서한교환에 대하여’ 『로동신문』, 1947.4.29

하지만 『로동신문』은 1차 미소공위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2월 28일 소련군사령관의 마지막 서한에 대해 미군사령관이 회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58)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수립에 관하여 각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북조선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 『근로자』, 제6호(1947.6)(사료집 43, 9·15쪽)

북조선민전 산하 각정당 사회단체 열성자대회 연설과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 수립과 북조선로동당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글이 모두 향후 임시정부의 성격과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피력하고 있는 것은 미소공위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김일성과 북로당이 2차 미소공위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던 원인은 '3상결정을 반대하는 자는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몰로토프-마샬협정'⁵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샬과 몰로토프 사이에 교환된 서신의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반탁단체를 제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서두르는 소련의 입장을 임시 통합한 것이었고, 소련과 미국은 모두 서한에 나타난 문구를 회담 석상에서 자기측 입장에 유리하게 전술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⁶⁰⁾ 그러나 북로당은 그들이 '몰로토프-마샬협정'이라고까지 칭한 양자간의 논의에 있었던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북로당은 미군정과의 대결적 구도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차 미소공위가 재개된 지 약 3개월 지난 8.15 2주년 기념보고에서도 김일성은 여전히 '양국 대표의 성의 있는 노력'을 평가하고, 미소공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민족반역자·친일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⁶¹⁾

그러나 이러한 북로당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월 중순이래 미소공위 결렬방침을 확고히 하였다.⁶²⁾ 9월에는 UN에 한국문제가 정식 상정되고 10월에는 미소공위가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해 북로당은 '남조선반동은 단독신탁 단독정부의 식민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⁶³⁾ 결국 북로당은 미국을 '국제반동진영의 선두'로 규정하고, 식민지정책을 노골화하여 남조선단독정부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⁶⁴⁾ 2차 미소공위 재개시부터 세밀한 파괴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⁶⁵⁾고 비난하였다.

59) 석국, '미국침략정책과 소위 조선임시위원회' 「근로자」 제11호(1948.1)(사료집 44, 180쪽)

60) 정용숙, 앞의 글, 89쪽

61) '8.15해방 2주년 기념보고-김일성', 「근로자」 제8호(1947.8월)(사료집 43, 371쪽) 같은 시기에 있었던 김일성의 북조선로동당 창립 1주년 보고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북조선에서만이라도 먼저 실시하기 위해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김일성' 「근로자」 제8호(1947.8월)(사료집 43, 382-383쪽)

62) 정용숙, 앞의 글, 81쪽

63) 석국, '반동과 삼상결정(1947.10.4)' 「근로자」 제10호(1947년 연말)(사료집 44, 97쪽)

64) 최용달, '조선인민은 이러한 헌법을 요구한다' 「근로자」 제11호(1948.1)(사료집 44, 151쪽)

65) 석국, '미국침략정책과 소위 조선임시위원회' 「근로자」 제11호(1948.1)(사료집 44, 180쪽)

3. 정부 수립기 열강에 대한 인식 —1948년을 중심으로

1947년 10월말 미소공위가 완전히 결렬되고, UN총회에서 '한국총선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로당은 11월 18일에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임시헌법 제정 준비에 관한 결정을 하고, 12월 1일에는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1948년 1월에 접어들면서 김일성과 소련은 UN한국위원회의 북한 입경을 거부하였고, 남북한의 독자적인 단정 수립이 결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1948년 단정 수립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북한정권이 열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정리한다. 기본적으로 북로당은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진영'의 투쟁이 가일층 첨예화 하였으며, 쏘비에트 동맹은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서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주의 진영'을 반대하여 평화와 민주를 위한 투쟁을 수행하고 있다⁶⁶⁾고 주장하고 있다.

1) 미국에 대한 인식

1948년에 김일성은 미국이 3상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조선을 신탁통치하에 넣으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1946년 초의 반탁운동이 미군정의 적극적 지지 하에서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주장하였다.⁶⁷⁾ 또 미국이 2년 동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실행을 지연시키고 파탄시켰으며, 소련의 철군제안도 거부하고 조선문제를 UN총회 토의에 넘겨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으며⁶⁸⁾ 결국 미국의 의도는 남한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⁹⁾ UN 한국위원회(조선위원회)에 대해서는 미군정을 도와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선거 희극(喜劇)을 실시하려는 도구일 뿐이라고 평가하였다.⁷⁰⁾

『근로자』는 미국이 전쟁중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여 유일한 자본주의 강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극동지역에 대한 침략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 '민주주의지역'이 건설됨에 따라 더욱 야만적인 침략정책을 펼치고 있고, 장개석정부의 중국 내전을 지원하기 위해 42억 5000만 \$의 차관과 군

66) 신영, 『쏘미관계』 「근로자」 제17호(1948.7)(사료집 45, 520쪽)

67) 김일성, '남조선 반동적 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북조선민전 제25차 중앙위원회에서' 「근로자」 제13호(1948.3)(사료집 44, 438쪽)

68) 같은 글(사료집 44, 438쪽)

69) 같은 글(사료집 44, 442쪽)

70) 김일성, '북조선 정치경제- 전조선계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근로자」 제15호(1948.5)(사료집 45, 150쪽)

사장비를 지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⁷¹⁾ 동시에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장개석군대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⁷²⁾

특히 미국이 여러 나라에서 미국 군대로 직접적인 점거를 강행하고, 민족반역자와 매국노를 매수하여 괴뢰정부를 세우고 있다⁷³⁾고 『근로자』는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⁷⁴⁾

특히 『근로자』는 미국이 일본을 미국의 단독 지배하에 두기 위해 천황제를 옹호하고 전쟁범죄자를 석방하여 일본 침략자를 재편성하여 반소·반아세아 인민의 앞잡이로 이용하려 한다⁷⁵⁾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일본경제를 미국의 독점에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본을 미국의 무역팽창을 위한 근거지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았다.⁷⁶⁾ 『근로자』는 이 시점에 미국은 일본에서 다른 동맹국과 협의도 없이 일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있다⁷⁷⁾고 말하고, 미국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박해가 개시되었고, 미국 및 그에 예속된 국가에서는 모든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박해가 개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⁷⁸⁾ 또 미국은 동구라파의 변동에 대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⁷⁹⁾

2) 소련에 대한 인식

『근로자』는 제2차 세계전쟁의 가장 주요한 결과로 '팃쇼 및 제국주의'로부터 구라파·만주·북조선을 해방하고 구출한 소련의 위력과 영향과 위신이 강화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⁸⁰⁾ 그리고 전쟁의 결과 우크라이나·백러시아 등이 러시아로 다시 들어왔고, 발틱 연해국가들도 소비에트 동맹으로 돌아왔으며, 이런 변화로 인해 소비에트 국가가 구라파 대륙에서 최대강국으로 출현하고, 자본주의의 약화라는 결

71) 석국, '미침략정착을 반대하는 극동계인민의 투쟁' 『근로자』 제13호(1948.3)(사료집 44, 472-73쪽)

72) 같은 글(사료집 44, 476-480쪽)

73) 같은 글(사료집 44, 473쪽)

74) 같은 글(사료집 44, 481쪽)

75) 같은 글(사료집 44, 474쪽)

76) 신영, '일본에 대한 미국 팽창주의자들의 정책' 『근로자』 제13호(1948.3)(사료집 44, 491쪽)

77) 같은 글(사료집 44, 515쪽)

78) 신영, '쏘미관계' 『근로자』 제17호(1948.7)(사료집 45, 521쪽)

79) 같은 글, (사료집 45, 525쪽)

80) 신영, '쏘미관계' 『근로자』 제17호(1948.7)(사료집 45, 521쪽)

과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⁸¹⁾ 또 동구라파 제국가의 '민주개혁' 실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⁸²⁾ 소련의 평화애호정책이 각국의 이해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³⁾ 더불어 전유럽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세력'이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⁸⁴⁾

『근로자』는 소련군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동정과 공명의 정신으로 관철되어 있는 해방군대'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소련군대가 일제로부터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주었다고 말하고 있다.⁸⁵⁾ 특히 2차 세계대전으로 소련군대의 해방적 성격이 명료하게 드러났으며, 일본은 소련군대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⁸⁶⁾ 또한 소련군대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각국의 인민들이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자기운명을 해결하고 건설할 가능성을 지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⁷⁾

『근로자』는 북한에서의 소련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파멸시키고, 일제 통치잔재를 청산하는 조건을 창설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 적당한 제조건을 보장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⁸⁸⁾ 또한 소련군대는 북한에서 군대를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한 공명정대한 군대라고 평가하였다.⁸⁹⁾

3) 중국에 대한 인식

『근로자』는 미국이 40억 \$ 이상의 차관과 군사장비를 장개석정부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반동파와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⁹⁰⁾ 중국인민해방군은 일본군과 미군의 장비로 무장한 장개석군대를 1946년 7월부터 1947년 11월까지 17개월간에 169만명을 격파하고, 해방지국의 근본진지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이 지배하는 지역에

81) 같은 글(사료집 45, 522-523쪽)

82) 같은 글(사료집 45, 523쪽)

83) 같은 글(사료집 45, 526쪽)

84) 같은 글(사료집 45, 526쪽)

85) '소련군대는 해방군대이다' 「근로자」 제20호(1948.10)(사료집 46, 282-283쪽)

86) 같은 글(사료집 46, 284쪽)

87) 같은 곳

88) 같은 글(사료집 46, 286쪽)

89) 같은 글(사료집 46, 287쪽)

90) 석국, '미침략정착을 반대하는 극동계인민의 투쟁' 「근로자」 제13호(1948.9)(사료집 44, 476쪽)

서 반공전(反攻戰)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⁹¹⁾

『로동신문』은 중국공산당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고⁹²⁾ 해방구에서는 '민주주의정권기관'이 수립되고, 토지분배가 이루어져 인민들이 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⁹³⁾ 『근로자』는 1948년 초에 전선은 가장 중요한 중심지인 수도 남경과 상해 등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으며⁹⁴⁾ 해방구역이 총공격전 개시전보다 3.4배 증가한 239만 평방㎢이고 480개의 현소재지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방구역의 인구는 1억 6800만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⁹⁵⁾

『근로자』는 중국인민해방군은 200만의 정규군과 400만의 인민의용군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해방군대가 미국의 새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⁹⁶⁾고 적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관할하에 있는 인민들이 국민당 구역의 주민들보다 잘 살고, 중국공산당은 270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⁹⁷⁾고도 전하고 있다.

이상의 『근로자』의 보도는 북로당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북로당은 중국대륙에서 장개석정부가 패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본에 대한 인식

『근로자』는 일본이 미점령군사령부의 지배하에 있는데, 2차대전의 패배로 식민지를 상실하였으며, 상비육해군의 존재는 없어지고, 군수공업은 금지되었다고 전하고 있다.⁹⁸⁾ 하지만 『근로자』는 일본에서 군국주의는 청산되지 않았고, '미군반동분자들이 양육하는 일본군국주의는 재생하기에 편리한 기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⁹⁹⁾ 『근로자』는 미국점령군사령부가 민주주의적 개혁을 방해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낡은 반동적 제도를 가급적으로 완전히 보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⁰⁰⁾ 또 일본 반동파는 미국인들의 이러한 정책으

91) 같은 글(사료집 44, 477쪽)

92) 『로동신문』, 1948.1.11, 1.28, 1.29, 1.31, 2.1, 2.3(사료집 44, 479-480쪽)

93) 같은 글(사료집 44, 480쪽)

94) 구우진, '민주주의중국의 군사적 성과' 『근로자』(사료집 45, 105쪽)

95) 같은 글(사료집 45, 107쪽)

면적은 중국 전체의 약 25%, 인구는 약 37%임(『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조선중앙통신사)

96) 같은 글(사료집 45, 110-111쪽)

장개석군대의 미국무기가 인민해방군의 무기 보급량이 되었다고 한다(같은 곳)

97) 같은 글(사료집 45, 112-113쪽)

98) 신영, '일본에 대한 미국행정주의자들의 정책' 『근로자』 13호(1948.9)(사료집 44, 483쪽)

99) 같은 글(사료집 44, 484쪽)

100) 같은 곳

로 용기를 얻고 미군당국의 원조하에 산업 및 금융독점의 지배를 완전히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⁰¹⁾

『근로자』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일본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일본경제 및 근로대중에 대한 약탈적 착취를 전개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¹⁰²⁾ 또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동방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본을 용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¹⁰³⁾ 이 과정에서 전시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일본 산업이 부흥하고 있지만, 600만 이상의 실업자와 빈궁에 빠진 노동자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⁴⁾

4.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후 북한을 주도한 조공분국의 기관지 『정로』는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될 때까지 해방에 대한 소련의 기여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미군정이 1946년 9월에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면서 북로당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8월에 창립한 북로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미군정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책동을 감행하고 있고, 미군정이 일제의 악독한 총독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로동신문』은 1946년 연말에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소공위의 재개를 통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1947년 2월에 『로동신문』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소련외상의 축전을 소개하며 미군정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였다. 이어서 『로동신문』은 4월에 미국 국무장관과 소련 외상의 서신 교환을 계기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진행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고, 이와 관련한 김일성의 낙관적 발언도 보도하였다. 하지만 9월에 한국문제가 UN에 정식 상정되고 10월에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북로당은 미국을 '국제반동진영의 선두'로 규정하고 식민지정책을 노골화하여 남조선 단독정부를 책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01) 같은 글(사료집 44, 490쪽)

102) 같은 글(사료집 44, 508쪽)

103) 같은 글(사료집 44, 510쪽)

104) 같은 글(사료집 44, 513쪽)

1948년에 접어들면 북한은 북한대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을 진행시켰고, 김일성은 반탁운동도 미군정의 지지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지난 시기에 가졌던 미국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나타냈다. 결국 북로당은 1948년부터는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중국·일본 정책과 필리핀 등 동남아정책을 짜잡아 침략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북로당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활용된 자료만으로 보면, 조공분국(북로당)은 1차 미소공위가 전개되는 시점까지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로당은 1946년 9월 미군정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통제를 보면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실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로당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기대감에서 2차 미소공위 때까지 대외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었다.

조공분국과 북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는 북한의 주도세력이 가졌던 열강에 대한 인식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조공분국과 북로당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열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당 내부 문건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본고를 보완할 예정이다.

大韓民國 樹立 前後 世界紀行記와 當代의
亞細亞 · 東洋 및 歐美 · 西洋認識과 表象

임 증 명

大韓民國 樹立 前後 世界紀行記와 當代의 亞細亞·東洋 및 歐美·西洋認識과 表象*

임 종 명 (전남대 사학과)

1. 서론: 세계기행기와 세계표상·인식
2. 아세아·동양: 단일한 실재로서의 인식·표상과 내재한 충돌·균열
3. 구미·서양: 미국의 근대문명국가상과 이에 대한 의심·충돌·경쟁
4. 결론: 충돌하는 표상과 인식, 균열의 세계기행기

1. 서론: 세계기행기(世界紀行記)와 세계표상(表象)·인식(認識)

1948년 8월 분단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출발 초기부터 자신의 민족국가성을 대내외에 시위하여야 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좌우대결의 산물이자 또 전(全)세계적 미소냉전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출발초기부터 대한민국을 이데올로기 중심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데올로기 중심은 인식론상에서 혈연과 지연중심의 당대 민족관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피의 공동체'로 상상되던 민족조차도 일민주의라는 국가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공동체'로 재정의하고자 시도하고, 나아가 실제로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국가를 '이데올로기의 정치체'로 만들고자 하였다.¹⁾ 동시에 대한민국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정당화해야 했다. 초기 냉전의 산물이라는 대한민국의 태생적 성격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수립초기부터 미국과 '연대'하고

* 본 발표문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초고이므로 발표자의 동의 없이 인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임종명, 「일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호, 2006. 「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의 가족국가화와 내파」 『한국사연구』 130호, 2005.

나아가 초기 냉전의 전개과정에서 스스로를 서구진영으로 편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정치지형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중심의 위치설정은 당대 민족관의 핵심인 혈연·지연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국제정치적 위치설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동시대 아세아·구미 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조정'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수립 전후 시기 남한에는 인종·중심적 세계관이, 따라서 국제관이 담론공간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해방 후 지리교육 교과서명칭과 그 내용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당시 세계지리교과서로 『이웃나라』와 『먼 나라』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웃나라』는 아시아국가의 자연·인문지리를, 또 『먼 나라』는 구미국가와 아프리카국가의 자연·인문지리를 다루고 있었다.²⁾ 이와 같이 당시 세계지리교과서는 한국과의 지리·공간적 이격(離隔)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同)교과서들은 개별대륙 및 개별국가의 인문지리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민족별, 내지는 인종별 구성을 교과서의 주요항목으로 다루고 있다.³⁾ 이러한 인종주의적 접근은 인류집단의 분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종족이 민족성이나 사상, 심지어, 미학(美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당대인들의 의식을 표현한 것이었다.⁴⁾ 이와 같이 당시 한국에는 인종·지역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세계에 대한 인식론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아시아국가는 “황인종 등 비(非)백인의 이웃나라”인 반면에 구미국가는 “먼 백인종의 나라”였다. 이와 같은 인종·지역중심적 세계관은 단순히 ‘관념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자기 정체성 형성과 자기 발전의 전망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였다.

인종·지역중심적 세계관에 따르면, 아시아는 한국인의 자기 정체성 형성과 자기 발전 전망의 틀이었다. 즉, 한국인은 스스로를 “황색인종의 아세아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컨대, 박상길(朴相吉)과 같은 당시 경성방송 시사해설가는 일제의 대동아공영주장과 당시 구미의 세계지배를 비판하면서 “대(大)아세아신질서의 건설”을 주장했다. 즉 그는 일제의 ‘대동아공영’주장이 “일본적 아세아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일제의 그것을 구별해내고 있었다. 이러한 위에서 “아세아주의, 세계약소민족주의”와 “세계신질서창건주의와 아세아적 신정치이념”에 입각해서 ‘구미에 의해 경제적으로 시장화되고, 정치적 거세되고, 또한 문화적으로 고유성이 말살된’ 아세아의 “각성

2) 예컨대 김원숙, 『이웃나라』, 연화사, 1948; 『먼 나라』, 연화사, 1948 참고.

3) 박노식,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지리 참고서 먼 나라』(개정판), 동심사, 1948.

4) 당대의 인종중심적 인식에 대해서는 임종명, 『脫식민지 시기(1945-1950년)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193호 참고.

과 꺾기”를 촉구하면서 “대(大)아세아 신질서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대아세아 신질서의 건설은 전(全)지구적 차원에서는 “아세아와 구미의 세계영역적 평등”과 백색(白色)·유색민족의 전인류적 평등” 실현의 과정이었다.⁵⁾ 이러한 것은 해방 이후에도 지역성과 인종, 힘의 강약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한국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또 앞의 틀에 의해서 자신과 아시아(인), 세계(인류)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당대한국인들이 구미의 세계지배를 비판하면서, 아시아를 자기 정체성 규정의 틀로, 또 자기 발전 전망의 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라는 탈(脫)인종·지역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자기자신의 생존과 발전의 틀을 미국과의 ‘연대’에서 구하던 발족 초기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대인의 세계인식은 단순한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당대의 인종·지역중심적인 세계관과 국제관을 수정하고, 탈(脫)현연·지역의 이데올로기를, 또 이에 기초한 세계관과 국제관이 대중에게 수용되도록 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 갖 출범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상황이자 국가적 과제였다.

이러한 출범 직후의 문제상황과 국가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본 연구는 동시대의 세계기행문에서 나타나는 당대인의 아세아(亞細亞)·동양(東洋)관과 구미(歐美)·서양(西洋)관을 검토한다. 기행문 또는 여행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국토’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을 ‘국민’으로 정의해주는 것’이다.⁶⁾ 이러한 기행기가 해방 후 한국에서도 단행본이나 또는 잡지 게재 단편의 형태로 다수 출간되었다.⁷⁾ 이러한 국토기행기는 ‘국토의 구성과 국민의 생산’이라는 일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자들에게 국토를 ‘대중의 친근한 삶의 공간’으로 제시하였다.⁸⁾ 또한 본 논문의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동(同)시기에 다수의 세계기행기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세계기행기는 ‘동질적 공간으로서 국토를 표상’하는 국토기행기와는 달리 ‘이질적인 공간으로서 세계를 표상’하여 세계를 이질화한다. 이러한 세계의 이질화는 최종적으로 고유공간으로서 국토를 표상하여 민족주의적 의제(議題, agenda)를 정당화한다. 동시에, 세계기행기는 추상적인 인간, 즉 인류의 공간으로서 세계를 동질화하여, 국토라는 특수공간을 상보(相補)하는 보편적 공간으로서 세계를 구성한다.⁹⁾ 이를 통해 세계기행기는 세

5) 박상길, 「영웅이여 나오라」, 조양사출판부, 1949.

6) 김현주, 「한국근대산문의 계보화」, 소명출판, 2004, 128~129쪽.

7) 전경준, 「영남여행기」 『조선교육』 1(3), 1947; 香橋閣人, 「남선순회인상기」 1 「법정」 2(12), 1947; 「남선순회인상기」 2(완) 「법정」 3(1), 1948; 銀江學人, 「국토순례 백전(白川)은권행」 『국학』 3호, 1948; 김대호, 「호남에서 영남까지(기행문)」 『해양』 1(1), 1949; LPZ生, 「호남지방을 일순하고」 『법정』 4(1), 1949.

8) 임종명, 「탈식민지시기(1945~1950) 남한의 지리교육과 국토표상」 『한국사학보』 30호, 2006.

계적인 민족국가체제(nation-states system)의 일 구성단위로 존재하는 민족국가의 현실을 승인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의제를 정당화한다.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적 함의로 말미암아 민족국가수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탈식민시기 다수의 세계기행기가 남한의 담론공간에 출현하였다.

이러한 세계기행기를 자료로 하여 본 연구는 기행기에서 표상(表象)된 아세아(亞細亞)·동양(東洋)과 구미(歐美)·서양(西洋)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앞의 공간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파악한다. 당시 아시아 또는 아세아(亞細亞)와 동양(東洋), 동아(東亞)는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문세영의 『중등 조선어사전』(1948년)에서 “동양”을 “동쪽 아시아를 일컫는 말”로, 또 “동아”(東亞)를 “동쪽 아세아, 동양”으로 해설하는 것에서 쉽게 간취될 수 있다.¹⁰⁾ 하지만, 이것들, 특히 동양과 아세아는 실제 용례에서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亞細亞에 籍을 둔 東洋 여러 나라”에서처럼 “아세아”가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동양철학”이나 “동양의학”에서처럼 “동양”은 역사·문화적 함의를 가진 언어이다.¹¹⁾ 이러한 어의와 용례를 유념하면서 본 연구는 당대인의 세계인식을 파악하고자, 대한민국 수립전후 대중적으로 유포되고 소비된 세계기행기를 연구텍스트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행기에 나타난 아시아·구미상(像)의 ‘실제’(實際)보다도 기행기라는 텍스트에 나타난 구미·아시아에 관한 담화(談話)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표상을 재구성하고, 이것을 통해 당대인의 관련 인식을 파악한다.¹²⁾

2. 아세아(亞細亞)·동양(東洋): 단일한 실재(實在)로서의 인식·표상과 내재(內在)한 충돌·균열

세계기행기에서 아시아·동양은 전통시대 종교·철학·문화적으로 연결되고, 또 근대시기 제국주의 희생의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들로 구성된 장구한 역사의 실재(實在, entity)로 표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중국 상하이(上海)를 설명하는 남조선과도정부 여성국장 고헥경의 『인도기행』을 참고하여 보자.¹³⁾ 『인도기행

9) 근대철학에서 보이는,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상보성에 대해서는 Naoki Saka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p. 153~176.

10) 문세영, 『중등 조선어사전』, 삼문사, 1948년, 76쪽.

11) 예컨대 고헥경, 『인도기행』, 을유문화사, 1949, 『서』3쪽. 바로 이러한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지리교육』에서는 아시아가 사용된다.

12)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32, 2005, 107~109쪽 참고.

13) 고헥경은 남조선과도정부의 부녀국장으로 1947년 4월 인도에서 개최된 범아세아대회에 참석하

』은 “우리나라 정객들이 많이 망명을 해 왔고 기미년 만세사건 당시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이곳이며 한국임정세력이 수립된 것도 이 땅”(강조, 필자)이라고 설명하여 상해를 식민지 하 한국인의 역사 공간으로, 또는 역사 속으로 끌어 들인다. 그리고 다시 『인도기행』은 “東洋의 국제도시로서 유명도 하지마는 국제세력의 전람회로서 畧租界의 압투 피압박민족의 숨바꼭질 하듯이 타국 조계로 숨어 다니던 곳”(강조, 필자)이라고 하여 상해를 ‘국제세력이 상호 경쟁하고 피압박민족이 숨어 다니는 동양의 도시’로, 요컨대 서양과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동양 피압박민족의 역사 공간으로 표상한다.¹⁴⁾ 이것은 상하이와 이에 의해 대표되는 중국이 한국인의, 동양피압박민족의 역사공간으로 표상되면서, 역사에 의해서 연결된 한국, 중국, 동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인도기행』에서 한국, 중국, 동양은 역사를 공유하는 실재(實在)로 표상된다. 그런데, 피압박 공동체로서의 표상작업이 단순히 역사라는 과거를 불러내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현실의 인종차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수행된다. 예컨대, 인도태평양야수산회의(1947.1) 참석차 싱가포르를 여행한 외무부 정보국장 황성수는 “국제적도시요 中國人口가 七割 新嘉坡[*싱가포르]재산의 八割이中國人소유인 지방에서도 中國人은白人의 水泳場에 들어가지못”한다고 소개하면서,¹⁵⁾ 백인에 의해 차별되는 중국인, 나아가 중국인에 의해 표현된 비(非)백인 동양인·아세아인에 대한 백인의 차별, 달리 표현해서 백인의 서양에 의해 차별되는 비(非)백인세계 아세아·동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아세아·동양은 ‘억압과 차별의 공동체’로서 표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동양으로서의 동류성’(同類性)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는 다시 두 나라와 인도를 연결시키면서, 나아가 동양을 구성(構成)한다. 예컨대 고헤경의 일행이었던 하경덕의 「인도에 다녀와서」는 인도를 “우리조선이나 중국과가치 ?천년의남은[*오래된] 역사를가졌”다고 하여, 유구한 역사성을 매개로 인도를 조선과 중국에 연결시킨다.¹⁶⁾ 이렇게 연결된 인도를 고헤경의 『인도기행』은 한국과의 인도의 인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도를 한국과 같은 동양으로 감정(勘定)한다. 즉, 『인도기행』은 인도를 “불교와 타고올翁 간디翁을 통하여 [한국과] 끊을 수 없는 어떤 깊은 인연을 느끼게 되며 또 한편으로는 같은 동양의 긴 역사를 가지고 제국주의에 희생된 운명을 무언중 뼈깊이 同情해 오던 나라”로 표현한다.¹⁷⁾ 여기에서 고헤경은 인도기원의 불교, 타고올(Rabindranath Tagore), 또 마하트마 간디(Mahandas Karamchand Gandhi)를 매개로 하여 한국과 인도의 인

고, 귀국 후 「인도기행」을 출간하였다.

14) 고헤경, 「인도기행」, 을유문화사, 1949, 93쪽.

15) 황성수, 「인도태평양야수산회의기행」 「외무월보」2호, 124쪽.

16) 하경덕, 「인도에 다녀와서」 「신천지」5월호, 1947, 6쪽.

17) 고헤경, 「인도기행」, 「서」1쪽.

연을 확인한다.¹⁸⁾ 동시에, 그는 “같은 동양의 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인도를 한국과 같은 동양으로 소속시킨다. 이것은 당시 동양·아세아가 장구한 역사를 공유하는 실재로,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역사를 같이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또 그렇게 표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양은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서, 고향경은 “아세아는 아세아끼리 그 역사와 경험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공통성을 『인도기행』은 ‘구체적인 경험 묘사’를 통해 확인시켜준다. 고향경은 범아세아(汎亞細亞)대회 중의 ‘여성문제 관련 회의’에서 ‘피릿핀·버어마·印度·애지프트·인도네시아·예루살렘聖地·섬나[*暹羅, 타이]·安南·蒙古’의 대표들이 “자기나라의 여성문제[를] 소개”할 때, “동양에 공통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까닭인지 모든 점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그는 논박(論駁) 없이 다른 범아세아대회 참가자들의 진술을 소개하여, 공동으로 “연구”되고 보호”될 “아세아의 공통된 이익”이 있음을 암시한다.¹⁹⁾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세아에 이집트, 예루살렘 등과 같은 아랍지역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기행』이 앞과 같은 범아세아대회 참가국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향경도 아세아의 외연을 아랍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에서 확인해 둘 것은 많은 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공동의 이익을 가진 존재로서 동양·아세아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인도기행』은 범아세아대회 참가자를 위한 한국 부녀사업후원회(婦女事業後援會)의 선물인 태극(太極) 은(銀)반지를 “銀은 순결을 표시하는 것이고 반지(環)는 고리 이므로 하나로 단결한다는 뜻인 고로 아세아의 순결한 단결을 상징하여 조선부인들이 보낸다”라고 설명한다.²⁰⁾ 이것은 순결하게 단결해야 할 아세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기행문은 공통한 역사·문화·이익을 가진, 또 순결하게 단결해야 할 실재로서 동양·아세아상(像)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실재화된 아세아·동양은 ‘장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의 자천(自薦)에 반(反)하게도 끊임없이, ‘문명론의 관점’에서, ‘전(前)근대·비(非)문명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민재호의 『런던올림픽기행』 중(中)의 한 기사(記事)는 시사적(示唆的)이다. 서울중앙방송국의 아나운서인 민재호는 상하이(上

18) 인도기원의 불교가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 또 그들의 신앙종교에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될 필요가 없지만, 타골과 간디와 한국의 연관성에 대해 간단히 지적한다면, 타골은 시(詩) 「패자(敗子)의 불꽃」이나 「동방(東方)의 불꽃」을 통하여 한국의 식민지 현실을 동정하고 그것의 독립을 희구하였고, 간디는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그들의 독립운동방향 모색에서 참고전거(典據, reference)로 기능하였다.

19) 고향경, 「알 책」, 『서』9, 122~123, 131쪽.

20) 고향경, 「알 책」, 137쪽.

海) 초입의 황푸강(黃浦江)을 만나는 장면을 다음과 묘사한다.²¹⁾

우리가 탄 배는 상당히 큰 배였다. “제네럴메익스”²²⁾라고 삼만톤짜리 배인데…꽤 호사스러운 배였다. (중략) 黃浦江의 첫 인상은 범선이 몹시 많은것으로서 돛대가 서루 얼크러져서 아주 돛대숲을 이루었다. 밀집한 돛대가 대숲처럼 뻗어서서 우리 배는 황포강 돛대를 헤치면서 상해로 올라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어이름의 거대화하여객선과 대조적으로 범선으로 돛대숲을 이룬 황푸강 풍경을, 또 연상적(聯想的)으로 상하이, 중국, 아세아의 모습을, 즉, 근대(近代)에 대비되어 부조되는 전(前)근대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전근대의 공간으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은 아세아·동양의 자연화에서 집중적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詳述)될 것이다.)

전(前)근대공간으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은 역사적으로 과거의 공간으로, 구체적으로는 ‘봉건적(封建的)인, 고대적(古代的)인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고헥경의 『인도기행』을 다시 참고해보자. 『인도기행』은 고헥경이 상하이에서 투숙한 호텔을 “푸룻이 中世紀式 건물의 특징”을 가진 “十九世紀 歐美式 건축”으로 설명하면서, 호텔을 구미화(歐美化)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것으로 감정한다.²³⁾ 이것은 지금부터 보듯이 『인도기행』의 아세아·동양에 대한 기본적 기시법(記時法)이었다. 예컨대, 『인도기행』은 ‘영국제국주의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의 결과 인도 전역에 산재한 번왕국(蕃王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³⁾

인도가 영국의 지배하로 들어 온지 백년 이상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여기 저기 자유국가가 산재해 있다. 옛날 봉건시대 모양으로 王侯가 그 자유국가를 통치하는데 물론 그 여러 자유국가 사이에는 직접 아무 연락도 없고 상관도 안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절대 자치라고 하면서도 최후의 主權은 영국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도] 여기 저기 … 산재”한, “옛날 봉건시대 모양으로 王侯가… 통치하는”(강조, 필자) 번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왕국에서 정치만이 “봉건시대 모양”은 아니었다. 관련 기행기는 번왕국의 사회 역시 “봉건사회”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서 남조선과도정부 농무부 농산국장 현근의 「인도인상기」를 읽어보자.²⁴⁾

21) 민계호 「런든유럽기행」, 수로사, 1949, 18, 24쪽.

22) 고헥경, 「알 책」, 99쪽.

23) 고헥경, 「알 책」, 148~149쪽.

24) 현근, 「인도인상기」 「신견지」5월호, 1947, 48쪽. 현근은 국제연합 식량농업본부과위원회 주최의 미국연구회(1947.5.18.~6.6.) 참석 차 인도남부의 트리반드럼(Trivandrum)시에서 열린 미국

필자가 체류하고 있던곳은 트리반코-라는 왕국인데 행정에있어 완전한독립국가로서 삼천년간 통치역사를가진 국왕의궁정과 기타의 무속건물을볼때 그 호화에는 놀라지 않을수없었습니다. … 인도독특의 宗教儀典과極度の封建社會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금일에이루어서도 아즉껏 엄격한계급이 數多하며 따라서 그간의 문화와 생활 정도가 극심한 차이가 있음을 볼수가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인상기」는 인도 번왕국의 사회를 ‘엄격한 계급제도를 가진, 그리하여 계급사상과 같은 계급에 따른 문화와 생활이 극심한 차이가 있는 봉건적인 계급사회’로 설명한다.²⁵⁾ 인도사회의 ‘봉건성’은 단순히 번왕국만의 것이 아니다.

‘봉건성’은 인도전체의 것으로 확대된다. 봉건성의 확대와 관련해서 각종 관련 기행기의 인도의 계급문제와 종교문제 관련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역사구분법에 따르면, 봉건사회는 ‘종교지배의 계급사회’로 특징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념하면서, 계속 관련 기행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여러 기행기가 이구동성으로 계급적으로 양극화된 인도사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예컨대 현근은 자신의 「인도인상기」에서 인도인이 “엄격한 종교의儀典과 종교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또 “종파에 너무도 拘泥함으로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방면의 일대지장이되는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자신의 “깊은 인상”을 기록한다.²⁶⁾ 이렇게 “모든 방면의 일대지장”이 되는 인도인의 종교생활을 민재호의 『런든오림픽기행』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²⁷⁾

종교인지 미신인지 —뜬으로 단언할수는 없으나 기도가 몹시도 많은 곳이 “칼컷 타”였다. 인도였다. 비행장 앞에 서있는 이릉도 없는 조고만 나무에다가 대고 물고인 땅위에 무릎을 꿇고 열번 스무번 계속해서 절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중략) 아무 나무거나 어디거나 상관 할것이 없이 그저 잘 잘 되게 해달라고 실새 없이 절을 하고 있는것이라고 한다.(중략) 하루 종일 두손 마주 잡고 기도만 하다가는 낮잠을 자니 무슨 위로 잘 되기를 바랄것인가? (중략) 그래서 대개 이러는 사람들은 몸이 몹시 파리 하고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두눈이 어몽하게 焦點을 잃고 허공을 더듬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도 않고 “우연과 요행”을 바라고 “기도만” 하는

연구회에 참석하고 귀국 후 자신의 인도인상을 한국에 전한다. 현근, 「국제연합미국연구회 출석 경과담」 「농촌」2호, 1947.

25) “계급사상이 농후”한 인도상과 관련된 일화(episode)는 고헤경의 「알 책」, 115~116쪽 참고.

26) 현근, 「인도인상기」, 49, 99쪽.

27) 민재호 「알 책」, 57쪽.

초점 잃은 눈의 파리한 인도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생활까지도 “拘泥”하는 인도의 모습을 표상한다.²⁸⁾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계급문제에 관한 설명 또한 주목할 만하다. 고향경과 함께 범아세아대회에 함께 참석했던 하경덕은 인도에는 “승려, 군인, 농부 노예의四계급 이있었는데, 英統治 이후군인계급은 없어지고 이밖에 언터켜어불(不可觸階級)”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급적으로 분단(分斷)된 인도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²⁹⁾ 만일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당대의 역사구분법을 환기해 본다면, 우리는 ‘종교지배 하의 계급사회’로서의 인도사회상(像)이 인도를 역사적으로 ‘전(前)근대적 봉건사회’로 표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봉건적인 인도상(印度像)’만이 아세아의 전(前)근대성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前)근대적인 아세아상(像)은 다시 한번 ‘고대적인 동양상(東洋像)’에 의해서도 축조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세아·동양이 장구한 역사의 공간으로 표상된다면, 아세아·동양의 역사는 자연스럽게도 고대와 연결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다. 예컨대 하경덕의 「인도에 다녀와서」는 인도를 “원래 오랜역사를가진 국가”로, 또 “古跡으로보아 希臘에 지지않는 나라”로 설명한다.³⁰⁾ 여기서 우리는 인도가 고대유럽문명의 발상지로 운위(云謂)되는 그리스와 비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도가 “희랍에 지지않는” “古跡”을, 따라서 그 고적을 낳은 고대문명을 발전시켰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적과 고대문명을 소유한 아세아·동양 국가는 인도만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민재호의 『런튼오림픽기행』의 “埃及”편을 펼쳐보자. 애급편을 펼쳐면, 우리는 그것이 “역사의 나라 전설의 나라 애급!”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¹⁾ 이는 기행기저자들이 이집트를 “역사의 나라”로 표상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또 실제로 관련 기행기들은 이집트를 역사의 나라로 표상하면서, 그것을 고대의 공간으로 이전·배치한다. 예컨대, 안동원의 『世界一周記: 鵬程十萬里』는 이집트를 “五百年歷史를 자랑하는” 나라로 설명하면서, 「埃及古代彫刻」 표제 하에 고대이집트인의 모습과 그 문자가 담긴 조각을 찍은 사진을 수록하여, 이집트의 ‘장구한 역사성’과 “古代”를 연결시켜 낸다.³²⁾

이렇게 “고대”로 연결된 이집트와 東洋(the Orient)는 ‘현재’조차도 古代化된다. 『런튼오림픽기행』은 “낙타와 羊의 떼는 聖書의 한토막을 읽는 느낌”이라고 비행

28) 종교적 헌신과 관련해서, 이집트 또한 “宗教熱”의 나라로 제시된다. 민재호, 「알 책」, 68쪽. 따라서 “宗教熱” 내지 ‘종교의 拘泥’는 인도만의 것이 아닌, 따라서 동양사회 일반의 속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것이었다.

29) 하경덕, 「인도에 다녀와서」 「신천지」 7월호, 1947, 6~10, 12쪽.

30) 하경덕, 「알 글」, 6쪽.

31) 민재호, 「알 책」, 69쪽.

32) 안동원, 「세계일주기: 鵬程十萬里」, 태극서관, 1949, 41쪽. 「埃及古代彫刻」(사진).

기에서 내려 본 “애급의 風物詩”를 읊는다.³³⁾ 만일 聖書가 해당지역의 ‘고대’(古代)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애급의 風物詩”는 ‘이집트의 목가적(牧歌的)인 현재’를 고대(古代)로 환치(換置)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世界一周記』 역시 「埃及카이로市外에 散在한 피라미드群」(사진)을 통해 고대와 현재를 연결 하면서 현재를 고대화시킨다.³⁴⁾



이 사진은 상단의 피라미트와 하단의 낙타 탄 인물들을 각각 배치하여, 또는 피라미트이라는 고대(古代)와 살아 움직이는 ‘동물’(動物)이라는 현재(現在)를 하나의 프레임(frame) 위에 배치하여, 낭만적으로 또는 관광욕구를 자극하면서 고대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나아가 현재를 고대화시킨다. 이와 같이 관련기행기는 東洋(the Orient)의 대표적인 나라인 이집트를 오래된(old) 나라로, 나아가 고대의 나라로 환치하면서, 이집트에 의해 대표된 동양을 고대화한다.

그런데, 동양의 현재를 고대화하는 것은 두개의 시간, 즉 현재와 고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동일한 시간성의, 나아가 시간이 정지한, 변화가 없는 정체(停滯)된 동양을 표상한다. 이와 관련해서 『런던오림픽기행』의 아라비아사막 묘사는 시사적이다. 그 기행기는 비행기 위에서 바라본 아라비아사막을 다음과 기록한다.

바람에 밀리는 모래들이 물결처럼 끝단데없이 흐르고 있는 모습에서는 정작 영원의 뉘새가 풍겼다. 그것은 어제부터도 아니오 내일까지도 아니오 모름지기 永遠에서

33) 민재호 「앞 책」, 64쪽.

34) 본 연구는 시각자료 역시 활자자료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의 관심과 가치체계의 반영물이자 생산자의 생산동기와 이에 따른 시각화전략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위에서 본 연구는 시각자료가 표상(表象)하는 이미지(image)와, 또 이미지표상 방식과 동기 내지는 정치성에 주목한다. 시각자료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92집, 2005, 110쪽 참고.

永遠까지일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永遠”의 아라비아사막, “어제”나, “내일”이란 시제(時制)가 의미 없는, “永遠”만이 존재하는 아라비아사막을 만날 수 있다. “어제”와 “내일”이 “오늘”과 함께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상의 운동 내지는 발전이라는 근대적 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어제”와 “내일”이 무의미한 공간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아라비아사막을 ‘운동’이나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지 ‘바람에 밀리는 모래들이 뭉켜처럼 끝단데없이 흐’르기만 하는, 환언하면 자연적인 반복만이 계속되는 공간으로 표상하는 것이었다. 자연적 반복의 영원성은, ‘세속적인(secular) 시간, 즉 인간의 시간’을 전제(前提)하는 근대적인 시간관념에 따르면, 시간이 없는 것일 수 있다.³⁵⁾ 따라서 영원의 공간으로 표상된 아라비아사막은, 확대해서 동양은 변화가 없는 정체(停滯)된 공간으로 표상된다. 정체된 공간으로의 동양상(像)은 관련기행기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앞에서 우리는 동양의 현재가 고대화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현재의 동양이 고대의 동양과 동일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것은 동양을 고대이래로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공간으로 표상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정체된 공간으로서 표상된 동양이 자연화되는 것은 필지(必至)의 것이었다. 우리는 앞에서 ‘비(非)문명’의 공간으로서 표상되는 아세아·동양의 모습을 보았다. 문명·문화가, 근대적 상상법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개조하고 성취한 인위적(人爲的)인 유·무형물(有·無形物)’을 의미한다면, ‘비(非)문명’의 공간으로 표상된 동양은 곧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안동원의 『世界一周記』는 흥미롭다. 『世界一周記』는 「인도(칼카타와뵘베이)」를 “덫다!”로 시작하여, 동양·아세아에 대한 관련기행기의 시선(視線)의 방향, 즉 그것의 자연화를 암시한다.³⁶⁾ 실제로, 『런든오림픽기행』은 『世界一周記』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사막의 샤자(Shajah)에 기착(寄着)한 후 그곳의 묘사를 ‘아궁에서 나오는 불김’같은 “熱風”으로 시작하여 시선의 방향을 암시하면서, ‘아라비아는 모래만의 나라’(강조, 필자)로 묘사한다.³⁷⁾ 마찬가지로 고향경의 『인도기행』 역시, 중간기착지인 베트남 쿤밍(昆明)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넓은 초원이라는 인상 밖에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우리 하고 온 비행기와 우리 점심먹을 식당집 외에는 별로 못찍었다”고

35) 세속적 시간으로서의 근대시간에 대해서는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1991, New York: Verso 참고.

36) 안동원, 「알 책」, 33쪽, 기행기와 시선의 방향, 자연화에 대해서는 David Spurr, *The Rhetoric of Empi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참고.

37) 민재호, 「알 책」, 60, 61쪽.

하면서, 베트남을 자연화한다.³⁸⁾

그런데 보다 집중적인 동양·아세아의 자연화는 인도관계 기행문에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 현근의 「인도인상기」를 읽어보자. 「인도인상기」도 『世界一周記』나 『런든오림픽기행』과 마찬가지로 “인도자연지리”로부터 시작하면서, 그것이 “대단히 單調”롭다는 “첫印象”의 “感想”을 기록한다. 이어서, 「인도인상기」는 우기(雨季)의 수해방지와 한발기(旱魃期)의 수량유지가 “印度人民의 死活問題”라고 하여, 자연과의 싸움이 “人民의 死活”을 결정하는, 달리 표현해서, 사람들의 생사가 자연(과의 싸움)에 달린 인도를 표상한다. 나아가 그 기행기는 자연이 인도에서 사람들의 경제생활과 일상생활까지 결정하고 있음을 독자에게 전해준다. 즉, 그것은 “旱魃期에는 國民의活動도 대단히 제한됨으로 事務家의 執務時間도大槪는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라고” 소개하여, 자연이 노동시간과 같은 경제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⁹⁾ 뿐만 아니라, 고향경의 『인도기행』은 “아무리 활동적인 사람이라도 기후가 그만큼 덥다면 별수 없이 그늘만 찾아 다닐 수 밖에 없겠으니 게으르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연이 인간의 행위양식까지 결정하는 모습의 인도를 구축한다. 심지어 『인도기행』은 “인구 조절을 자연에게 맡”겨 인구가 과잉된 것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양 공통의 현상”이라 지적하면서, 자연에 의해 인구도, 또는 인간 자신의 존재도 조절·지배받는 인도상(像)과 아세아·동양상(像)을 구성한다. 이러한 “동양공통의 현상”을 『인도기행』은 “원시시대의 자연생활”로, 따라서 “문화의 발전을 따라 계획생활”로 변모되어야 할 것으로 감정(勘定)한다.⁴⁰⁾ 이와 같이, 아세아·동양은 세계기행기 속에서 자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원시적 공간으로, 또 문화·문명론상에서 비(非)문화적 공간으로 표상되고 구성된다.⁴¹⁾ 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아세아·동양상(像)이 결코 안정된, 즉 단선적이고 또 수미일관(首尾一貫)한 것이나 정합적(整合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부에서 균열과 충돌이 존재하고 있었다.

38) 고향경, 「알 책」, 90쪽.

39) 현근, 「알 글」, 47~48쪽. 자연이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모습은 다른 기행기에 의해서도 전달되는데, 예컨대 고향경의 「인도기행」은 무더위로 “오후 세 시가 되자 잠자던 시내는 다시 활동이 개시되고 상점과 은행이 일시에 열”린다고 전한다. 고향경, 「알 책」, 119쪽.

40) 고향경, 「알 책」, 102~103쪽.

41) 덧붙이면, 아세아·동양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사람들 또한 근대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전근대적·비문명적 존재’로 표상된다(예컨대, 민재호, 「알 책」, 56~57쪽) 또한 그들은 즉, 관련 기행문에서, 아세아·동양인은 성격이나 기호, 성향 등이 자연에 의해 지배·결정되는 존재로 표상되면서 자연화된다(예컨대, 안동원, 「알 책」, 31쪽 참고).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식을 소유하지 못한 비(非)자각적(自覺的) 존재’로, 실천력을 갖지 못한, 의자의식을 갖지 못한 존재로, 나아가 “생선메 같은” 동물로 심지어 “산송장”과 같은 존재로 표상된다(예컨대 민재호, 「알 책」, 57쪽; 안동원, 「알 책」, 12, 34쪽).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는 서양에 대(對)해서 동양·아세아를 단일한 실재로 표상한 기행문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과 충돌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앞에서 관련 기행문이 아세아·동양을 구미·서양에 대하여 공통한 역사·문화·이익을 가진, 또 순전하게 단결해야 할 실재로서 표상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단일한-최소한 구미·서양에 대해서- 실재로서의 표상은 끊임없이 의심되고, 심지어 부인되기까지 한다. 예컨대 『인도기행』은 고향경이 머문 상하이의 호텔을 “十九世紀 歐美式 건축”이고 그 주변 “경치는 시카고 시내 어떤 호텔 뒷골목과 흡사”하다고 설명한다.⁴²⁾ 이것은 구미가 상하이라는 도시 풍경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상하이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차라리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예컨대, 버마(Burma)를 방문하고 기록을 남긴 『런든오리픽기행』 역시 그곳의 “中國式과 洋式을 절충한” 건축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서양·구미의 모습은 현재도 건설 중인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미국화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각종 관련 여행기는 전하고 있다. 예컨대 남조선미군정장관 고문인 김길준의 「전후 일본기행」은 “美軍의 往來이 많은 거리는 全部 美國式 街名이 붙어있고 그 거리를 달리는 것은 『지-프』나 최신형차들이 대부분이어서 마치 美國 어느 都市에나 있거나 없는가 의심할 정도”라고 미국화된 거리의 모습을 전한다.⁴³⁾ 이렇게 아세아·동양의 거리와 건물에는 서양이 새겨져 있었다.⁴⁴⁾ 하지만 구미가 도시의 외면적 풍경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자신의 “領地”를 아세아·동양에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황성수의 「인도태평양수산회의기행」은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長沙場 高요한 海岸, 그리고 띄기 띄허 廠器官 같이 네모진 田畠”과 “푸른 叢林”을 보고 “佛領 印度支那”(강조, 필자)를 “영국식 액센트”를 들고 또 홍콩이 “英國領地”(강조, 필자)임을, 그리고 쟁카퓌의 태평양수산회의의(1947.1) 참가국 중 “馬來”가, 또 인도네시아가 “和蘭”의 식민지임을 이야기하면서, 아세아에는 아세아인의 아세아 이외에도 서구인의 아세아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환기하고 있었다.⁴⁵⁾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아세아·동양전도(全圖)’ 위에는 곳곳에 ‘구미·서양색(色)’이 더해진 알록달록한 모습의 것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서양이 단지 도시 풍경이나 자신의 영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양·구미는 언어나 교범(manual), 행위양식(practice)에도 아로새겨져 있었다. 예컨대, 국제통신사(INS) 기자 설국환의 『일본기행』은 “입국한 이래 수삼일 동안” 그가 본 것 모두가 “외국것 특히 미국것들”로, “처음순간, 우리가 지금 일본에와

42) 고향경, 『알 책』, 99쪽.

43) 김길준, 「전후 일본기행」 『신천지』 11·12월합병호, 1947, 71쪽.

44) 민재호, 『알 책』, 52쪽.

45) 황성수, 『알 글』, 110, 113, 119쪽.

있나 미국에와있나를 의심할정도로 용어 문서 모든것이 영어로 처리되고 있"다고 독자에게 전한다.⁴⁶⁾ 이와 같이 새겨진 서양·구미는 아세아·동양인, 즉 사람에게도 각인(刻印)되어 있었다. 아세아·동양인들은, 예컨대 일본인은 '倭裝'보다는 '양장'을 입고 '倭나막신 소리가 요란'하지 않게 요코하마(橫濱)의 거리를 다니고 있었다.⁴⁷⁾ 의상 등의 외면뿐만 아니라 아세아·동양인의 내면에도 또한 서양·구미가 새겨져 있음을 관련 기행기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당대 기행기들은 인도가 "동서양의 특징이 다 섞여 있다"고 하면서, 인도엘리트와 일반 인도대중들의 이원화(二元化)된 삶의 소개하는 중에 "수백년간영국의 통치하에있었던만큼 상류계급에속하는인도인의생활양식은 모다 영국식"으로 그들의 정신 또한 "영국정신화했다"고 설명한다.⁴⁸⁾ 이것은 구미·서양이 인도상류계급의 생활양식과 정신에까지 체화(體化)되고 내화(內化)되어 있는, '東西洋이 혼합'된 인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동서양은 정신에서만 '혼합(混合)'된 것이 아니었다. 신체까지도 동서양이 혼합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예컨대, 하경덕의 「인도에 다녀와서」는 "백인남자들과 결혼해서 사는 여자는 비교적 적으나 백인여자와 동거하는 인도남자는 比較的數가많은편"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서양의 混婚'을 보여준다.⁴⁹⁾ 이어서 고향경의 『인도기행』은 "제일 우습고 재미있게 생각된 것"으로서 "純 영국과 純 버어마의 혼혈"로서 "중국여자의 용모에 가까"운 범아세아대회의 버마(Burma)대표를 소개하면서, '혼혼(混婚)의 결과인 혼혈(混血)'의 존재를 독자에게 보여준다.⁵⁰⁾ 이것은 생활방식이나 정신에서만 아니라 신체에서조차도 동서양이 혼합·혼혈하여 혼혈적 신체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동서양 혼혈이 존재하는 동양·아세아의 모습을 표상한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각종 기행문은 자신이 서양에 대(對)해서 단일한 실재로서 표상했던 동양·아세아상(像)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었다.

서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아세아·동양의 단일한 실재성은 관련 기행문에서 의심되고 나아가 그 의미가 부인된다. 단일한 실재성에 대한 의심은 일국(一國) 차원에서도 행해진다. 이와 관련해서 하경덕의 「인도에 다녀와서」를 참고해보자.⁵¹⁾

다만지리상으로는 통일을 이루고있지만 인종, 언어학상으로보면 일종의 박물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종교, 계급등에있어서도 복잡한 집합체라고 할수있다. 계급은 승려,

46) 설국환, 「일본기행」, 수도문화사, 1949, 9쪽.

47) 민계호, 「알 책」, 16쪽.

48) 고향경, 「알 책」, 165쪽; 하경덕, 「알 글」, 9쪽.

49) 하경덕, 「알 글」, 10쪽.

50) 고향경, 「알 책」, 190쪽.

51) 하경덕, 「알 글」, 12쪽.

군인, 농부 노예의四계급 이있었는데, 英統治이후군인계급은 없어지고 이밖에 언터취 어블(不可觸階級)이었다. 종족은 지역이 넓은만큼 수천종이 있는데…언어는 264종이 있다고들말하나 실지로 물어본즉 大別하면 40내지20종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方言이많기때문에 인도전국에서 공통사용할 교과서를 만들지못하고 있다한다.

여기에서 「인도에 다녀와서」는 인도가 계급적 분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인종으로도 분단(分團)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다른 관련 기행기들은 “宗教的現實”로 “獨立道程에있어서 統一되지못하고 分裂”되어 “종교간의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서 “거의 쓸새없이 [힌두교도와 회교도] 兩教徒間에 衝突이각지에서 계속발생”하는 “동족상잔”의 인도 모습을 보여준다.⁵²⁾ 이것은 동양·아세아는 차치하고라도 인도라는 한 나라도 단지 ‘지리적 동일체’일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암시는 독자로 하여금 일국차원에서 단일성조차도 의심하도록 이끈다.

아세아·동양의 개별국 차원에서도 단일성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아세아·동양 전체로 이전된다. 우리는 앞에서 공정한 역사·문화·문명을 가진 실재로서 동양·아세아가 표상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일본의 존재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전(前)근대·비(非)문명의 공간’으로서의 아세아·동양과는 다른 모습이 각종 기행문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예컨대 고헥경의 『인도기행』은 과거 일본을 “아세아에서 현대 과학문명을 최고속도로 흡수”하였다고 설명하고, 또 1950년 현재의 일본에 대해서도 대한 노총 간부 유기태의 「국제자유노련대회참가와 세계일주기행」은 일본이 “제이차 대전에 패망”하였어도, “지금은産業生産이 초과되어 문자가 풍부하고 사회 경제 형태가 完全이回復되었다하여도 과언아닐 것”라고 설명하면서, 두 기행문 모두 아세아·동양과는 다른 일본을 제시한다.⁵³⁾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와 현재도 다른 아세아·동양과는 다른 것이었다. 설의식의 『일본기행』은 과거 일본이 “완전치못했더라도 五大強國의 一員에들어 近代資本主義國家의生活”을 하였고, 현재에는 “해방국인 우리”와는 반대로 “패전국”으로 일본인들이 “아직도 『東條가 이겼더라면』 하는생각을 잊지못하고있는듯”하다고 전한다.⁵⁴⁾ 이것은 근대시기 대부분이 피침략·점령·억압 하에 있었던 아세아·동양의 국가들과 다른 과거와 현재를 가진 존재로서 일본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존재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문명을 가진 실재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에 균열을 낳는다.

이러한 균열과 함께, 내부적으로 단일한 실재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은 다

52) 현근, 「알 글」, 93쪽; 민재호, 「알 글」, 63쪽; 하경덕, 「알 글」, 11쪽.

53) 고헥경, 「알 책」, 10쪽; 유기태, 「국제자유노련대회참가와 세계일주기행」, 「신천지」 4월호, 1950, 113쪽.

54) 설의식, 「알 책」, 150, 2, 22쪽.

양한 측면에서 의심된다. 이와 관련해서 범아세아대회에 참석했던 고향경의 『인도기행』은 다양한 나라로 구성되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白紙”인 나라들로 구성된 아세아·동양의 모습을 도처에서 보여준다. 예컨대, 그 기행기는 고향경의 “인도에 온 후의 불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⁵⁵⁾

나는 마음속에 미안한 것은 인도 온 후의 불만이 亞細亞사람으로서 조선의 존재를 못알아준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네팔이란 나라에 대해서 전연 白紙이란 것이다. 인도 네시아를 몰랐을 때에 망설거리다가 용기를 내세 물은 것처럼 지금 비록 미안하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중략) [네팔대표인 육군장교] 조선에 대해서는 전연 백지이요 조선사람의 용모가 어떻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호 생면부지(生面不知)인 나라들로 구성된 “亞細亞”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아·동양은 각각 “자기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갖고, 따라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가진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의 만남조차도 ‘미안함과 창피함, 불만, 그리고 어색함과 당황스러움, 또 불만과 낙심(落心)’이 동반(同伴)하는 곳이 아세아·동양이었다. 이러한 심리상태가, 먼저, ‘미안과 창피함, 그리고 불만’이 수반되는 만남은, 예컨대 바로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조선대표’와 ‘네팔대표’의 만남을 다시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그리하여 적응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남은 고향경이 인도의 간디를 만나는 모습에서 발견된다. 『인도기행』은 초면인사법에 대해서 고민 끝에 악수를 청하는 고향경과 이와는 달리 합장하는 간디, 그리고 이속에서 고향경이 느낀 ‘당황, 어색함’ 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⁵⁶⁾ 나아가 아세아·동양인의 만남은 ‘불만’과 ‘낙담’의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고향경의 실타를 들여보자. 즉,⁵⁷⁾

이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조선을 물리주는 것도 마음에 못 마땅해서 불평을 하면서도 이곳은 서양이니까 동양을 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변명도 해주고 위로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동양이요 아세아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까지 와서 중국과 피릿핀 외에는 다 조선을 모른다는 얼굴을 하는 것을 볼 때는 불만보다도 낙심이 앞을 서는 것 같기도 하였다.⁵⁸⁾

이같은 서양인과의 만남과 다른 동양인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고향경이 실제의

55) 고향경, 『알 책』, 145쪽.

56) 고향경, 『알 책』, 140~144쪽.

57) 고향경, 『알 책』, 114쪽.

58) 고향경, 『알 책』, 144쪽.

만남에서 느꼈던 낙심(落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같은 동양이요 아세아 사람들 끼리”도 한국을 몰라주는 만남은 고향경에게 낙심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아·동양은 서로의 만남조차도 ‘낙심’이 수반되는 곳으로 재현된다. 나아가, 그 만남이 때로는 소동부재·불능의 것으로도 재현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집트 피라밋 관광 중의 만남을 묘사한 『런든오림픽기행』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자.⁵⁹⁾

배스가 스자…수십명 떼로 밀려 들었다. 너무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서로 제짐승(*낙타)을 타라고 팔을 끌어서 한때는 아주 썩판 같은 풍경이었다. 더구나 말이 통하지 못하니깐 더욱 떠드는 소리만 높고 그런지라 더 싸우는것 같은 시늉들을 하다가 안내자의 말에 따라서 모두들 가까운데 서 있는 짐승등에 올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능한 상황에서 소란만 가중되어 “안내자”가 없으면 정돈되지 않을 듯한 ‘참판 같은 풍경’의 ‘아세아·동양인의 만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행문들은 기대와 예상·상상과는 달리 ‘불만과 낙심, 참판 같은 소란’의 만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세아·동양의 ‘실제(實際)’는 기행문에서 인종이라는 측면에서도 포착된다. 우리는 앞에서 기행문을 읽는 동안 동·서양인의 혼혈인을 만나 보았다. 그런데, 비(非)혼혈 동양인도 단일한, 또는 순종(純種)의 것이 아니다. 먼저, 『인도기행』은 범아세아대회 대회장의 식당 풍경이, 즉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여러 특색을 가진 얼굴과 의복이 눈에 뜨일 때”마다, 고향경이 “亞細亞에 이만큼 여러 인종이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눈을 통해서 더욱 역력히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다인종의 공간으로서 아세아를 설명한다.⁶⁰⁾ 나아가 다른 인도기행기는 다인종의 구성된 아세아·동양은 인종적으로 상호 관련이 없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하경덕의 「인도에 다녀와서」는 인도인 “대개가 얼굴이 새잡한 黑人種”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중해근처에 온 『아리안』족속”이라고 설명한 다음 이들은 “조선민족과 전연관련이 없”다고 단언한다.⁶¹⁾ 이것은 아세아·동양인이 인종적으로 “전연관련이 없”음을, 달리 표현해서 인종적으로 단일인종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자, 아세아·동양이 인종적으로 상관없는 이들의 공간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아세아·동양은 인종적으로도 단일(純一)한 공간이 아닌 것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속에서 앞서 구축된 동양·아세아상(像), 즉 ‘단일한 실재로서의 동양·아세아’는 의심되고 동요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공동한 이해(利害)와 단결의 필요성조차 의심되고 반박된

59) 민재호, 『알 책』, 85쪽.

60) 고향경, 『알 책』, 109쪽.

61) 하경덕, 『알 글』, 10, 12쪽.

다. 고향경의 『인도기행』은 범아세아대회와 전체 분위기를 다음과 설명한다.⁶²⁾

지기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서양의 기계문명에 희생이 되고 서양의 식민지화된 상태에서 떠나야 한다는 전체에서 부지중 전체의 공기는 서양에 대항해서 아세아를 이끈다는 결론에 달한 듯이 되는 것도 같으며 뚜렷이 서양을 적대시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지는 않은 듯하나 여러 국가가 아직도 서양의 식민지상태로 있고 국가의 대립보다 인종의 대립에서 쓴맛을 본 사람이 많은 관계로 좀처럼 서양을 친구라고 부를 분위가 되지 못하였었다.

이것은 범아세아대회 참가국들이 서양의 식민지상태로 있으면서 인종의 대립을 중시하고 서양에 대항하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도기행』은 “지난번 전쟁중 일본사람에게서 가장 쓴 맛”을 본 필리핀 대표의 발언, 즉 “동양사람 아세아사람이라고 다 친구요 서양사람이라고 원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소개한 후, 이것이 “아무리 血族이라도 인권을 무시하고 인도주의에 벗어 난다면 원수이요 아무리 인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인권을 신봉하는 자는 친구이란 것을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지배 하에 있으면서] 체험하여 깨달”은 결과라고 해설하면서 필리핀대학교수의 발언의 동의를 표한다.⁶³⁾ 이것은 인종에 의해 지역과 세계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요컨대 ‘동양 대 서양’이라는 인종·지역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자, 나아가 인도주의나 인권과 같은 탈(脫)인종·지역의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보편주의 이외에도 냉전의 전개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강조가 기행문을 통해 행해진다. 법무부 조사국장 홍진기는 『法政』의 「(좌담회) 敗戰四年後の日本」에서 일본 정계나 학계, 학교에서 “가장 주된 문제는 사상문제”라 하면서 “世界 다른나라와 한가지로 左右兩思潮가 뚜렷이 對立”하는 일본 국내 냉전(冷戰)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의 헌법·법률·법학, 의회, 사법부, 경찰행정 등 제(諸)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개혁의 진척상황을 설명한다.⁶⁴⁾ 이러한 일본설명 속에서 홍진기나 여타의 일본기행소감은 제국주의나 강대국/약소국, 인종이나 지역과 같은 화제(issue)를 범(汎)세계적인 혹은 초(超)지역·인종적인 사상에 의해 대치시킨다. 인도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초(超)지역·인종적인, 보편주의적 담론은 앞서 보았던 ‘단결하여 수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한 이해를 가진 아세아·동양’이라는 인식론을 스

62) 고향경, 「앞 책」, 156쪽.

63) 고향경, 「앞 책」, 156~157쪽.

64) 점집부, 「(좌담회) 敗戰四年後の日本」 『法政』9월호, 1949, 55, 58~59쪽. 유기태의 「국제자유노력대회참가와 세계일주기행」은 냉전의 진행과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는 시각에 기초해서, “옛날에 보던 제국주의적 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유기태, 「앞 글」, 119쪽). 이것은 민주주의 내지 이데올로기 중심의 담론이 제국주의 또는 강대국/약소국 담론과 경쟁하면서 후자를 약화해제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로 부인하고 또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당대의 아세아·동양 기행기에 내재한 균열·내파이자, 동시대의 아세아·동양관과 세계관에 내재한 자기 동요·충돌의 모습이다.

3. 구미(歐美)·서양(西洋): 미국의 근대문명국가상(像)과 이에 대한 의심·충돌·경쟁

당시 생산된 미국여행기는 미국을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여 세계 제일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로 표상한다. 먼저, 각종 기행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을 “지리적으로 행복한 위치이며 무변광야의 옥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천혜의 나라”로 설명한다.⁶⁵⁾ 하지만, 미국이 풍부한 자원의 “천혜의 나라”로, 또는 ‘자연의 왕국’으로만 표상된 것은 아니다. 즉 미국은 “그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야 최고도로 발달한 기계공업과 아울러 필수품에서 사치품에이르기까지 각색의 허다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였다.⁶⁶⁾ 이러한 결과, 미국은, 각종 미주기행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계 제일의 문명과 경제적 풍요의 나라로 제시된다. 즉,⁶⁷⁾

건물이광장하야 건축기술이 世界的一최라든가 지하철도의 시설이 광대하면서도 견실하고 실질적인 점이 일출다로게모이고 기계문명이 世界에一최이며 자동차의 많은 정도 세계에서 볼수없는 형태이고 경제적으로 풍부하야 불안이없고 (下略)

이같은 건물이나 지하철도, 자동차를 통해 미국을 문명의 나라로 표상한다. 이러한 표상은 미국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천혜의 나라만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참무진장의 富源”으로 만들 수 있는 문명국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연과 문명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동시성은 미국 시카고 미시간(Michigan)호수변 피서지를 묘사하는 다음에서 보다 극적으로 포착된다. 즉,

「미시간」호반의 모래위에 누어서 보는 광경은 또광장하외다.한쪽은 이십여층의시가고 고층 건물이 솟아 있고, 그 아래 바로 우리가 누은 곁에 있는 자동차 도로에는 개

65) 송영호 「미국방송견문기」, 「신천지」11월호, 1949, 133쪽; 유기태, 「국제자유노련대회참가와 세계일주기행」, 「신천지」4월호, 1950, 113쪽.

66) 송영호 「알 글」, 133쪽; 고희동, 「美州瞥見記」(4) 「신천지」3월호, 1950, 102쪽.

67) 유기태, 「알 글」, 113쪽.

미 떼처럼 함께 달아나는 수천대이 자동차우리!

이 인용구는 미시간호수 피서지와 고층건물, 수천 대의 자동차가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하나의 풍경으로 포착하면서 미국을 자연과 근대문명이 동시에적으로 구비된 공간으로 제시한다.⁶⁸⁾ 이와 같이 자연이 구비된 기계문명의 나라 미국은 또 다른 기행기에 의해 인간적 의미가 부여된다. 즉, 조병옥의 『特使유·엔기행』은 “미국인은 생활전반을기계화시켜 근육노동을최소한도로축소함으로써 신체의혹사를 피하고 생산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을 풍부히하여 인간생활의 시간적여유를얼도꼭그목표를 매진하여 나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잉여의재력을가지고 종교 문화 과학 慈善及平和産業을 국제적규모로 운영”한다고 설명한다.⁶⁹⁾ 이와 같이 미국의 “물질문명”은 그 인간적·문화적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인간화·문화화된 미국은 관련 기행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具象化된다. 예컨대, 경성방송 아나운서인 송영호는 “온갖 문화시설이 완비”된 미국에서 “각계각층을막론”한 미국대중이 방송문화를 “손쉽게 그리고 곧고루” 향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정에는 물론 대중집합소 대중식당, 이발소, 자동차 그외에 휴대용수신기로 공원에서 거리에서 방송을 듣는다”고 한국인독자에게 알려준다.⁷⁰⁾ 나아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화가 고희동의 『美州瞥見記』는 “체육관 오락장 수영장 태양욕장 안마실등의 施設가具備”된 대서양구락부를 방문하고 그곳에는 “身體不健한사람들이 몸을수련하고 정신을 휴양하러모이려있”다고 독자에게 설명한다.⁷¹⁾ 이것은 “身體不健”한 사람들, 또는 건강치 못한 신체를 보살피는 미국의 문명시설을, 나아가 인간주의적 미국의 모습을 표상한다.

이렇게 인본화된 미국에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인간적인’ 그것들로 제시된다. 심지어 고희동의 『美州瞥見記』는 시애틀(Seattle)을 방문하고 “동작이 활발하고 표정이유쾌하고도 친절하다”고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심지어, “아해들의 노는것도 그잔디밭우에서 자연스럽게 자미스롭게 놀고있다. 성을내고 서로종종거리며 닳투는일이없는 것같했다”고 덧붙인다.⁷²⁾ 이것은 미국안에서 노소를 막론한, 활기차고 서로 우애있게 지내는 미국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러한 우애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까지 확대된다. 즉, 고희동은 다른 기행기에서 “젊은여자가 손에다 무슨맥이를들고 섰는데 나무에서 새때가나라내려서 쪼아먹는”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의 한 공원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주면서,

68) 김계원, 『아메리카通信』 「학동」3월호(2권2호), 1949, 91쪽.

69) 조병옥, 『특사 유·엔 기행』, 덕흥서림, 1948, 40~41쪽.

70) 송영호, 『알길』, 192쪽.

71) 고희동, 『美州瞥見記』(9) 「신천지」2월호, 1950, 141쪽.

72) 고희동, 『美州瞥見記』(2) 「신천지」신년호, 1950, 227, 228쪽.

“그얼마나 자미스럽고 유쾌한가과연 사람의 사는 것이었다”고 결론짓는다.⁷³⁾ 이로써 미국은 단순한 ‘天惠의 나라’로부터 脫자연화되어, 인간화되고 또 문화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명·문화·인간적인 미국상(像), 또는 미국문명·문화의 인간적인 의미가 미국 일국의 범위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즉 각종 기행문들은 미국(문명·문화)에게 세계적·인류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각종 미국기행기에서 외국인에게도 친절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미국인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 수립 후 미국을 방문한 민간사절단을 한 미국인이 초대하여 마련한 멤피스(Memphis)의 한 만찬회 묘사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즉, 교회동의 『美州瞥見記』(4)는 그 만찬회를 “主客并하여 十數人”이 “술잔을 서로 들어서 대이며 권커니 작커니 자미스러운 이야기로 친선”하면서 “한가족이 모힌것과같은 기본으로 단란하였다”고 묘사한다.⁷⁴⁾ 이것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한 가족과 단란하게 어울리는 만찬회’를 마련한 미국인의 친절과 친선·우애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민)의 인본적 의미는 미국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조병옥은 “미국민은 자기들의 국민생활이 풍부함으로써 그잉여의재력을가지고 종교 문화 과학 慈善及平和事業을 국제적 규모로 운영하는것도 오로지 미국민밖에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풍요가 갖는 국제적 의미를 제시한다. 요컨대, 그는 ‘미국의 경제적 풍요가 국제적인 문화사업과 자선사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문명의 국제적 의미를 설명한다.⁷⁵⁾

하지만 이러한 모습의 미국은 다른 구미국가와 끊임없이 경쟁되어진다. 먼저 ‘최고도로 발달한 근대문명의 나라’로서의 미국상(像)은 바로 그 이유로 비판당하고, 오히려 프랑스가 ‘정신의 고향’으로 제시된다. 즉 모운숙의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은 ‘동양적(東洋的) 미학(美學)’에 기초해 ‘최고의 문명지역으로 표상된 미국’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또는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고 대신 프랑스에서 ‘정신의 고향’을 발견하고 파리를 상찬(賞讚)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이것은 ‘제일의 근대문명국가’로서 표상된 미국이 당대의 관련 기행문에서 또 다른 구미국가인 프랑스에 견줘지는 현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판적 견종과 프랑스에 대한 상찬(賞讚)이 모운숙의 ‘근대서구 비판의, 반(反)근대의, 또는 비(非)근대의 미학(美學)’에 기초한 것이라면, 다른 기행기는 근대주의에 입각하면서도 한국의 발전모델을 미국 이외의 구미국가에서 찾는다.

안동원의 두 기행문, 『世界一周記: 鷗程十萬里』와 『歐洲理想國家群』은 구미의

73) 교회동, 『美州瞥見記』(5) 「신천지」4월호, 1950, 123쪽.

74) 교회동, 『美州瞥見記』(4), 183쪽.

75) 조병옥, 『알 책』, 41쪽.

스위스와 스웨덴, 덴마크를 이상국가로 제시한다. 안동원은 그의 기행기를 『世界一周記: 鵬程十萬里』라고 제호(題號)할 수 있을 만큼 동(同)시대의 다른 어느 세계여행기보다도 아세아·구미 전세계에 걸쳐 “約半年間…二十個國을 視察”하고, 그를 소개하면서 그 각각에 대한 자신의 인상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서구주의적 근대주의를 곳곳에서 보여준다. 예컨대 그는 태국의 “거리를 걸어보니 좀 게으르다는 기본을 준다”고 태국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소개하고, 또 인도 캘커타(Calcutta)를 방문하고는 “露天에 아무데나 쓰러져서 잠을 자는 사람도 많은데 모두가 기운이 한푼어치도 없어 보인다.…반 나체로 어깨를 드러치고 우물거리는 사람이 방금 죽어 너머지나 아니하나 겁이 났다”고 자신의 걱정 또는 두려움을 전한다. 그리고 그는 상해를 방문해서는 그곳을 “대도시로써는 너무나 좁은 거리에 전차, 자동차, 버스, 黃旬車, 三輪車가 어지럽게 움직이고 또 그 더 좁은 인도에는 사람의 떼가 흐느이는 꼴이 언뜻 바다에 떠돌지어 다니는 생선떼 같은 감을 주었다”고는 인상을 기록한다.⁷⁶⁾ 이러한 것들은 그의 『세계일주기』가 동양인을 기후에 좌우되는 자연적 존재로, 또 어류로, 나아가 ‘산송장’과 같은 존재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캘커타 감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즉⁷⁷⁾

市街地를 한바퀴돌아보니, 어디를 가나 정돈된데가 없고 (중략) 그래도 석가모니의 나라, 칸디를 낳은 나라, 타고아詩聖(*타골(Tagore))을 기른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기만하고 더럽고-무어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다. (강조, 필자)

이 인용문은 캘커타 시가지 관광이 “무어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다”로 매듭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말하기도 싫은 것이 그의 캘커타였고, 인도였다. 이것은 『세계일주기』가 근대문명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동양을 바라보고 있음을 얼핏얼핏 보여준다.

동양에 대한 시선에서 나타난 근대문명주의는 서구(西歐)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였다. 『세계일주기』는 기본적으로 근대문명주의에 기초해 있는데, 이는 그의 기행기 곳곳에서 목격된다. 예컨대 『세계일주기』는 비행기와 같은 “文明의利器”는 “地球地圖를 縮小시키는 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명·과학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뒤떨어진…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건설은 復舊가 결코 아니어야 하고 新建設이 되어야 하겠”다는, 요컨대 ‘구(舊)타파·신(新)건설’과 이를 위해 “뒤떨어진”(後進)에서 ‘선진’(先進)에로의 “突進”을 주장한다.⁷⁸⁾ 이것은 『세

76) 안동원, 『알 책』, 12, 32~33쪽.

77) 안동원, 『알 책』, 33쪽.

78) 안동원, 『알 책』, 5, 42, 45쪽.

『세계일주기』가 ‘신(新) vs 구(舊)’의 이항대립식(二項對立式, binary opposition)과 이 속에서 새로움(新)을 선호하고 이를 위한 전진(前進)을 사모하는 안동원의 ‘근대(近代)발전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문명과학주의는 안동원의 유럽여행일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그의 구주(歐洲)일정 중에 “문화가 인류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나 “二千餘年 歴史를 가진 古都 로마”는 주된 목표지가 아니었고, 단순히 ‘중간기착지’(中間寄着地)였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서구여행일정에서 ‘이천여년의 역사’나 ‘고대(古代) 전설·문화’는 그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⁷⁹⁾ 대신에 그는 앞의 근대과학문명주의에 입각하여 구주일정의 대부분을 서구(西歐)여행에 배정하였다.

서구여행 중에 그는 스위스 등을 방문하고, 이후 『歐洲理想國家群』을 통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을 ‘구주이상국가’(歐洲理想國家)로 제시한다. 동양·아세아를 여행할 때와는 달리 안동원은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몇일간 시가지명소 구경을 하려고 여행안내서 한권”을 구입하고 런던 시가지를 여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하기가[도] 싫었던 인도에서와는 달리, 그곳 명소들과 민주주의의 역사 등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상세설명을 제공한다.⁸⁰⁾ 이와 같이 유럽을 “공부”하던 그는 스위스를 “巡訪見學”하고 “世評이 조금도 틀리지 않게 이瑞西는 꼭재운 地上天國이라고 느끼”고, “우리나라도 아프로 건설을 해나가는데는 이 나라政治, 이 나라經濟, 이 나라社會生活을 한모범으로 삼아야할것”이라고 주장한다.⁸¹⁾ 그리고 『세계일주기』는 이러한 이유의 “重要點”으로 “영세중립국, 地方자치의 절대적자치 人種差別全無, 貧富差異全無, 人民의自由平等 절대확보, 永世中立國의고집, 국민개병제, 교육보급, 사회시설완비, 그야말로 가장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제시하고 이것을 『歐洲理想國家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영세중립국”에 주목하고 있다.⁸²⁾ 또한 『歐洲理想國家群』은 덴마크를 이상국가로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민주정치, 지방자치제도, 교육·사회복지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이유 중에서 『歐洲理想國家群』은, 덴마크 관련 부분의 제목이 「農工俱全國인 丁揀(덴마크)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農工俱全,” 특히 “중공업은 별로 없고 경공업과 소규모공업 발달”이라는 덴마크 공업의 특징과 “그農民에게 全部自作權을 주고 교육을 보급시키고 科學的農事法을 가르치어주어서 지금에와서 부국이 되었다”는 농업의 특징에 주의한다.⁸³⁾ 끝으로 스웨덴에 대해서는, 「天下第一協同組合의 나라 스웨덴(瑞典)」라는 관련부분의 제목이 시사

79) 안동원, 『알 책』, 5, 42~51쪽.

80) 안동원, 『알 책』, 59~61, 88~70쪽.

81) 안동원, 『알 책』, 104, 107쪽.

82) 안동원, 『알 책』, 108쪽; 『歐洲理想國家群』, 태극서관, 1949, 1~49쪽.

83) 안동원, 『歐洲理想國家群』, 134~186쪽, 특히 179, 186쪽.

하듯이, 『歐洲理想國家群』은 여러 특징 중에서도 소비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다.⁸⁴⁾

이와 같은 '구주이상국가'(歐洲理想國家) 제시는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로 표상되고 있는 미국과 경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앞에서 우리는 스위스 이상국가화의 주요근거 중 하나가 그것의 '영세중립'에 있음을 보았다. 영세중립의 강조가 갖는 의미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전(全)세계적 냉전의 진행 하에서 전세계가 미·소양진영으로 편성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진영으로 편입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영세중립의 강조는 한국의 미국진영(美國陣營)가담을 비판하는 것이자, 세계의 진영화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이러한 간접적 비판은 스위스 이상국가화의 한 근거로 제시된 "人種差別全無"에서도 쉽게 간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貧富差異全無"와 함께, 스웨덴이상국가화의 근거로 협동조합운동과 그 조직을 제시하는 것 또한 세계최고의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의 모델과 긴장·경쟁하는 '제삼(第三)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미국모델과 경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歐洲理想國家群』이 덴마크의 "農工俱全"을 강조·환기하는 것은, 특히 그것의 '발달한 중소기업'의 소개는 대공업 위주의 미국산업화모델에 대해 '제삼(第三)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동원의 기행기는 근대적 과학문명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최고의 근대문명국가로 표상된 미국모델과는 긴장·경쟁관계에 있는 '제삼(第三)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동일한 '서구중심의 발전적 근대문명주의'의 기초 위에서도 두 개의 모델이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근대문명국가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의심과 비판은 동시에 세계기행문에서 나타나는 총돌의 모습, 그 일단(一端)을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의 세계기행문에서 미국(인)상은, '근대서구비판의 반(反)문명·비(非)문명주의'와 '서구중심적인 발전적 근대과학문명주의'에 기초한 의심과 비판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심과 비판과 관련해서 조병옥은 "미국민의 물질적송배에 따르는 도덕적폐해도 없는배아니"어서 "미국민도 도덕적 자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⁸⁵⁾ 대한민국의 국제연합(U.N) 특사 조병옥의 지적이 극히 추상적이라한다면, 국립박물관장 김재원의 지적은 보다 구체적이다. 즉, 그는 미국인들이 "대단히 냉정"하여, "돌아 서면 그만, 아무런 애착도 이별의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을 "미국인들의 通性"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김재원에 따르면, 미국인의 친절도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한 남의 편리를 보아 준다"는, 달리 말해서, '이타(利他)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84) 안동원, 『알 책』, 50~134쪽, 특히 쪽.

85) 조병옥, 『알 책』, 41쪽.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친자식도 그 아버지 집에 살면서 방세 내고 밥값” 낸다고 전하여, 미국인의 가족관계를 ‘이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계약에 기초한 이기적 사회’로 설명한다.⁸⁶⁾ 이와 같이 미국기행기들은 미국인의 도덕과 성향, 생활관습을 매개로 해서 인간주의적 미국상에 대한 의심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의심은 ‘극상(極上)의 문명공간’으로서의 미국‘상(像)’에 대해서도 향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모운숙의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롭다. 그 「세계기행」은 미국행 여행선에서 모운숙이 갖고 있던 고독감을 전해준다. 「세계기행」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탄 배가 미국배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全部美國人”으로 그는 조선말이나 조선사람의 행동을 할수가 없”고 “이배안에 아무도 내 마음에 가까운 이가 없”어 “완전히 나는 고독한 몸체처럼 기계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⁸⁷⁾ 여기에서 우리는 ‘비(非)민족적 환경에서 언어나 행동을 잃어버린 조선사람의 고독’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기행」이 포착한 모운숙의 고독이 ‘인공·문화적인 고독’만은 아니었다. 지금부터 그가 느꼈던 고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고독을 낳았던, 내지는 그에게 고독을 강요했던 환경을 그의 「세계기행」에서 읽어보자.

「세계기행」의 미국은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억압·위협하는 모리(謀利)추구의 기계문명의 세계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기행」은 모운숙의 고독을 ‘기계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몸체의 고독’으로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가 되고 사물이 되 버린 것’은 모운숙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뉴욕(New York)의 모습이자 뉴요커(New Yorker), 또는 뉴욕사람의 모습이기도 했다. 즉 뉴욕은 “기계처럼 웃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로서, 거기서 만나는 뉴욕사람들은 “맞나는 사람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기계적으로 사귄다.” 이와 같이 기계화되고 사물화된 뉴욕과 뉴요커에는 “순진한 미국사람들을 뉴욕서 만날 수 없음이 싫었다”고 술회(述懷)할 정도로, 순진(純眞)한, 즉 참된 사람은 없다고 「세계기행」은 이야기한다. 대신 「세계기행」에서 뉴욕은 “현실만이 흠을 추고 현실만이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뜻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장사꾼 들의 눈이 밖위도록 첩자와 모리에 들성”거리는 “소란과 광분의 파노라마”였다.⁸⁸⁾ 다시 말해, 그곳은 “뉴욕시가 처음 볼때는 어떤 상가를 연상”(강 조, 필자)하였다는 모운숙의 고백처럼, “첩자”와 “모리”(謀利)의 도시였다.⁸⁹⁾ 요컨대 뉴욕은 ‘인간이 사라지고 이자와 모리를 추구하는 기계들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뉴욕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이 꼭 드러찬 뿔뿔들은 너무나 교만”한, “지나치는 문화선동”과 “지나치는 기계문명의 자

86) 김계원, 「아메리카通信」 「화풍」9월호(2권2호), 1949, 88쪽.

87) 모운숙, 「내가 본 世上」 「문예」9월호, 1949, 204, 205쪽.

88)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完[*2]), 「문예」10월호, 1949, 155쪽.

89)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3) 「문예」2월호, 1950, 130쪽.

량”의 도시로, “인간을 억누르라는 질서 없는 선물의 도시”로, 따라서 “아무 실감을 가질 수 없”는 “내가 진이고 있던 영혼이 살육될 듯한” 도시, 심지어 “호흡하기가 곤란”한 도시이다.⁹⁰⁾ 다시 말해 「세계기행」에 나타난 뉴욕은, 또 그에 의해 상징되는 미국은 “인간의 영혼과 신체적 생명까지 위협·억압하는 모리(謀利)추구와 기계문명의 세계”였다. 바로 이러한 세계에서 모운숙은 자신을 사물화(事物化)할 정도로 ‘고독’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고독이 환경에 의해 유발된 것만은 아니었다. 즉, 모운숙에게 있어, 고독이라는 병의 발병은 환경요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다.

「세계기행」이 표상한 ‘반(反)인간적 모리열(謀利熱)과 기계문명의 미국’은 모운숙의 ‘동양애호’(東洋愛好)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기행」을 계속 따라가 보자. 모운숙은 “영혼을 질식할 뿐 아니라 호흡도 곤란한 뉴욕에서 ‘곧 피난할 길을 생각’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정신의 고향”을 만난다. 정신의 고향을 만나는 모운숙의 모습을 그의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4)은 다음과 기록해 두고 있다. 즉,⁹¹⁾

파리!! 파리!! 모파산 지드 찰락, 니폴레온, 이런 일홍들이 가슴을 스쳐 머리로 획획 지나간다. 내가 찾으려던 정신의 고향에 오는 듯한 感이다. (중략) 뉴욕 보다는 黃昏 같은 은근한 감을 주는 거리에 흰 빛을 발산하는 대리석 동상들이 여기 저기 보인다. (중략) 여기엔 마음을 끄으는 故鄉味가 있고 지나가는 대로 이해할수 있는 人間味가 솟는다. 피곤이 풀리는 도시다 나는 중세기적 고풍을 느끼면서도 찬란한 옛 일을 내뿜는 벽화를 바라보며 (중략) 길거리는 물로 씻은듯 맑고 길폭이 뉴욕 길보다 훨씬 넓다. 시기에 질비한 건축물 들은 모두가 아메리카에서 보든 별뿔 보다 연대가 오래된 듯 싶다. 그만큼 뜻이 있어 보이고 정잔아 보인다. 하나 하나 역사를 말하는 조각물로 식여진 품이 많다.(강조, 필자)

이 인용문은 “뉴욕 보다는” 파리에서 “고향미”와 “인간미”를 느끼는 모운숙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물론 그의 “정신의 고향에 오는 듯한 感”은 시인으로서 세계적 문학가의 나라를, 또 세계적인 민족영웅의 땅을 순례하는 기쁨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앞의 인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미학(美學) 또는 기호(嗜好)이다. 즉 그는 “중세기적 고풍”과 “옛 일”, “연대가 오래”, 그리고 “역사”에서, 심지어 “黃昏”에서 “故鄉味”와 “人間味”, 또 “뜻”과 “정잔”을 본다. 이러한 그의 기호 또는 미학은 물론 개인적인 ‘곧동(骨董)애호벽(愛護癖)’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곧동애호벽은 개인적인 기호·

90)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完[*2]), 154, 155쪽;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4) 「문예」9월호, 1950, 168~170쪽.

91)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4), 170, 173쪽.

미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당대 역사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⁹²⁾

골동애호벽의 당대적 의미는 '서양문명에 대한 회의와 의심·비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세계기행」은 시간성과 역사성을 기준으로-그것도 과거를 중심으로- 하여 사물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현실만을 추구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뉴욕을 비평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의 파리감상에서, 또 "현실만을 좇은 추"는 뉴욕이라고 한 그의 비평에서 암시된다. 이러한 암시는 「세계기행」에 실려 있는 무제(無題)의 즉흥 기행시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언명된다.⁹³⁾

가자 허드슨아 나와 함께 가자
太古의 골작이 동향으로 가자
거기 무성한 숲과
출러나리는 별의 우리있어
너와 우우리 너와 입 맞추리
거기서 너는 창조의 음악을 듣고
神의 소근거리는 노래에 취하리

허드슨 江에게
징도 안식도 없는 고아
산도 골작이도 없이 고인 물이며
푸른 하늘과 별의 신부여야 할
너 자연의 어머니여
어이 이 狂奔의 시장을 지키기에만 숨이 가쁘고
쉬임 없는 피곤과 현란한 유린 아래
알 없이 죽어 흐르는 허드슨이여

강기슭도 없는 너
大뉴욕市場의 노예여
가자 젓 흐르는 골
안개 젖어 나리는

92) 위에서 보듯이, 모운숙의 시간관에서 볼 때, 고대성과 시간의 장구함 또는 그 경과는 '부정성'을 함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찬되어야 할 것이었다. 즉 그는 '西洋의 美'와 대조되는 '東洋의 美'들, '高麗의 美'들 '고전미'(古典美)에서 찾고 있었다(동양·고려의 미술 고전미에서 찾는- 그것도 뉴욕이라는 환경에서- 그의 모습은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9), 130쪽 참고). 이러한 것에 유념한다면, 앞서 보았던 인용문 중 "파리!! 파리!!"는 그의 미학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간관에서 비롯된 상찬(賞讚)이고, 또한 뉴욕에 대한, 이에 의해 대표되는 '당대 최고로 모던(modern)한 미국'에 대한 예두른 비판·비평일 수 있다.

93)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完[*2]), 154~155쪽.

인류의 보금자리 東洋으로 가자.

여기에서 우리는 모운숙에게 비친 뉴욕 맨하탄(Manhattan)의 허드슨(Hudson)강(江)의 모습과 『세계기행』에서 표현된 동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자연의 어머니”로서 “푸른 하늘과 별의 신부여야 할” 허드슨강은 “강기슭도 없”이 “집도 안식도 없는 고아[孤兒]”가 되어, “大뉴욕市場의 노예”가 되어 “취임 없는 피곤과 현란한 유린 아대” “狂奔의 시장을 지키기에만 숨이 가쁜” 채로 “고인 물”이 되어 “말 없이 죽어 흐르는” 모습으로 재현(再現)된다. 이러한 재현은 허드슨강에 바치는 만가(輓歌)인 동시에 그것은 허드슨강을 “죽어 흐르”게 만든 “大뉴욕市場”, 나아가 미국의 ‘시장주의’(市場主義)에 대한 ‘반박문(反駁文)’이다.

‘시장주의적 기계문명의 미국’에 대한 반명제(反命題, anti-thesis)로서, 나아가 인류의 최종적 귀소(歸巢)라는 합명제(合名題, synthesis)로 『세계기행』은 동양(東洋)을 제시한다. 앞의 시장주의반박문에서 동양(東洋)은 “神의 소근거리는 노래”와 “창조”가 있고, “것 흐르는” “太古의 골짜기”로, 나아가 “너와 우리 너와 입 맞후”는 “인류의 보금자리”로, 다시 말해서 “너”라는 뉴욕·미국·구미·서양이 “우우리” 동양과 만나 “인류”가 되는 “보금자리”로 표상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세계기행』이 동양을 저열(低劣)·하위화(下位化)하는 서양중심주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동양을 모든 것의 기원과 귀소의 공간으로 위치부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太古”가 ‘인류의 시점(始點)’이기는 하나 현재는 쇄신(刷新)되어야 낡은 것’으로서 상상되는 근대중심적 고대·시간관(古代·時間觀)에서가 아니라, 현재에서도 신과 인간이, 또 개별적 인간들이 만나고 통합되는 또 새로운 것이 나아지는 창조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신이 태고와 창조, 동양과 일체화되면서, ‘신을 전(前)근대·비(非)합리·비이성적인 존재로 감정(勘定)’하는 근대주의적 신관(神觀)의 쇄사슬로부터 신이 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안개가 젖어 나리는” 낭만적(romantic) 시가 동서양과 시간, 신 등에 관한 근대주의적 인식론을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대주의 부인은 ‘최고의 근대문명국가’로서의 미국 비판으로, 나아가 “東洋으로 가”야 할 존재로의 미국의 재감정(再勘定)과 위치부여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최고의 근대문명국가’라는 당대 미국상(像)은 그 문명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비판받고, 동양이라는 귀소로 돌아가야 할 존재로 표상된다. 그런데 『세계기행』의 미국인식과 표상이 단순히 서구근대문명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에만 기초한 것은 아니다.

서구근대문명주의에 대한 비판의식 이외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내지는 식민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세계기행』의 인식 저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모운숙이 미국으로 가던 중에 일시 체류한 하와이에서 썼던 『하

와이 섹시들」(1948.12.13.)『문예』3월호, 1950)은 흥미롭다. 이 시는 “산호냄새, 풀
 님 치마, 열두번 야자얌새, 언네달 이슬밭에 파초얌새, 바람, 눈감어 귀는 들우”
 등의 언어로 하와이를 자연화한다. 동시에 그 시는 “외로워,/…헛된 사랑에,/…
 긴 세월 옴지락어리는 손끝의 슬픔/…사나이는 어디때로 갔노//…/어대로 갔느
 나 이밤에 너를 버리고”를 통해 하와이를 여성화한다.⁹⁴⁾ 요컨대 「하와이 섹시들」
 은 하와이를 ‘헛된 사랑에 달아난 남성을 긴 세월 외롭게 기다리는 여성’으로 의
 인화한다. 만일 우리가 (서양)제국주의·식민주의가 남성화되고 (동양)식민지(민
 족)가 여성화되는 동양·민족주의적 성(性, gender)담론을 떠올린다면, 「하와이
 섹시들」의 하와이 의인화는 그것의 미학(美學)이 반(反)제국·식민주의적 동양·
 민족주의에, 아니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긴장된 의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노출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입기는 모운숙의 미국인식이 문명론적 관점
 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최소한 제국·식민주의적 미국에 대한 긴장에 기초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는 내면의 ‘긴장’을 「세계기행」
 에 기록하여, 미국인을 “강한 자아가 있어 어떤 때는 상대방 특히 외국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 인데가 더러 있”다고 설명한다.⁹⁵⁾ 이것은 물론 미국인의
 유아독존적(唯我獨尊的)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논의에서 보다 흥
 미로운 것은 앞의 비평이 “미국인”과 “외국사람”이라는 민족·중심별 호명(呼名)
 과 민족·중심별적 틀(frame)에 기초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운숙과 그의 「세계
 기행」이 민족·국가중심적 인식틀 위에서 미국(인)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내면의
 ‘긴장’을 가지고 있었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와 같이 「세계기행」은 서
 구문명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반(反)제국·식민주의적 동양·민족주의에 기초하
 여 ‘최상의 문명지역’으로 표상된 미국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당대의 기행기 내부에 존재하는 충돌을 유감없이 증거하는
 것이었다.

기행기의 미국표상에서 나타나는 상호 충돌과 그 균열상은 인종문제라는 지점
 에서 확연히 노정된다. 미국여행기의 인종주의적 시선은 영화감독 안철영의 『聖
 林紀行』에서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즉, 안철영은 하와이로 가는 “호화판” 여객선
 갑판에서 만난 ‘흑인병정들이 「기타」를 들고 처량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전해
 주면서, ‘흑인=처량한 신체’라는 자신의 인종주의적, 또는 인종을 중심으로 한 발
 상법을 보여준다.⁹⁶⁾ 인종문제에 민감한 시선은 하와이에 도착해서도 계속 유지된

94) 모운숙, 「하와이 섹시들」 『문예』3월호, 1950, 108~110쪽.

95) 모운숙이 영국인의 만남에서 ‘영국의 인도식민주의’ 문제를 의식한만큼, 그의 의식저변에는 탈
 (脫)식민의 민족주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영국인의 만남에 관한 일화는 모운숙, 「세계기
 행: 내가 본 세상」(9), 132쪽 참고.

96) 안철영, 「聖林紀行」, 수도문화사, 1949, 9쪽.

다. 예컨대, 김재원은 『하와이』에 限하여는 각인종에 대한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⁹⁷⁾아 “각인종이 잘융합”한다고 하면서도, 초대받아 방문한 집의 “식모와 하인 전부가 일본사람”이라고 호명하여 자신의 인종주의적 호명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시선은 미국의 인종주의적 고용관계에 대한 암시로 이어진다. 즉,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또 다른 가정의 정원을 설명하면서 “일본에서 일류의 정원사를 불러서 삼년간의 시일과 수만의 弗을 던져 만들었다”고 소개한다.⁹⁸⁾ 이것은 김재원의 인종주의적 호명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자에게 ‘고용주 백인과 피(被) 고용자 비(非)백인 황색인’이라는 하와이의 인종주의적 노동구조 또는 고용관계를 암시한다.

나아가, 하와이는 관련 기행문에서 ‘토착민족이 전멸’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은 “태평양권내도서문화를 전문으로하는 세계유일의 박물관”인 “『비숍프』 박물관”을 방문해 “백인과 어느土人과의 사이에서 난” 박물관장을 만나고, “이곳에 우리는 문화상으로 인종상으로 절멸되려는 민족을 보는 것 같”다고 감상을 전하고 있다.⁹⁹⁾ 여기에서의 하와이는 ‘토착민족 사멸의 현장’이었다. 이와 같이, 하와이는 ‘인종차별이 없기는 하지만, 토착민족이 사멸되고, 인종별 노동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표상된다.

하와이가 ‘인종차별 없는 인종융합 또는 민족사멸의 공간’으로 표상되었다면, 미국본토는 인종차별의 공간으로 독자에게 투사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재원은 『하와이』에 限하여는 각인종에 대한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⁹⁷⁾(강조, 필자)는다고 하와이를 설명했다. 이것이 미국본토 전역을 여행하였던 김재원의 진술이라면, 김재원의 독자들은 ‘하와이와 달리 미국본토에서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간취할 것이다. 이와 같이 김재원이 간접적으로 미국본토의 인종차별을 지적했다면, 다른 기행기는 인종차별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명한다. 언론인 김동성의 『미국인상기』는 “족도에게 私刑을당한 어느흑인가족들의 우울한표정”을 담은 “『아메리카』의 흑인들”이라는 표제의 사진을 실고, “미국의일대결함은 흑인차별문제이다. 아족도 흑인에대한私刑은 종적을감추지 못하고있다”고 해설하고 있다.⁹⁹⁾ 이와 같이 『미국인상기』는 본토에서의, 따라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을 기정사실화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차별이 단순히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철영의 『聖林紀行』은 은연중에 암시한다. 그 기행기는 한국인 지휘자 박원식과 피아노연주자 윤기선의 하와이 특별연주회(1948년 5월)를 소개하면서, “한미(韓美)예술친선이라는 의의보다도, 솔직히말하면 동양인을 멸시잡하는 그곳에서 … 백인앞에

97) 김재원, 『歸路(아메리카通信)』(終信) 「학풍」4월호(2권3호), 1949, 91, 94, 95쪽.

98) 김재원, 『歸路(아메리카通信)』(終信), 93쪽.

99) 김동성, 『미국인상기』, 국제문화협회, 1948, 6쪽.

[*동양인인] 젊은두청년이 등장하였다는 기록만으로도 통쾌하였다”(강조, 필자)고 기록하고 있다.¹⁰⁰⁾ 여기에서 우리는 안철영이 한미(韓美) 즉 한국(인)과 미국(인)이라는 민족·국가적 틀보다는 “동양인을 멸시잡하는” 백인과 그 대극(對極)에선 “동양인”이라는 틀로, 다시 말해 인종적 관점에서 “두청년”의 특별연주회를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양인을 멸시잡하는” 미국과 백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백인의 인종주의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聖林紀行』이 인종주의적, 또는 인종중심적 시선은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앞의 서술 속에서 미국(백인)이 흑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동양인에 대해서도 인종주의적 태도를, 나아가 인종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미국을 떠나는 방문객 모운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공된다. 즉 모운숙은 미국발(發) 유럽행 여객선 극장에서 아프리카계(系) 미국인(African American)의 빙상(氷上)무용 공연 모습을 다음과 묘사한다.¹⁰¹⁾

런던어느 극장으로 공연 간다는 흑인무대가 나와서 스킨윙즈를 추는데…나비와 꽃을 연상 하리만치 무대위에 매혹적인 선을긋는다. 그검은 얼굴에서 풍기는 화려한 즐거움도 역시 슬픈 표정에는 틀림없었으나 이것을 바라보는 청중은 그엔치한 음악과 춤에 넋을잃고 있었다. 나만 아는 슬픔 이라오/…/검둥이의 외로운 마음은/ 춤으로도 음악으로 웃다스린다오/ 아무도 모른다오 이 슬픔의 속은/… 나는 그의 춤과 노래를 들으며 이런 노래를 써왔다.

모운숙은 여기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흑인,” “검둥이”라는 인종주의적 언어로 호명하면서 문학적으로 그들을 ‘외롭고 슬픈 존재’로 표상한다. 이것은 미국행(行) 여객선에서 만난 흑인병사의 모습을 ‘치량한 신체의 흑인’으로 제시하였던 『聖林紀行』과 한 창을 이루면서 미국을 인종차별의 나라로 밀봉(密封)한다. 즉, 안철영이 미국행(行) 여객선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을 시사했다면, 동일한 메시지를 모운숙은 미국발(發) 여객선의 풍경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면서, 양자는 미국을 인종차별의 공간으로 표상한다. 인종주의적 차별의 공간으로서의 미국표상은 앞에서 보았던 일본주의적 문명·문명의 공간으로서의 미국표상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당대에 구성된 미국의 표상이 당대 한국인의 인종중심적 시각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00) 안철영, 「알 책」, 22쪽.

101) 모운숙, 『세계기행: 내가 본 세상』(3) 「문예」2월호, 1950, 133~134쪽.

4. 결론: 충돌하는 표상과 인식, 균열(龜裂)의 세계기행기

기행문에서 아세아·동양은 전통시대 종교·철학·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근대시기 제국주의 희생의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들을 내포(內包)한 장구한 역사의 실재(實在, entity)로 표상된다. 나아가 관련 기행문은 공동한 역사·문화·이식을 가진, 또 순전하게 단결해야 할 실재로서 동양·아세아상(像)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실재화된 아세아·동양은 '장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의 자천(自薦)에 반(反)하게도 끊임없이, '문명론의 관점'에서, '전(前)근대·비(非)문명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즉, 전(前)근대공간으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은 역사적으로 과거의 공간으로, 구체적으로는 '봉건적(封建的)인, 고대적(古代的)인 공간'으로 표상된다. 전(前)근대적인 아세아상(像)은 다시 한번 '고대적인 동양상(東洋像)'에 의해서도 축조된다. 즉, 관련기행기는 東洋(the Orient)의 대표적인 나라인 이집트를 오래된(old) 나라로, 나아가 고대의 나라로 환치하면서, 이집트에 의해 대표된 동양을 고대화한다. 그런데, 동양의 현재를 고대화하는 것은 두개의 시간, 즉 현재와 고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동일한 시간성의, 나아가 시간이 정지한, 변화가 없는 정체(停滞)된 동양을 표상한다. 정체된 공간으로서 표상된 동양이 자연화되는 것은 필지(必至)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아세아·동양은 세계기행기 속에서 자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원시적 공간으로, 또 문화·문명론상에서 비(非)문화적 공간으로 표상되고 구성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아세아·동양상(像)이 결코 안정된, 즉 단선적이고 또 수미일관(首尾一貫)한 것이나 정합적(整合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부에서 균열과 충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는 서양에 대(對)해서 동양·아세아를 단일한 실재로 표상한 기행문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과 충돌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앞에서 관련 기행문이 아세아·동양을 구미·서양에 대하여 공동한 역사·문화·이식을 가진, 또 순전하게 단결해야 할 실재로서 표상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단일한-최소한 구미·서양에 대해서- 실재로서의 표상은 끊임없이 의심되고, 심지어 부인되기까지 한다. 먼저 관련기행기는 구미·서양이 동양의 생활양식과 정신에 까지 체화(體化)되고 내화(內化)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한다. 나아가 동서양은 정신에서만 '혼합(混合)'된 것이 아니었다. 신체까지도 동서양이 혼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종 기행문은 자신이 서양에 대(對)해서 단일한 실재로서 표상했던 동양·아세아상(像)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었다.

서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아세아·동양의 단일한 실재성은 관련 기행문에서 의심되고 나아가 그 의미가 부인된다. 즉 관련기행기는 동양·아세아는 차치하고라도 인도라는 한 나라도 단지 '지리적 통일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표상한다. 이러한 암시는 독자로 하여금 일국차원에서의 단일성조차도 의심하도록 이끈다. 아세아·동양의 개별국 차원에서도 단일성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아세아·동양 전체로 이전된다. 예컨대 일본의 존재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문명을 가진 실재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에 균열을 낳는다. 이러한 균열과 함께, 내부적으로 단일한 실재로서의 아세아·동양상(像)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심된다. 즉 당대의 세계기행기는 상호 생면부지(生面不知)인 나라들로 구성된 “亞細亞”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아·동양은 각각 “자기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갖고, 따라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가진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의 만남조차도 ‘미안함과 창피함, 불만, 그리고 어색함과 당황스러움, 또 불만과 낙심(落心)’이, 나아가 잠깐 같은 소란이 동반(同伴)하는 곳이 아세아·동양이었다.

이러한 아세아·동양의 ‘실제’(實際)는 기행문에서 인종이라는 측면에서도 포착된다. 즉, 아세아·동양은 인종적으로도 순일(純一)한 공간이 아닌 것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속에서 앞서 구축된 동양·아세아상(像), 즉 ‘단일한 실재로서의 동양·아세아’는 의심되고 동요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공동한 이해(利害)와 단결의 필요성조차 의심되고 반박된다. 즉 관련기행기들은 제국주의나 강대국/약소국, 인종이나 지역과 같은 화제(issue)를 범(凡)세계적인 혹은 초(超)지역·인종적인 사상에 의해 대치시킨다. 인도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초(超)지역·인종적인, 보편주의적 담론은 앞서 보았던 ‘단결하여 수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한 이해’를 가진 아세아·동양이라는 인식론을 스스로 부인하고 또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당대의 아세아·동양 기행기에 내재한 균열·내파이자, 동시대의 아세아·동양관과 세계관에 내재한 자기 동요·충돌의 모습이다.

이것이 아세아·동양에 대한 표상이자 인식이라면, 당시 생산된 미국여행기는 미국을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여 세계 제일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로 표상한다. 이렇게 인본화된 미국에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인간적인’ 그것들로 제시된다. 이로써 미국은 단순한 ‘天惠의 나라’로부터 脫자연화되어, 인간화되고 또 문화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문명·문화·인간적인 미국상(像), 또는 미국문명·문화의 인간적인 의미가 미국 일국의 범위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즉 각종 기행문들은 미국(문명·문화)에 세계적·인류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의 미국은 다른 구미국가와 끊임없이 경쟁되어진다. 먼저 ‘최고도로 발달한 근대문명의 나라’로서의 미국상(像)은 바로 그 이유로 비판당하고, 오히려 프랑스가 “정신의 고향”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근대서구 비판의, 반(反)근대의, 또는 비(非)근대의 미학(美學)’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 다른 기행기는 근대주의에 입각하면서도 한국의 발전모델을 미국 이외의 구미국가에서 찾고, 구

미의 스위스와 스웨덴, 덴마크를 이상국가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구주이상국가'(歐洲理想國家) 제시는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로 표상되고 있는 미국과 경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앞의 기행기는 근대적 과학문명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최고의 근대문명국가로 표상된 미국 모델과는 긴장·경쟁관계에 있는 '제삼(第三)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동일한 '서구중심의 발전적 근대문명주의'의 기초 위에서도 두 개의 모델이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근대문명국가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의심과 비판은 동시에 세계기행문에서 나타나는 충돌의 모습, 그 일단(一端)을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의 세계기행문에서 미국(인)상은, '근대서구비판의 반(反)문명·비(非)문명에 입각한 동양주의'와 '서구중심적인 발전적 근대과학문명주의'에 기초한 의심과 비판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다. 나아가, 어떤 미국기행기는 '시장주의적 기계문명의 미국'에 대한 반명제(反命題, anti-thesis)로서, 나아가 인류의 최종적 귀소(歸巢)라는 합명제(合名題, synthesis)로 동양(東洋)을 제시한다. 서구근대문명주의에 대한 비판의식 이외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내지는 식민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인식 저변에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와 같이 당대의 기행문은 서구문명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반(反)제국·식민주의적 동양·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최상의 문명지역'으로 표상된 미국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시선을 보여주면서, 당대의 기행기 내부에 존재하는 충돌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에 대한 기행기의 표상에서 나타나는 상호 충돌과 그 균열상은 인종문제라는 지점에서 확연히 노정된다. 인종주의적 차별의 공간으로서의 미국표상은 앞에서 보았던 일본주의적 문명·문명의 공간으로서의 미국표상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당대에 구성된 미국의 표상이 당대 한국인의 인종중심적 시각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대의 기행문들이 근대문명국가로서 표상된 미국을 부인·반박하고, 나아가 한국의 발전모델로서 미국모델이 갖는 위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제삼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에게 많은 과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당대 한국인들의 세계인식을 변경시킬 과제를 부과하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한편으로는 탈식민지국가로서 자신 존립의 정당성(legitimacy)을 민족주의로 설명해야 했다. 이러한 필요성은 당시 민족대표성을 둘러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더욱 증대되었고, 또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민족주의의 고조를 낳고, 다시 이것은 '피'(血)와 '땅'(土)의 중시를 낳으면서 혈연중심적·인종주의적 민족주의와 국토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탈(脫)인종·지역적 보편이데올로기 중심의 전후 세계사의 진행은 민족주의의 혈연·지역 중심주의의 변

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은 '대처'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전후 세계사의 진행은 세계관의 변동을 요청하였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당대의 한국인들은 인종과 지역을 틀로 해서 자신을 황인종의 아시아인으로, 아시아를 이웃나라로 인식한 반면 서구를 '백인종의 먼 나라'로 이해·설명하고, 심지어 서구를 지배자로, 비서구세계를 피지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은 대한민국과 서구 연대의 인식론·이념적 기초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수립 초기의 대한민국은 대처해서, 아세아·동양과 구미·서양을 재정의하고 한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 과제에 앞에 선 대한민국의 모습이 수립 직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모습에 대한 탐구가 우리 앞에 제기된 연구과제이다.

미국의 남·북한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그 기관지를 중심으로—

고 정 휴

미국의 남·북한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그 기관지를 중심으로—

고 정 휴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1. 머리말
2. 1945년 : 미·소의 분할점령에 대한 인식
3. 1947년 : 남·북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4. 1948년 : 분단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평가
5. 맺음말

1. 머리말

1948년 남·북한 정부 수립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다룰 때, 우리는 미국이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하나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여 '한국문제'에 대하여 관심은 있지만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었던 중국(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이나 일본의 시선과는 다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미국과 더불어 한국문제 해결의 당사자였지만 미국만큼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 한국 분단의 배경이자 그 원인이 되었던 신탁통치, 38도선 설정, 한국문제의 유엔(UN) 이관은 미국의 결정이었다. 소련은 그러한 결정에 동의하거나 반대했을 뿐이다. 물론 소련은 그들의 점령지구인 북한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인식이라고 할 때, 정부 관료와 군부까지를 포함한 미국 내의 다양한 집단 가운데 어떤 집단 또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기왕의 연구들은 인식보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정부, 그 중에서도 주로 관료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해방 후 민간차원의 한국문제 인식을 다룬 논문이 더러 있지만, 그 문제를 분단정부 수립으로 좁혀 구체적으로 검

토한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¹⁾

이 논문에서는 미국 민간 차원의 인식을 다루되, 그 중에서도 뉴욕에 본부를 둔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라는 국제적 학술단체와 그 기관지—즉 IPR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던 『태평양문제(Pacific Affairs)』와 미국이사회에서 발행한 『극동개관(Far Eastern Survey)』—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태평양문제연구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단체가 설립되던 1925년부터 그들은 꾸준히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미국 내의 한국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²⁾ 미리 밝혀 둘 것은 태평양문제연구회 국제사무국이나 미국이사회가 한국문제에 대하여 어떤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 1945년 : 미·소의 분할점령에 대한 인식

1945년 8월 15일은 한국민에게 ‘해방’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당시의 일반 국민은 물론이요 해방정국에 등장한 대다수의 정치가들도 일본의 패전은 해방이요, 그것은 곧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건설로 연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그 해 12월 말에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대한 찬탁 대 반탁 논쟁도 따지고 보면 미·소의 한국문제에 대한 규정력을 당시의 정치세력들이 간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태평양문제연구회 내에서 한국문제 전문가였던 그라즈단제브(Andrew J. Grajdanzov, 1899~?)는³⁾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초래할 사태를 놀라운

1) 김점숙, 「해방 이후 미국 지식인의 한국 인식—*Far Eastern Quarterly*, *Far Eastern Survey*, *Pacific Affairs*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 (2005, 12), 149~181쪽 참조.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성립과 한국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는데, 후자의 문제는 다소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고정휴, 「식민지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문제 인식—태평양문제연구회(IPR)를 중심으로—」, 위의 책, 119~147쪽, 본고는 이 논문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3) 그라즈단제브는 제정러시아 말기 시베리아 태생으로서, 만주의 하얼빈法經大學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후 天津 소재 南開大學 경제학연구소의 연구원을 지내다가 1937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학(버클리)의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뉴욕 콜럼비아대학의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38년부터 태평양문제연구회 국제사무국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문과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을 출간했다. 태평양전쟁기 그는 한국에 관하여 가장 많은 논저를 남겼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고정휴, 「A. J. 그라즈단제브와 <현대한국>」, 『한국사연구』 126(2004, 9), 239~274쪽 참조.

정도로 정확히 예견했다. 그는 1945년 10월 10일에 발행된 『극동개관』에 「한국 분할되다(Korea Divided)」라는 짧은 논문 형식의 글(3쪽)에서, “38도선에 의한 그 나라의 우연적 분할이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an accidental division of the country along the 38 parallel may result in creation of two Koreas”라는 전망을 내놓았다.⁴⁾

그라즈단제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차이이다. <부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라즈단제브는 미·소의 점령지역인 남·북한의 면적, 인구, 경작지, 수확량, 농촌의 인구분포와 농지소유 실태, 산업생산량의 분포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차이들을 간명하게 드러냈다. 둘째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북에서 실시할 정책상의 차별이다. 그라즈단제브는 소련이 1944~45년 사이에 그들이 점령한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 대토지들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장려해 온 점을 환기시키며 북한에서도 철저한 토지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에 미국은 남한에서 전반적으로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보았다. 요컨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미·소의 상반된 정책과 맞물리면 38도선에 의한 한반도의 잠정적 분할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라즈단제브는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들어 북한에서의 전면적 토지개혁이 남한보다 더 고통스럽고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 북한에서는 일본인의 기득권이 토지개혁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의 많은 지주들은 이미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1945년 8월 이후에 서울로 도피했다. (3) 한국 지주들의 일부는 매국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북한에서의 지주의 역할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라즈단제브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신문 기사들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미군정은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이 중에는 재산 소유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아놀드(Arnold) 장군은 “일본인들은 구속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점령지구에서의 신속한 토지개혁을 더 어렵게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라즈단제브는 또한 (1) 부유하고 보수적인 지주들, (2) 다수의 범클거·부유층·구귀족, (3) 상당수의 일본인들,

4) Andrew J. Grajdanzev, “Korea Divided” *Far Eastern Survey*, 14-20(1945, 10, 10), p.281.

(4) 상당수의 실업자와 부분 고용자들, (5) 빈곤에 빠진 농민계층, (6)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존재가 남한에서의 개혁이 북한과 같이 순조로울 수 없음을 암시했다. 문제는 토지개혁이 없이 한국의 갱신(renovation)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그라즈단제브는 지적했다.

참고로 그라즈단제브는 태평양전쟁 후반기에 발표한 논설과 저술을 통하여 전후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at once)' 주장과 더불어 장차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그는 한국민이 자신의 발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정책이라고 역설했다.⁵⁾ 이는 카이로선언(1943. 12. 1) 미국 조야에서 전후 한국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던 신탁통치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의 표시였다. 이어서 그는 태평양문제연구회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간한 『현대한국(Modern Korea)』에서, 해방 후 한국은 전면적인 토지개혁과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통하여 '협동체적 국가(A Cooperative Commonwealth)'를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서 협동체적 국가라 함은 토지와 공장은 국가가 소유하되, 그 경영은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⁶⁾

이 때문에 그라즈단제브는 일본의 패전 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역할과⁷⁾ 그들의 점령지역인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한편, 미국 점령지역인 남한에서의 현상유지책이 결국 남북간 통합의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다.

3. 1947년 : 남·북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1947년은 전후 분단된 남·북이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체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수립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던 시점이었다. 통일과 분립의 양자택일은 1947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와 이를 배경으로 한 좌우합작운동의 성패에 달려 있었다. 요컨대 한국의 통일은 미·소의 타협과 국내 좌·우세력의 합작 내지 연립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5) A. J. Grajdanzev, "Korea in the Postwar World," *Foreign Affairs*, (1944, 9), pp.3~7.

6) 그라즈단제브의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는, 그의 대표적 저술인 *Modern Korea* (New York: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의 마지막 장을 참조할 것.

7) A. J. Grajdanzev, "Soviet Posi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Survey*, 14-23(1945, 11, 21), pp.934~937. 그라즈단제브는 이 글에서 전후 소련이 극동에서 긍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펴렷했다.

다.

한국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태평양문제연구회 국제사무국은 두 편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하나는 G. M. 맥쿤(George McAfee McCune, 1908~1948)의 『한국의 전후 정치적 제문제(Korea's postwar political problems)』이고, 다른 하나는 슈메이커(James H. Shoemaker)의 『한국의 전후 경제적 상황에 관한 노트(Notes on Korea's postwar Economic Position)』이다. 이 두 편의 소책자는 태평양문제연구회가 주관하는 제10차 태평양회의(Stratford-on-Avon, England, 1947, 9, 5~9, 20)에서 분과별 원탁회의의 토론자료로서 활용되었던 논문(data-paper)이었다.⁸⁾ 주지하듯이 G. M. 맥쿤은 1940년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내 최고의 한국문제 전문가로서⁹⁾ 이 논문을 쓸 때에는 캘리포니아대학 역사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슈메이커는 하와이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미군정청의 중앙경제위원회 회장(1946~1947)을 지낸 바 있다. 태평양문제연구회는 당시 한국사정에 정통한 두 학자에게 태평양회의에서 사용할 자료-논문 작성을 의뢰한 뒤 그것을 소책자로 발간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책자는 당시 한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 내 학자와 관료들에게 널리 배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G. M. 맥쿤의 『한국의 전후 정치적 제문제』(56쪽) :

이 소책자는 본문(30쪽)과 부록(22쪽), 참고문헌(4쪽)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은 제1장 역사적 배경, 제2장 1941년 이후 국제문제화 된 한국, 제3장 점령된 한국, 제4장 문제들(Problems)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협정문(1945, 12, 27)을 포함한 한국관련 미·소관계 자료 6건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에는 전후 한국관계 영문 책자와 논문(또는 논설)들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도 자료적 가치를 지닌 이 책자를 통하여 우리는 맥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와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¹⁰⁾ 그러나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제4장을 중심으로 맥쿤의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만을 살피고자 한다.

맥쿤의 한국의 정치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국민의 '정치적 미성숙

8) 제10차 태평양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 회의록인 *Problems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9), pp.17~20 참조.

9) C. Martin Wilbur, "George McAfee McCune," *Far Eastern Quarterly*, 9-2(1950, 2), pp.185~191. 이것은 1948년 11월 5일에 세상을 떠난 맥쿤의 업적을 기리는 글이다.

10) 맥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는, Jong 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Proceeding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참조.

(political immaturity)'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무력에 기초한 일본의 직접식민통치 하에서 한국인들은 서구적인 민주주의 훈련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3·1운동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지만 그 내부에 지도력과 통일성, 일관된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식민통치의 종식은 한국에서의 혼란과 무질서를 낳았다고 했다.

일본 패전 후 미·소의 군정 실시와 이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에 대한 맥쿤의 분석은 더욱 흥미롭다. 그는 한국인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는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소비에트체제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인들이 위로부터의 지령에 익숙하도록 만든 일본의 식민지배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대중은 소비에트체제가 토지개혁과 같은 혁명적 조치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이익을 줄 때 그 체제에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편 남한에서는 민주적 사회의 이른바 기본적 자유들이 별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무제한의 의견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돌연 주어졌을 때 한국인들은 성숙하고 안정된 견해를 취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개혁의 부재와 민주주의가 수반하기 마련인 불규칙성(irregularity) 때문에 남한에서 미군정이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리하여 북한에서는 '척일화되고 질서정연한 정치체제(a regimented and orderly political regime)'가 일본통치의 폐허 위에 확립되고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다소간 '혼란스럽지만 자유로운 정치체제(a chaotic but free political system)'가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점차 그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남북체제가 이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은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한 맥쿤의 견해는 회의적이다. 그에 따르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1946년 5월 8일부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1947년 5월 21일 사이의 1년 남짓한 공백기는 남북간의 재결합이 점차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였다. 시간은 통일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역행했다. 38도선은 물적, 인적, 이념적 교류를 차단하는 유효한 경계선이 되었다. 이러한 분단의 가장 심각한 양상은 서로 대비되는 정치적 이념들이 미·소 점령지역에 확고하게 이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간의 적대적인 전통이 지속되어 왔다. 미·소의 이념적 대립은 필연적으로 남·북간의 전통적인 적대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맥쿤은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와 '민주적 한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오직 '희망적 사고'에 의해서만 좌우대립의 해소와 남북간 통합이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문제의 많은 관찰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¹¹⁾ 맥쿤은 이러한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미·소간 타협과 협력에 의한 진정한 민주적 연립정부의 수립이고, 둘째는 신탁통치 기간에 그 연립정부를 유지하고 향상·발전시키는 일이다.

끝으로 맥쿤은 한국이 그들 자신의 임시정부 하에서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루든, 아니면 영구히 분립되든, 한국민과 통치권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할 정치적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다음아닌 (1) 한국민의 교육, (2) 계몽된 자유주의적 지도력, (3) 점령군의 철수와 문민적 통치질서 확립, (3) 신속한 경제재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맥쿤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통일'과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보다 근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소련이 후원하는 소비에트식 통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슈메이커의 『한국의 전후 경제적 상황에 관한 노트』(29쪽) :

이 소책자는 본문(24쪽)과 통계자료 9건을 수록한 부록(5쪽)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은 제1장 한국 경제의 특징들(국토, 국민, 기술적 능력, 타 국가들과의 관계), 제2장 한국문제(점령기의 경제적 변화들,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들), 제3장 현재의 전망, 제4장 요약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당시 한국의 복잡한 국내외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에 국한시켜 본다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3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슈메이커는 맥쿤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소련의 북한통치 방식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한에서의 정치의 차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철학'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북한에서의 러시아의 통치는 그들이 확립하고자 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요소들의 가혹한 제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한국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소비에트식 통치체제가 북한에 확고히 수립되자 보다 유화적인 정책들이 실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토지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즉 러시아가

11) 여기에서 맥쿤은 Bertram D. Sarafan의 논문("Military Government Korea," *Far Eastern Survey*, 1946, 11, 20)을 인용하고 있다.

정해 놓은 원칙들에 따라 북한의 농지들은 몰수되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배분되고, 농업생산물의 수집과 배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시스템이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슈메이커는 미국 점령지역에서의 토지정책과 관련하여, 군정이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결정들은 미래의 한국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유보한다는 전제 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일본인 소유재산(80만 에이커가 넘는 최상급 논을 포함)은 군정에 귀속되었으며, 이 재산들은 장차 한국정부로 이관되어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다. 지난 40년간 일본의 가혹한 수탈통치에 복속되고 진정한 민주정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에 민주적 아이디어와 정부조직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문명이 일반적이고, 정치적 성숙이 결여되었으며, 수많은 정당들 사이에 적대감이 팽배한 나라에서 한 세대 안에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서 슈메이커는 한국전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진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차이들의 희생물이다. 38도선의 장벽 설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리된 러시아와 미국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한국경제의 통합에 필요한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그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훈련과 행정적 경험, 정치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다.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완전한 철수는 즉각적인 내전과 심각한 경제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다.

셋째, 지난 30년간 두 배 이상에 달할 정도의 인구 팽창은 한국의 산업구조의 급속한 팽창과 일본 제국경제로의 통합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 후 제국경제는 전면적으로 파괴되었고, 그 조그마한 한 부분이었던 한국은 둘로 나뉘었다. 이 두 개의 지역에서 제국경제의 남은 '부스러기(bits and pieces)'는 사지가 절단된 유기체의 조각들과 다름없다. 이리하여 한국은 생필품을 비롯한 모든 것이 결핍된 적자경제(a deficit economy)의 나라가 되었다.

넷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에서나마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1) 질서유지를 전제로 한 정치·경제적 통일, (2) 행정가와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 (3) 일정기간 유엔 하의 신탁통치, (4) 믿음만한 연구와 통제자료들에 기초한 경제계획, (5) 차관 형태의 원조와 직접적인 구호 등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원조이다. 이것이 없다면 한국은 경제적 붕괴와 기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간, 특히 서울과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과 모스크바간의 상호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한국의 경제재건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4. 1948년 : 분단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평가

남·북에서의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태평양문제연구회 미국이사회의 기관지인 『극동개관』에는 5편의 글이 실렸다. 필자는 김용중(Yongjeung Kim, 金龍中, 1898~1975), 올리버(Robert T. Oliver, 1909~2000), 워스(Benjamin B. Weems, 1914~1988), 덜(Paul S. Dull), 그리고 G. M. 맥쿤이었다.

초기 재미한인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김용중은 1930년대 후반부터 한인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으며, 태평양전쟁기에는 한국사정사(The Korean Affairs)의 설립과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라는 부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미국 각계에 한국의 실상과 독립 의지를 알려 왔던 인물이다. 그는 독립운동기 대한인국민회 중심의 온건노선을 취했으며, 해방 후에는 국내 중도파의 좌우합작과 남북협상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¹²⁾

올리버는 오레곤주 출신으로 위스콘신대학에서 연설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펜실베니아주 버크넬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워싱턴의 민방위국 부국장으로 일하던 중 이승만과의 운명적 만남을 통하여 그의 충실한 대변인이자 로비스트로 활약했다. 전후에는 한국태평양통신사(The Korean Pacific Press)의 워싱턴지부장직을 맡아 이승만의 남한단정수립 불가피론을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선전하고 있었다.¹³⁾

워스는 식민지시대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활약했던 클라렌스 워스(Clarence N. Weems, 1875~1952)의 셋째 아들이자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만 20년을 지냈다. 태평양전쟁기에는 한국문제 전문가로서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으며, 전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귀국한 직후 『극동개관』에 글을 게재했다.

덜 박사의 인적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극동개관』의 필자 소개에 따르면, 그는 오레곤대학의 정치학·역사학과 조교수이자 극동학(Far Eastern Studies)

12) 정병준,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 12(2004, 6), 11~52쪽 참조.

13) 고정휴, 「올리버, 이승만의 충실한 대변인이자 로비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24(2008 여름), 155~166쪽.

과정의 책임자였다. 그는 한국어를 해독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에 있던 노블(Harold Noble)이 한국헌법 전문을 번역하여 덜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김용중의 글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올리버와 워스의 글은 그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덜과 맥쿤의 글은 이승만정부 출범 직후에 각각 작성되어 『극동개관』에 실렸다. 우리는 이들 글을 통하여 남·북의 정부수립 과정에 대한 미국 내의 다양한 인식과 평가를 살펴볼 수 있다. 『극동개관』의 편집진은 주제와 필자 선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게재 순으로 각 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용중의 「냉전: 한국 선거」(2쪽)¹⁴⁾ :

이 글은 유엔(UN)의 결의에 의한 남한만의 '총선거' 즉 5·10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서두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한국 정부의 성격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극동 정책의 추이와 유엔의 강대국간의 분쟁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중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했다. 첫째로 소련과 한국 내 좌익 및 온건중도세력이 반대하는 선거 강행은 남북분단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어 유혈 내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대목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의장이었던 메논 박사(Dr. K.P.S. Menon)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은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대격변의 서막일 수 있다."

둘째로 남한 내에 강력한 지위를 구축한 극우파들은 경찰과 청년단체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억압하고 있다. 실제로 온건파인 김규식이 이끄는 민족자주연맹은 극우파의 간섭 때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도 선거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free atmosphere)'가 경찰과 청년단체들에 의하여 저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셋째는 남한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이다.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데, 북한의 산업잠재력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남한은 장기적인 재정지원 없이 받기 못하면 지탱할 수 없다. 전후의 치솟는 물가와 통화발행고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남한의 경제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미군정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 결과 어떠한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그들은 당면한

14) Yongjeung Kim, "The Cold War : Korean Elections," *Far Eastern Survey*, 17-9(1948, 5, 5), pp.101~102.

경제적 재건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이번 선거는 한국에서 비민주적인 당파의 권위만을 합법화시켜 주고, 상당한 외국의 원조 없이는 스스로 존립조차 할 수 없는 정부를 탄생시키며, 한국을 동·서 냉전의 볼모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용중은 다음과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장차 남한에 들어서게 될 '극단적인 반동적 한국정부(an ultra-reactionary Korean Government)'를 지지할 것인가? 만약 미국이 이 정부를 승인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원조를 제공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수 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 미국이 이같은 경제적 지원을 유보한다면 남한에는 공산주의의 지배가 도래할 것이다. 유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들이 승인한 선거가 한국 전역에 독립과 안정을 가져오는데 실패할 경우, 이는 강대국 간의 분쟁 해결에서 유엔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올리버의 「한국 선거」(2쪽)¹⁵⁾ :

이 글에는 편집자 주가 달려 있다. 필자인 올리버가 이승만의 지지자이며, 따라서 그가 쓴 글은 남한에서 최근 실시된 선거에 대한 '하나의 견해'를 보여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앞서 소개한 김용중의 글을 다분히 의식하며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

서두에서 올리버는 이번의 5·10선거가 그간 제기되어 온 '어떤 오해들'을 일소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90퍼센트가 넘는 참여와 전반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치뤄진 선거는 한국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정과 미 국무부 그리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의 민주적 인증'에 대하여 서둘러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남한 국민들은 이승만에게 새 국회의 '과반수 통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올리버는 5·10선거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는 그 선거가 극우파의 승리였는가 하는 점이다. 투표의 분포를 보면, 이승만은 한국인 다수 중 '극우'가 아니라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1947년 9월호 『시사인물(Current Biography)』에서 요약·소개된 바 있다. "일본인과 매국노 소유 재산의 몰수와 농민에의 재분배, 같은 목적을 위한 대규모 토지의 매입, 중공업·광산·산림·공공사업·은행 등의 국유화, 모든 상공업 기업에 대한 국가 감독, 누진과

15) Robert T. Oliver, "The Korean Election," *Far Eastern Survey*, 17-11(1948, 6, 2), pp.131~132.

세…사회안전보장과 실업보험, 최저임금제 실시…여성과 아동의 고용금지, 그리고 보통선거권”이 그것이다. 이승만의 과거 기록을 보면 그가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 사람들 또한 이승만과 같은 반공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둘째는 이번 선거가 ‘분단된’ 남한 국가를 수립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한국에 합법적인 주권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러시아의 거부로 그러한 목표가 좌절되었다. 사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한반도의 분단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련이 재통일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소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새로 출범한 한국의 주권정부가 전후 38도선 분할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셋째는 한국의 새 정부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후 위험할 정도로 허약해졌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이번 선거에 의하여 더 나빠지지 않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탄생은 경제 재건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원료와 연료, 중공업에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남한 정부는 경공업과 농업·어업을 발전을 위하여 미국의 상당한 원조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이제 건설의 출발점에 서 있다. 남한 정부는 국채가 없고 일본인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재통일의 목표는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로서의 한국은 풍부한 자원들과 훌륭한 미래가 보장된 경제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새 정부가 공산주의자 또는 소비에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민주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외면하고 그 정부의 전복을 용인한다면 그 몫에 대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다. 현존하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단호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홀로 버틸 수 없다. 미국조차도 동맹국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미국이 유엔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만큼 러시아에게 한국을 그냥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올리버는 ‘충성의 문제(Question of Loyalty)’를 제기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들 자신의 합법적인 선거의 의하여 탄생한 정부와 소비에트지배의 ‘괴뢰정부’ 중 어디에 충성을 바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올리버는 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최대한 수행할 의지를 반복·천명한 이승만정부를 미국이 확고히 지지하고 후원한다면, 그리하여 남한에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다면, 한국민들은 당연히 남한 정부를 선택할 것임을 암시했다. 요컨대 이

승만이 이끄는 신생정부의 운명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올리버의 판단이었다.

(3) 워스의 「한국 선거의 배경」(6쪽)¹⁶⁾ :

논문 형식을 취한 이 글은 도입부와 다섯 장—즉 [남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력, 신탁통치 논쟁, [미군정의] 남한 통치, 유엔과 한국, 독립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태생의 한국전문가로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정부기관에서 한국문제를 담당했던 워스의 전후 한국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 나름의 평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5·10선거에 대한 워스의 평가를 보면, 남한의 8백만 등록유권자 중 약 90 퍼센트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유권자들은 대표성이 없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지도자와 그 동조자들이 선거에 반대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조직화된 중도온건파들과 일부 저명한 우익 지도자들이 선거에 불참한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의 이력을 서술하는 장에서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이 주로 비교·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은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은 3·1운동 후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며 한국 독립을 위한 불굴의 투사임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그는 다양한 개성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한데 끌어 모으는 매력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해방 후 귀국한 이승만은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공산주의 협력자들에 대한 과감한 '논전(battle of words)'을 벌임으로써 최고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그의 지지자들을 가문대는 종교인들과 사업가·전문인 등 진지한 반(反)공산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지주들과 기회주의적 정상배들, 친일파로 낙인찍힌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극우정권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방정국에서 온건파의 정신적 지도자인 김규식은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 학자형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병으로 인한 신경질적인 경향과 더불어 역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에 대한 그의 일관되고 진지한 관심은 높이 평가되어야만 한다.

김구는 1932년의 '상하이 사건'(the Shanghai Incident, 운봉길의거를 말함)으로

16) Benjamin Weems, "Behind the Korean Election," *Far Eastern Survey*, 17-12(1948, 6, 29), pp.142~147.

전시임정의 주석이 되었다. 그는 학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력의 자질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그의 나이와 오랜 독립운동과의 관련으로 그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환국 후 그는 임정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유일정부라는 주장을 견지함으로써 미군정과 충돌했다. 모스크바3상회의 이후에는 반탁운동에 앞장섰는데, 이는 그의 공공연한 통일에 대한 관심과는 모순된 것이었다. 김구가 5·10 선거에 불참했던 것도 통일의 명분보다는 정적에 대한 반감과 같은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고 보았다.

한편, 워스는 미군정이 처음부터 불구적 상황에 처했다고 보았다. 그것은 워싱턴의 적절한 계획과 지도의 결여, 정치적 '노하우(know-how)'나 한국인의 심리 및 정치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지닌 자문관의 부재 때문이었다. 그 결과 미군정 당국의 어떤 초기 조처들은 한국인의 현저한 친미감정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군정은 책임있는 지위에 오를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최고의 교육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 중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고르기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이다. '남한임시정부'에서 고위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열렬한 우익으로서 이승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토지개혁이라든가 적극적인 친일파의 처단, 경찰세력의 재교육 같은 주요 정책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어떤 정파도 미군정 통치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한국인 정부기구들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약한(soft)' 미국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다. 온건파들은 모두 미국의 통치정책이 우유부단하며 부당하게 친우익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김구 일파는 이미 지적했듯이 미군정에 대하여 줄곧 위협조적이었다.

워스는 결론 부분에서, 한국의 독립이나 진정한 민주적인 한국정부에 대한 전망에 있어 낙관적 견해를 갖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다. 먼저 이제 곧 임시 '국민(national)정부'를 구성하게 될 우익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근본적인 민주개혁들을 도입하고 전국에 걸친 애국한인들의 효율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진지한 반대세력들이, 정부 안에서건 바깥에서건,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sition)'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활력을 키워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인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세계적 차원에서 미·소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대외적으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워

스의 판단이었다.

(4) 덜의 「남한 헌법」(3쪽)¹⁷⁾ :

이 글은 서두에서 한국 헌법은 민주주의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이 35년간 지배를 받았던 일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덜은 그 헌법에서 '예외적인(unusal)' 대통령의 권한들을 명기한 조항들에 주목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책임내각제에 근거한 민주적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헌법 제57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덜은 이 조항이 구바이마르헌법의 제48조와 유사하며, 허틀러는 그것을 이용하여 바이마르공화국의 하원을 기만했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제57조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가의 여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적 절차에 참음성이 없고 의회 결정의 지혜를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덜은 국무원에서 한국 대통령이 지니는 예외적 권한에 주목했다. 국무원 규정(제68조-72조)에는 대통령제와 책임내각제의 기묘한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제68조에 따르면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72조에 열거되어 있다. 예컨대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결산안 및 기타 재정안들, 임시국회 소집안, 계엄안, 군사사항, 대법원 판사 임면권 및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새 공화국의 정부는 일견 입법부 우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강력한 대통령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한국의 헌법은 강력한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정부로 진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덜은 국제적인 상황이 이 헌법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다면, 미래의 정치적 경험이 그 본질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했다.

17) Paul S. Dull, "South Korean Constitution," *Far Eastern Survey*, 17-17(1948, 9, 8), pp.205-207.

(5) G. M. 맥쿤의 「한국사정」(6쪽)¹⁸⁾ :

논문이나 다름이 없는 이 글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대목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남·북 분단정부의 출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맥쿤의 해석이다. 일본의 패전 3주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북한의 평양에도 곧 '조선인민공화국'이 들어설 것이다. 비록 그들 나라는 둘로 나뉘어 내전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가 재건에 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 최근의 사태는 한국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the opening of a new era)'을 가져왔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확정된 사실이며, 남과 북 두 체제의 성격도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남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유기업' 민주주의 국가라면, 북한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점령 초기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그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되기를 희망했고, 따라서 어떠한 타협도 성사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남한 정부에 대한 맥쿤의 설명이다. 이승만정부의 초대 내각은 대부분 경험이 없는 정치적 지명자들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상공장관 임영신은 전적으로 사회사업과 교육에 종사해 오던 인물이며, 재무장관 김도연은 아메리칸대학의 경제학박사이지만 실무경험이 없다. 농림장관 조봉암은 전에 좌익주의자로서 농지 개혁에 호의적이지만 농업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체신장관 윤석구, 사회부장관 전진한, 내무장관 윤치영은 정당정치가이다. 내각원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인 이범석과 외무장관인 장택상이다. 이범석은 강력한 지도자이자 유능한 행정가이지만 군사적 질서와 훈련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경찰국가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미군정 하에서 수도경찰청장을 지낸 장택상은 그의 경찰의 야만적이고 테러적인 방식으로 자유주의자들과 좌익으로부터 종종 거센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다. 교통장관 민희도도 반(反)노동조합정책과 경찰국가적인 통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내각의 구성원은 또 전원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벌써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오래된 정치적 사회적 분리를 영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원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에도 유명하다. 이는 경제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남북간 교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18) George M. MacCune, "The Korean Situation," *Far Eastern Survey*, 17-17(1948, 9, 8), pp.197~202.

러한 것들이 남한 정부의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갖기가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와 한국의 장래에 대한 맥쿤의 평가이다. 남·북에서 탄생한 두 정권은 국내 통치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자치적이며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과는 별도로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이 현재 남한보다 앞서지만 남한이 군사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장차 남한이 북한을 추월할 수도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남북이 분리되어 있는 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의 상당한 원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한 체제와 정권 유지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현재까지 외국의 원조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이미 경제적인 자급자족운동에 착수했다. 이 계획은 현재 꽤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외부 지원에 의한 인위적인 경제보다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어떠한 한반도에서의 장래 사태발전은 두 개의 체제가 서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더욱 깊은 불신과 적대적인 대립관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 비추어볼 때 전자의 길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현 국제경제와 두 체제의 상반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후자의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공공연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5. 맺음말

1948년 남·북 분단정부 수립에 대한 미국 내 한국전문가 또는 일반 학자들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승만의 충실한 대변인이었던 올리버를 제외하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미주한인사회의 온건한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김용중의 경우 총선거의 실시 자체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민주적인 당파의 권위만을 합법화시켜 주고, 상당한 외국의 원조 없이는 스스로 존립조차 할 수 없는 정부를 탄생시키며, 한국을 동서 냉전의 불모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워스는 남한의 8백만 등록유권자 중 약 90퍼센트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좌익과 중도파 그리고 보수 우익의 일부 지도자들이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대표성이 없는 후보자들

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5·10선거 결과 출범하게 된 이승만정부와 그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이었다. 올리버의 경우 한국민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승만은 '극우'가 아니라 '중양(또는 중간)'에 위치한다고 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승만과 그의 지지자들을 '극우파'로 단정했다. 당대 미국 내의 대표적인 한국전문가였던 G. M. 맥쿤은, 이승만의 초대 각료들이 전원 '남한' 출신으로서 실무경험이 없고 경찰국가 지향성이 강하며 대북 강경론자들이라는 점들을 들어 남한 정부의 장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오레곤대학의 정치학·역사학과 교수였던 덜 박사는 남한헌법을 검토한 후 대통령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강력한 권한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향후 미국의 상당한 원조가 없다면 남한 정부는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로 남북분단의 원인 분석에 있어 외인론적(外因論的) 해석이 강했다. 시베리아태생으로서 극동문제 특히 한국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라즈단제브는, 1945년 10월 10일에 발표한 논문에서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두 개의 한국'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예견했다. 맥쿤은 제10차 태평양회의(1947)에 제출한 자료-논문에서, 38도선이 물적·인적·이념적 교류를 차단하는 유효한 경계선이 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미·소 점령지역에 서로 대비되는 정치적 이념들이 '이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소의 이념적 대립이 필연적으로 남·북간의 전통적 적대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와이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슈메이커도 제10차 태평양회의에 제출한 자료-논문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철학(또는 정치적 차이들)의 희생물이라고 단정하고 워싱턴과 모스크바간의 상호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한국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넷째로 남·북 분단정부 수립이 '내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다. 맥쿤은 한반도에서의 장래 사태발전은 두 개의 체제가 서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더욱 깊은 불신과 적대적인 대립관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 비추어볼 때 전자의 길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지만, 현 국제정세와 두 체제의 상반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후자의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공공연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인용한 논문(1947)에서도, 한국문제의 많은 관찰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그라즈단제브를 제외하고는 소련과 북한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맥클은 1947년의 논문에서 북한에는 '획일화되고 질서정연한 정치체제(a regimented and orderly political regime)'가, 남한에서는 다소간 '혼란스럽지만 자유로운 정치체제(a chaotic but free political system)'가 각각 그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슈메이커는 북한에서의 러시아의 통치는 그들이 확립하고자 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요소들의 가혹한 제거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이리하여 북한에는 토지개혁과 같은 소비에트식 통제경제가 성립되고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 다 한국민의 '정치적 미성숙'을 지적하며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해방 후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부표: 그라즈단제브가 제시한 남·북간 통계자료 요약>

	미국 점령지역(남한)	러시아 점령지역(북한)	비 고
면적	36,761sq. miles (43.1%)	48,487 sq. miles (56.9%)	경기도는 미국, 황해도는 소련 점령지구로 계산
인구(1939년)	14,485,000(63.5%)	8,314,000(36.5%)	현재는 6:4 추정
경작지	2,354,100町 (논: 1,254,500, 밭: 1,099,600)	2,628,800町 (논: 447,900 밭: 2,180,900)	남·북간 총 경작지는 비슷하지만, 논/밭의 비중 차이 강조
수확량	30,523,000石 (쌀: 17,455,000 보리/밀: 9,409,000 콩/잡곡: 3,659,000)	18,390,000石 (쌀: 6,682,000 보리/밀: 2,350,000 콩/잡곡: 9,358,000)	남·북간 총수확량과 품종별 차이 지적
농촌 인구분포 (1938년)	자작농 : 14.2% 자소작농: 24.6 소작농 : 55.4 회전민 : 0.8 노동자 : 5.0	자작농 : 25.8% 자소작농: 22.4 소작농 : 44.9 회전민 : 5.4 노동자 : 1.5	남·북간 자작농/소작농/임노동자의 비율 차이 지적
농지소유 분포 (1934~36년)	부농(5정보 이상): 0.3% 중농(3~4.9정보) : 1.3 소농(1~2.9정보) : 21.0 영세농(0~0.9정보): 77.4	부농 : 3.5% 중농 : 11.6 소농 : 50.0 영세농 : 34.9	남한에는 영세농, 북한에는 소농 이상 많음을 지적
쌀 수확량 분포	지주(가족/ 개인 단위) : 66.3/ 11.4石 자작농 : 5.4/ 1.0 자소작농 : 6.6/ 1.2 소작농 : 2.2/ 0.4		잉여생산물이 지주에의 집중을 지적
산업생산 분포 (1937년)	총생산 478.7(백만엔) (방직공업 : 88% 제재공업 : 68 인쇄공업 : 90 식료품공업 : 67 기계공업 : 71 기타공업 : 77 금속공업 : 15 요업 : 38 화학공업 : 16 가스전기공업: 16	총생산액 480.6(백만엔) (방직공업 : 12% 제재공업 : 32 인쇄공업 : 10 식료품공업 : 33 기계공업 : 29 기타공업 : 23 금속공업 : 85 요업 : 62 화학공업 : 84 가스전기공업: 84	1) 부문별 공업은 남북간 백분율 표시 2) 남한의 소비공업, 북한의 중공업 발달을 지적

소련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도 「프라우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 광 서

소련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도 『프라우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 광 서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1. 머리말
2. 분단 경로와 소련
3. 5.10선거와 남한정부의 수립
4. 북한정부의 수립
5. 정부 수립 직후 대남 인식과 소련군 철수
6. 맺음말

1.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1948년 9월 북한 정부 수립은 북한과 소련 지도부의 매우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방 후 북한지도부는 대내 정책 집행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작성 과정에서는 소련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남한 정부 수립과정에서도 양자는 공동 협력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한반도 내 통일국가 수립 문제는 미·소 정부간 논의의 사안이었기에 여기에 북한지도부를 비롯한 조선인들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소련의 인식은 북한지도부가 지닌 견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분단국가 수립 이후 양자의 인식은 그 강조점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분단 자체가 통일을 향한 출발점으로 여겼다면, 소련은 이를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남북한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분단의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 그간 새로운 사료 발굴 덕분에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검토하는 작업은 한반도 분단국가 수립의 당사자로서 소련의 정책과 입장을 이해하는데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축적될 때 한반도 분단상은 온전한 모습으로 다갈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시기 소련의 언론 매체에 보도된 관련 기사들은 소련의 인식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1948년에 보도된 『프라우다 Правда』의 한반도 관련 기사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소련의 인식과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 범주를 1948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소논문이라는 지면상의 제약뿐 아니라 이전 과정을 생략해도 내용상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중적 신문 기사에 의존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적, 논리적 한계는 소련 당 문서와 기타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2) 『프라우다』의 한국 관련 기사

『프라우다』는 소련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읽을 수 있는 대중매체였다. ‘단일화된 정책 결정 체계를 지닌 현실사회주의의 특성상 언론 매체의 보도는 당과 국가의 공식 입장을 띠게 마련이다. 일단 어떠한 정책과 방침이 채택되면 공식 보도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로를 취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프라우다』의 한반도 관련 기사는 이에 대한 소련 정부의 정책을 거의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신문이 지니는 공식적, 대중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배경과 의도,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48년 『프라우다』에는 국제면을 중심으로 14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한반도 관련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1946년 40여 건, 1947년 70여건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 기사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유엔의 남한 단선·단정 결정과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 북한 헌법안 작성, 남북연석회의, 남한 단독선거, 북한 정부 수립 과정, 소련군 철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일반 신문의 보도처럼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크기와 횟수가 조절되는 것은

1) 『프라우다』는 1812년 레닌에 의해 창간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자 소련 시기 최대의 대중일간지였다. 『소비에트대백과사전』은 “『프라우다』는 근로대중의 집단적 선전자, 선전자,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인민적 신문, 가장 권위 있는 현대 신문으로 변모되었다”고 쓰고 있다.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http://slovari.yandex.ru/dict/bse/article/00062/11400.htm>
(검색일: 2008.3.12)

마찬가지였다.

해방 후 『프라우다』의 한반도 관련 기사의 보도 특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기사의 대부분은 소련의 국영통신사인 『타스 ТАСС』의 보도를 그대로 내보냈다.²⁾ 당시 소련의 해외 관련 보도는 거의 대부분 타스에 의존했고, 『타스』 역시 『프라우다』와 마찬가지로 소련공산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프라우다』와 비교하여 논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2. 기사의 대다수는 사실 보도 기사로 이루어졌다. 다만 소비에트 언론의 특성은 사실보도에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해설 기능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3. 필요할 경우 해설기사나 기명 기사를 통해 소련의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들 기사는 소련의 견해와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사실 보도 기사에 비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4. 소련의 인식과 입장은 보도 내용에서 대부분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측 인사들의 발언과 정당과 통일전선이 발표한 주요 결정문·성명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5. 정책 결정 내용을 제외하고 그 배경과 과정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 등은 보통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분단 경로와 소련

소련 극동 지역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인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소련의 중요한 전략적 대상이 되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비록 유럽지역과 같은 비중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위협의 대상이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자국에 '우호적인' 친소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이었다.

2) 타스(ТАСС) 통신 평양 지국(상주대표부) 개설은 1948년 4월 19일 자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결정으로 허가되었다. Политбюро ЦК РКП(б)-ВКП(б). Повестки дня заседаний 1919-1952. Каталог/러시아공산당(불)-전연방공산당(불) 중앙위원회 정치국. 의사일정. 카탈로그/Т. 3(1940-1952). М., 2001. с. 510. 이 결정이 있기 전 4월 10일 슈티코프는 남조선 관련 정보를 외국통신사에 의존하고, 북조선의 상황은 부정기적이며 체계 조망되지 못한 다는 점을 타스 평양 지국의 개설을 요청한 바 있다. 「슈티코프가 몰로토프와 주다노프에게」. РГАСПИ. ф. 17. оп. 169. д. 1510. л. 122.

1947년 9월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에서 소련대표단은 미소양군의 동시 철거와 조선문제의 해결을 조선인민 자신에게 맡기자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의를 하였다. 이 제의는 동년 10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되풀이 되었다. 소련은 미국이 이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서 미국의 정책이 조선의 분단 및 남조선을 미 독점자본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는 지향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소련의 제의를 거부한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고, 유엔총회는 11월 14일 남북한 자유선거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을 가결하였다.

1948년 1월 8일 8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 시기 소련이 본 남한 사회는 폭력과 탄압이 점철된 혼란 그 자체였다. 『프라우다』는 미국 공보 『한국의 목소리』를 인용하여 “남조선은 1년 반 동안 극우분자들의 테러에 시달리고 있고, 인민은 폭력 앞에 항시적인 공포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³⁾ 유엔한국위원단의 도착과 남한 내 활동은 우익 주도의 분단 정부 수립 시도로서 소련의 큰 주목을 받았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유엔한국위원회 결성에 대해 소련이 반대한 것은 그것이 조선인민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고 민족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간주하였다.⁴⁾

유엔한국위원단의 방한에 대한 남한 내 반대투쟁은 소련의 효과적인 선전 소재였다. 『프라우다』는 유엔한국위원회의 도착에 맞추어 서울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였고 동시에 미군과 남한 경찰은 체포로 응대하여 “며칠 동안 서울에서 400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다.⁵⁾ 2월 10일 자 기사는 UPI 보도를 인용하여 유엔한국위원회의 도착에 반대한 파업과 사보타지를 진압하는 과정에 2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50명이 체포되었다고 썼다.⁶⁾ 그 이틀 날에는 AP통신 보도를 근거로 유엔위원회에 반대한 시위에서 민간인 28명과 경찰 11명이 사망하였다고 전했다.⁷⁾ 이와 같은 반대투쟁 보도는 소련 사회에 남한 내 부정적 인식을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분단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2월 20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북민전) 중앙위원회는 <전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프라우다』가 전문을 게재한 호소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 결정이 적시에 시행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이미 통일민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1947

3) 「남조선에서 파시스트 분자들의 테러」, 1월 5일 자.

4) 「유엔위원회의 도착과 관련한 남조선 내 반동의 활동」, 1월 18일 자.

5) 위의 글.

6) 「남조선의 상황」, 2월 10일 자.

7)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유엔위원회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2월 11일 자. 3월 2일 자 보도는 “이틀간의 소요로 14명이 사망하였다”고 썼다. 「남조선 상황」.

년 9월 28일 소련이 미소공위회의에서 1948년 초까지 미소양군의 조선으로부터의 동시 철거와 조선정부 수립 문제는 조선민족의 손에 맡기자고 제안한 것은 옳바르고 조선의 민족적 이익에 부합한 것이다. 이튿날, 김구, 김성수 등과 같은 반역자들은 애국주의의 거짓 가면으로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인민의 이익을 외세 제국주의에 팔고 있다.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전조선 인민회의 선거를 지지해야 한다.⁸⁾ 이 내용은 당시 소련의 정세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2월 28일 유엔 소총회는 남한에서 선거 실시와 분단 정부 창설을 재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9일 열린 북민전 제25차 회의에서 김일성의 연설 <남조선 반동적 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는 『프라우다』의 전면적인 주목을 받았다. 김일성은 조선 분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 지배집단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인민은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한 전조선 최고입법기관 선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발언 말미에 조선의 분단과 노예화에 대한 음모를 저지하고 남조선 선거 참여를 거부할 것을 조선 인민에 호소하였다.⁹⁾ 이 보도는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분단 책임과 지역비례에 의한 총선, 단선 반대 등의 인식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었다.

『프라우다』는 남한 중간파 및 일부 우익 정당들의 단독선거 반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신문은 남로당, 근로인민당, 민주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사회민주당, 남조선청우당 등 남한의 좌우 정당들이 유엔한국위원단 활동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는 성명을 담은 1월 10일자 『독립신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들 정당은 남한 단독선거 실시와 남한 정부 창설에 대한 위원회의 의도에 항의하였고, 미소간의 협력과 동의 없이 한국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유엔한국위원회의 활동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⁰⁾ 2월말에도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민주독립당, 민중동맹, 신진당 등 남한 중간파 정당과 일부 우익정당들의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소련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소련 정부의 미소양군 동시 철거 제의가 조선인민에 대한 진정한 경의의 표시라고 칭송하면서 군대 철수가 결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인 협

8)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의 호소」, 2월 29일 자.

9) 「조선인민은 조선 분단에 관한 회기간위원회(會期間委員會, 유엔소총회의 러시아식 표기 - 필자)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 북민전 중앙위원회 회의」, 3월 17일 자.

10) 「남조선 사회는 조선에 대한 '유엔임시위원회' 사업에 저항하고 있다」, 2월 1일 자. 「프라우다」는 미군정은 이 성명을 실은 「독립신보」를 몰수했으나 이튿날(1월 11일) 이 신문은 한국에서 외국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명을 다시금 게재했다고 하였다.

력을 계속 해주길 요청하였다.¹¹⁾ 소련과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남한 지역 정당·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은 공산측 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녔기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3월 중순 『프라우다』는 남한 단독 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기명 기사를 통해 소련의 대한반도 인식을 소상히 밝혔다. V. 스몰렌스키(Смоленский)¹²⁾는 자신의 장문의 글을 주로 미국의 의도를 비난하는데 할애하였다. 그에 따르면, 1947년 11월 유엔 총회 결정은 미국이 조선문제 해결에서 소련의 참여를 배제하고 향후 남한에 괴뢰정부의 수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며, 나아가 1948년 2월 유엔소총회 결의는 미국의 극동 팽창 기지로 남한을 전변시키려는 일찍이 준비된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¹³⁾

스몰렌스키는 계속해서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국가 대표들이 위원회에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소총회에서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즉, 미국의 결의안은 찬성 31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채택되었는데, "런던라디오가 보도한 것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 많큼 많은 수의 대표들은 '많은 이들이 채택되는 결정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쓰고 있다.¹⁴⁾ 또한 유엔한국위원회의 의장이 남한단독정부 창설의 유일한 지지자는 미국의 꼭두각시 이승만과 대지주 및 기업가를 대표하는 '민주당'이라고 유엔소총회에서 말했다는 것을 덧붙였다.

한편 유엔소총회 결정에 대한 북한 내 반대 목소리는 신문의 주요 기사로 취급되었다. 북한 전역에서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반대한 대중 항의 집회의 파고가 휩쓸었는데, 구체적으로 3월 14일 자 북민전 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평양(30만), 신의주(10만), 원산(12만), 함흥(9만 5천명) 등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평양 집회에서는 "이 결정이 이승만, 김성수, 그리고 우리 조국의 민족적 이익을 팔아먹은 반역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김두봉의 연설이 소개되었다.¹⁵⁾ 『프라우다』는 또한 조선인민은 도처에서 조선을 분단하려는 미

11) 「소련정부에 대한 남조선 정당들의 호소」, 3월 18일 자.

12) 소련 외무성 한반도 관련 부서인 제2극동부 서기관 V. I. 제투호프의 필명이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외무성의 주요 정책 문건 작성자로서 미소공동위원회, 1954년 제네바 외상회의, 유엔 총회 회의에 참여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최고 전문가의 일원이었다.

13) V. 스몰렌스키 「조선분단을 실행에 옮기는 미국의 계획」, 3월 18일 자. 3월 8일 자는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적들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핑계 삼아 미군에 의한 남한 점령의 지속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인민이 민주헌법안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14) V. 스몰렌스키 「조선분단을 실행에 옮기는 미국의 계획」, 3월 18일 자. 스몰렌스키는 남조선 경찰은 3-5개월 간 누구든지 구금할 수 있어 자유선거를 침해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인민이 외국 군대 철수와 자결된 부여를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이유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의 시도에 단호히 나서고 있고, 자신의 내정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련의 입장을 표시하였다.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선전적 차원은 물론이고 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프라우다』가 연석회의 기간 동안 아예 「북남대표자 연석회의」라는 고정된 제목을 두고 거의 매일 장문에 가까운 보도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면 소련이 이 회의에 쏟은 열의와 의지를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처음 『프라우다』는 남쪽의 많은 정당사회단체들이 이미 평양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남노당 중앙위원회는 이 결정을 승인하고, 회의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며, 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남로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알리면서 회의의 성공을 기대하였다.¹⁵⁾

남북연석회의는 4월 19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개막되었다. 소련측이 우선 관심을 보인 것은 20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100 여명으로 이루어진 남측 대표단의 동향이었다. 신문은 먼저 남측 대표단이 북한의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내용과 북한의 발전 상황에 대한 인터뷰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남한 언어학자 이극로가 연석회의를 “일제로부터 조선의 해방 이후 조선인민을 위한 첫노출”로 평가한 것을 강조하였다.¹⁷⁾ 또한 일부 남측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하여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측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달하였고, 이승만의 지지자들만이 남조선 단독선거 실시를 찬동한다는 남측 대표자들의 성명을 덧붙였다.

첫째 날 회의는 남북 각각 14명으로 회의 의장단을 선출하였고, ‘조선의 정세에 대하여’, ‘남조선 선거 실시 및 단독정부 창설 반대 조치에 대하여’ 등 두 가지 의사일정을 채택하였다. 남쪽의 대표로는 박헌영, 허헌(남로당), 백남운(근로인민당), 김원봉(인민공화당), 여은홍(사회민주당), 김구, 조소앙(한독당) 등이, 북쪽의 대표로는 김일성, 김두봉(북로당), 최용건(민주당), 김달현(청우당) 등이 소개되었다.¹⁸⁾ 둘째 날 회의에는 김일성, 백남운, 박헌영의 연설이 있었고, 21일 김규식, 홍명희, 원세훈 등이 남쪽에서 도착했음을 알렸다.¹⁹⁾

22일 회의에서는 홍기철(북조선문예총), 김오상(남조선근로인민당), 허성택(전평), 김구, 홍명희 등이 나선 남북한 정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프라우다』는 김구가 조선을 분단시키려는 미 당국의 시도에 대해 투쟁을 호소했다고 하면서 그의 연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순간을 보내고

15) 「조선을 분단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반대한 조선인민」, 3월 21일 자.

16) 「조선인민은 남조선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4월 16일 자.

17) 「북남대표자 연석회의」, 4월 21일 자.

18) 「북남대표자 연석회의」, 4월 22일 자.

19) 「북남대표자 연석회의」, 4월 23일 자.

있다. 남한에서 미 당국은 우리 민족을 분할하고 분단정부를 창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이 시도를 막는 것이다. ... 남조선 선거에 반대한 투쟁은 우리 민족의 분단에 반대한 투쟁이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 단독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²⁰⁾ 김구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다른 토론자들과 비슷한 분량으로 소개하였다.

23일 연석회의 마지막 날에는 남로당 위원장 허헌이 단독선거와 분단정부 창설에 반대한 대책 보고를 하였다. 김두봉이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북반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프라우다』는 조선인 스스로에 의해 국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²¹⁾

이 날 회의에는 또한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 ‘소미 양국정부에 보내는 요청서’ 등이 채택되었다. 신문은 28일과 29일 자에 걸쳐 이들 문건의 전문을 실었다.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는 정당사회단체들이 힘을 결집하여 전인민적 보이콧을 통해 단독선거 저지에 자신의 모든 활동을 맞추고,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즉각 철수에 대한 소련의 제의를 수용하며 조선인민에게 통일독립민주국가의 창설 권리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야한다는 내용이였다.²²⁾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은 북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개혁의 성과가 살아 있는 반면, 남조선은 미 점령군에 의해 테러적인 식민지 경찰체제가 부활하였다. 유엔조선위원단의 진정한 임무는 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주의자적 활동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요지였다.²³⁾ ‘소미 양국정부에 보내는 요청서’는 조선인민은 남한단독선거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전력을 다해 그것을 저지할 것이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추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소정부에 군대를 동시 철수하고 외세의 간섭 없이 조선전민족민주정부의 총선거를 실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²⁴⁾ 위 3가지 문건 게재는 소련이 조선인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프라우다』는 4월 25일 남북연석회의 종료를 기념하여 평양에서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군중집회 소식을 전했다. 이 집회에서 최용건, 박헌영, 이영, 홍명희 등이 연설하였고, 이들은 남한 단독선거와 분단정부 수립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연석회의 결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에는 김구와

20) 『북남대표자 연석회의』, 4월 24일 자.

21) 『북남대표자 연석회의 종결회의』, 4월 25일 자.

22) 『조선 정치정세에 관한 북남대표자연석회의 결정서』.

23) 『북남정당사회단체 지도자회의 북남대표자 연석회의의 전조선동포에게 격함』, 4월 29일 자.

24) 『소미 정부에 대한 북남조선 대표자연석회의의 요청서』, 4월 28일 자.

김규식도 참여하였다.²⁵⁾

4월 30일 개최된 남북한 주요 정당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프라우다』는 ①외국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할 것 ②내전 불허용 ③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이를 통해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하고 헌법을 제정,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④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등으로 요약되는 합의문 전체를 게재하였다.²⁶⁾ 신문은 이 공동성명서에는 북쪽 15개, 남쪽 26개 정당사회단체가 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프라우다』는 김구와 김규식의 동향을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으나 이 두 인물이 지니는 영향력과 위상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신문은 이례적으로 이 두 인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4월 25일 김일성이 주최한 남북대표들을 환대하는 자리에서 김규식은 남조선단선에 반대하며 남조선 선거 실시에 대한 유엔소총회 결정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미소양군동시철거와 조선정부 수립 문제를 조선인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조선인 가운데 아무도 그런 제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신문은 “북조선에는 자체 발전을 위한 기초가 세워졌다. 남조선에는 기업이 멈춰있고 여기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남조선은 파괴로 치달고 있다. 북조선은 꽃처럼 번성하고 있다”는 김규식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²⁷⁾

김구와 관련한 독립 기사는 5월 4일 평양 출발에 앞선 그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때 그가 한 말은 북조선의 성취는 조선인 스스로 난관과의 싸움을 거쳐 자기 헌신적 노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북조선 주민은 진보의 길을 가고 있고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군정은 광범위하게 조선 내정에 간섭하고 있고, 남조선에는 선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²⁸⁾ 그때까지 반소·반공 노선을 굳히지 않았던 인사의 그와 같은 태도는 소련과 북한 지도부 모두에게 무척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소련이 우익과 중간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은 이들이 남한 단정에 반대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 수립된 북한 정부의 ‘정통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²⁹⁾

25) 『평양에서의 대중 집회』, 4월 27일자.

26) 『북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 5월 4일자.

27) 『김규식의 성명』 4월 30일자.

28) 『김구의 성명』 5월 9일자.

29) 김구와 김규식은 이후로도 반반선단정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것이 직접 북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산측으로서는 그들이 남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만

그런데 소련은 과연 남북연석회의를 통해 남한 단선을 저지하고 분단이 저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까? 알려진 대로 소련은 미국의 분단 정부 창설 움직임은 오래전에 파악하고 있었다.³⁰⁾ 공산측은 미국측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는 한 분단을 막을 수단과 방법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석회의 개최에는 반단선·반단정의 기치 하에 중간파와 우익세력들을 끌어들이어 남북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과시하고 향후 수립될 북한 정부에 '정통성'을 갖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 분단에 반대하는 기류가 압도적이었던 상황에서 공산측이 남북연석회의를 비롯한 반단선·단정 투쟁을 통해 분단을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은 분명했다. 물론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다음 수순으로 북쪽에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었다.

3. 5.10선거와 남한정부의 수립

소련은 남한 단독 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의 방한 활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이 위원회 활동의 불법화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즉, 위원회의 구성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 사이에 단독선거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찬성 4(중국, 살바도르, 인도, 필리핀), 반대 2(호주, 캐나다), 기권 2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말하자면, 구성국 절반이 남한을 반민주적 선거로 엮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³¹⁾ 또한 미군정이 "모든 선거 명부를 물리적으로 검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친일본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 위원회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³²⁾

남한의 선거과정에 대한 소련의 시각은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진 사건의 연속으로 비쳐졌고, 무엇보다 미국의 적극 개입은 최대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프라우다』는 미군 군함이 조선 해역에 도착하여 5월 10일 예정된 총선거 기간동안 남조선에 머물 것이며, 4월 13일 부산항에 미 경순양함 「토이스카 Toiska」와 구

속해야 했다.

30) 1947년 8월 제25군 사령부 정치고문인 샤브신은 남조선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국무총리에는 장덕수가 내정되었다는 말을 슈티코프에 전달한 바 있다. 『슈티코프일기 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139쪽.

31) 『남조선에서 반민주적 선거 준비』 4월 11일 자.

32) 의의 글.

축함 「브란클리 Brinkli, 「베스 Bess」가 도착했다고 보도하였다.³³⁾ 또한 미군 당국이 남북연석회의에 남한 정당사회단체의 방북을 막는 조치로서 38도선에 미군과 남조선 경찰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단독선거에 대한 집단 보이코트를 우려하여 경찰 훈련을 강화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어서 민간복을 입은 경찰들은 서북청년단원들과 함께 가가호호를 순회하면서 선거 참여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선거 명부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도장을 찍기를 거부하면 공산주의 동조자로 몰려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³⁴⁾

남한 내 반단선 분위기는 「조선인민은 남조선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있다」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다.

5월 10일 유엔조선위원단의 공조하에 미군 사령부가 정한 남조선 단독선거 실시에 반대한 인민운동이 은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다. 조선의 민주 사회는 이 선거를 현 조선의 임시 분단을 강화하고 조선의 통일과 독립 부흥을 억제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³⁵⁾

5월 10일에 진행된 남한의 선거 상황에 대한 『프라우다』의 보도는 주로 당국의 탄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르면, 5월 10일 오전 7시 미점령당국의 관리에 따라 이른바 ‘국회 선거’가 시작되었다. ‘선거’는 경찰이 통제하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선거’에 반대하는 모든 저항 시도는 단호하게 억압되고 있다.³⁶⁾ ‘질서유지’와 ‘폭동’의 방지를 위해 경찰병력 6천명과 ‘자원자’³⁷⁾ 약10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모든 선거구는 경찰부대에 의해 경비가 강화되고, 미군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주민의 다수는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과 자경단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주민들은 투표소로 몰았다. 대단위 지역에서는 미군이 직접 선거과정을 통제하였다.³⁸⁾ 또한 영천, 용진 등 남한 각지에서 미군과 경찰, 청년단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들을 남한 탈주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열거하였다.³⁹⁾

『프라우다』는 이 선거에 반대한 남쪽 주민들의 저항과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3명이 선거 반대 시위 참여로 체포되었다. 투표소가 문을 연

33) 「조선에서 선거일에 미국의 군사적 조치」 4월 13일 자, 「남조선에 미군함 도착」 4월 16일 자.

34) 「조선인민은 남조선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4월 16일 자.

35) 「조선인민은 남조선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있다」 4월 16일 자.

36) 「남조선에서의 '선거」, 5월 11일 자.

37) 항보단을 일컫음.

38) 「남조선에서의 '선거' 코메디」, 5월 15일 자.

39) 「남조선에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5월 18일 자.

순간부터 26명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112명이 각각 사망하였다.⁴⁰⁾ 5월 8일 선거 반대 총파업이 개시되어 철도, 통신, 출판, 전기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주민들의 분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소와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태로 전개되었는데,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는 투표소 3곳이 불에 타고, 전남 순천군에서는 투표소를 소각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소요로 인해 아예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⁴¹⁾ 한편으로 신문은 근로인민당, 불교연맹, 민주독립당, 근로대중당 등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선거 비난 성명을 자세하게 전달하였다.⁴²⁾

소련의 입장에서 남한의 선거는 '미국의 총검'의 보호 하에 잔혹한 테러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다수의 남한 근로자들은 이를 보이콧하였던 것이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소련의 부정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 나라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투쟁한 단 한 명의 진보적 인사도, 한 명의 노동자도, 한 명의 농민도, 물론 한 명의 북조선 대표자도 없다. 대신에 거기에는 우익 반동정당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라도 지주 84명, 자본가 32명, 친일관료 23명이 포함되어 있다.⁴³⁾

이 인용문은 남한 선거 결과로 나타난 인민적 대표성과 정통성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남한의 선거는 어떠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프라우다』는 위와 같이 남한 단독 선거 과정을 상세히 취급하였다. 그러나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남한 정부가 수립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실지 않았다. 심지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사실조차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과 실상을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는 소비에트 언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례였다.

이후 소련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한낱 미국이 세운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테면, 남한 정부를 지칭할 때 항상 '남조선 《정부》'라고 표기한 것은 정부 실체에 대한 불인정의 표시였다.

40) 「남조선에서의 '선거」, 5월 11일 자.

41) 「남조선에서의 '선거' 코메디」, 5월 15일, 자.

42) 「남조선 사회는 남조선 '선거'를 폭로하고 있다」, 5월 22일 자. 이들 정당 사회단체의 성명에는 "단독선거는 나라의 분단과 식민지화를 위한 것"이며, "선거는 무기의 위협 하에 조선인민의 의지에 반해 실시되었다"라거나 "이승만은 미군의 지원 하에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3) 「조선인민의 삶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 9월 19일 자

4. 북한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1948년 『프라우다』의 보도는 헌법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2월 6~7일 북조선 최고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조선임시헌법안에 대한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의 보고를 듣고 헌법안을 전인민적 토의를 위해 공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임시헌법의 확정을 위해 3월에 인민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⁴⁴⁾ 이 결정은 2월 3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⁴⁵⁾

북한 정부 수립이 또 하나의 분단 정부 탄생이라는 비판은 소련과 북한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한 해명은 김두봉의 발언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는 북조선에 분단국가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창설되었다고 서울 주재 미국 언론이 보도하자 '이 보도는 남북 분단과 남한 단독 국가 수립을 향한 남조선 반동의 반인민적 행위와 미군정의 시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선동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⁴⁶⁾ 소련은 계속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여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이 1947년 9월에 이미 임시헌법과 최고권력 기관 선거법을 작성하였다고 지적함으로써 북한이 먼저 정부 수립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⁴⁷⁾

북한의 헌법안이 '전국적인' 성격임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는 이와 관련한 남한 내 동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를테면, 『프라우다』는 남한 신문인 「조선중앙일보」, 「우리신문」, 「독립신보」 등이 조선임시헌법안을 게재하였음을 알리면서, 남조선 주민들은 헌법안을 환영하고 있고, 북쪽의 민주개혁이 남쪽에서도 실행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⁴⁸⁾

소련 언론은 2월 8에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행사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련지도부는 당 정치국 차원에서 이 행사 진행을 허가하였다.⁴⁹⁾ 국가 창설 과정의 일환으로서 헌법안 작성과 무력 창설은 거의 동일한 비중의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다만 전자는 전인민적인 토의를 치를 만큼 공개적

44) 「북조선인민회의 회의」 2월 11일 자.

45) 「소련외무성의 문계(1948.2.3), 1948년 1월 27일-3월 17일 전연방공산당(불)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의사록 № 62」, ПГАСПИ ф. 17, оп. 162, л. 30, л. 24.

46)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 김두봉의 성명」 3월 2일 자.

47) 위의 글.

48) 「남조선인민이 민주헌법안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3월 8일 자.

49) 「소련외무성의 문계(1948.2.3), 1948년 1월 27일-3월 17일 전연방공산당(불)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의사록 № 62」, ПГАСПИ ф. 17, оп. 162, л. 30, л. 24.

으로 진행되었으나 후자는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분명 소련의 이 의도는 무력 창설이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데 있었다.

1948년 3월 27-30일에 열린 북조선로동당 대회 제2차 대회는 북한 정부 수립을 향한 진로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프라우다』는 이 대회를 결산하는 기사에서 “북조선에서는 당과 인민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적 민주조선의 건설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조성되었다”고 말한 김두봉의 개막 연설을 실었다. 향후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그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신문은 또 당의 우선 과업으로서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동시 철거에 관한 소련의 제의 실현과 전조선민주주의정부 창설에 관한 문제를 조선인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는”것이라고 한 김일성의 결산 보고를 인용하였다.⁵⁰⁾ 이는 당 대회 소집이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음을 알린 것이었다.

4월 28일과 29일 헌법안 토의를 위해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 219명과 남한 대표 40명을 포함한 사회대표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소련지도부는 이에 앞서 헌법안 수정 작업에 긴밀히 개입하였는데,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24일 헌법 제2조(주권 사항), 제6조(토지 소유 문제), 제14조(종교자유문제)에 대한 수정 권고하여 이를 관철시켰다.⁵¹⁾ 『프라우다』는 “헌법안 논의에는 북조선뿐 아니라 남조선에서 조선인민의 광범위한 계층의 참여가 있었다”는 김두봉의 보고와 함께 헌법안이 조선의 통일독립민주주의국가의 창설을 촉진하는 사업에 복무할 것이라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실었다.⁵²⁾ 아울러 회의에서 헌법안에 대한 수정 제의와 더불어 만장일치로 헌법안을 찬동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소련지도부의 북한 헌법 및 정부 수립문제에 대한 시각은 슈티코프 등이 외무상 몰로토프에게 보낸 다음 보고에 잘 드러나 있다.

북조선인민회의가 헌법초안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승인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조선 인민회의는 전조선 헌법을 확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조선에서 유엔위원회의의 형조하에 미국인들이 금년 5월 10일로 예정된 선거를 실시하고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한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북조선 영내에서 실시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를 실시하고 내각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합니다.⁵³⁾

50) 『북조선로동당 대회』 4월 12일 자.

51) 『레베데프 동지에게(1948.4.24)』, ПРАСНН, ч. 17, см. 162, д. 39, л. 55.

52)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안을 승인하였다』, 5월 4일 자.

이 보고의 의미는 헌법이 전한반도 차원의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조선최고인민회의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남한측이 먼저 정부를 세운 이후에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결론으로 보기에 이것은 북한과 소련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등 주요 정치적 국면에서 미국에 빌미를 주기 않기 위해 남한 보다 뒤늦게 추진했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 물론 한국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결정 이후 시종일관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남한 단선·단정 저지에 전력을 쏟은 공산측이 남한 보다 앞서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 3주년 행사는 북한 정부 수립을 앞둔 뜻 깊은 행사로 간주되었다. 『프라우다』는 이에 대해 “조선해방 3주년 기념준비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와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실시와 조선통일정부 구성에 관한 결정 실행 준비와 일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⁵⁴⁾ 특히 신문은 북조선에서 열린 모든 집회마다 조선해방에서 소련군의 역할과 소련의 우호적인 원조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되풀이하였다.

한편 해방 후 3년 동안 북한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선전하기에 좋은 소재였다. 『프라우다』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6월 1일 국가 및 협동 거래에서 생필품과 공산품의 가격인하(20~32%)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이는 조선사회가 북조선 인민경제의 부흥과 발전에서 대성공의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쓰고 있다.⁵⁵⁾ 또한 8월 15일자 보도는 최근 2년간 산업 생산이 4배 이상 성장하고 농업 생산도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였다.⁵⁶⁾

북한 정부 수립이 북한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일차적인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프라우다』는 남한의 이 선거 상황을 보도하는데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신문은 미군 당국과 ‘조선 반동들’이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실시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정당과 조직들에 기혹한 탄압과 테러를 가했고, 그런 상황에서 남한에서 직접 투표 조직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거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로 주민은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 대표들을 선출하고, 그 다음으로 대회는 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 대의원을 선출

53) 『말리크슈티코프를킨이 몰로토프에게(1948.4.19)』, ABIP(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ch. 07, on. 21, n. 22, n. 316, n. 7.

54) 『조선 해방 3주년』, 8월 15일자.

55) 『북조선에서의 가격인하』, 6월 20일자.

56) 『조선 해방 3주년』, 8월 15일자.

하였다는 것이다. 남조선 선거 사업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에서 선출된 특별지도위원회가 지도하였다.⁵⁷⁾ 보도에 따르면, 미군과 남한 당국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77.5%인 612만 명이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 대표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신문은 이 선거가 어떻게 남한 전역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8월 21일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개막하였다. 『프라우다』는 역시 이 대회의 경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대회 대표로 선출된 1,080명 가운데 1,002명이 대회에 참석하였다.⁵⁸⁾ 이들 가운데 박해와 테러로 78명이 대회에 올 수 없었는데, 그 중 42명은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몇몇 대표는 도중에 사망하였다.⁵⁹⁾ 대회 개막과 박헌영의 보고는 해주와 평양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되었다. 모든 발언자들은 박헌영의 보고와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 및 조선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제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대회 대표들은 남조선 각도별로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명부를 논의하였으며,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 후보 명부와 대의원들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가 실시되어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 8월 30일 자 『프라우다』는 북한 내 선거를 전인민적 민족 명절로 묘사하면서, 예를 들면, 황해도 39개 투표소, 강원도 66개 투표소는 오전 8시경에 100% 투표 완료했다 등 선거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⁶⁰⁾

『프라우다』는 조선최고인민회의를 ‘통일입법기관’으로 불렀다. 수립되는 북한 정권이 분단 정부가 아닌 ‘통일적 정부’라는 것을 힘 있게 강조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는 조선의 통일과 통일독립민주국가 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정치적 통일과 단결의 새로운 시위이며, 이 선거에서 나타난 전조선인민의 전례 없는 정치적 적극성은 자기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굵힘 없는 투쟁의 명확한 증거였다는 것이다.⁶¹⁾

9월 2일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제1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회의에는 남조선에서 대의원 360명, 북조선에서는 212명이 참석하였다. 이로부터 북한 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정은 『프라우다』 지면에 연이어 보도되었다. 개막일에는 최고인민

57)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 8월 30일 자.

58)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8월 23일 자;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8월 27일 자. 1080명 가운데 811명은 정당사회단체 대표이며, 269명은 무소속이었다. 여성대표는 65명이었다.

59)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 8월 30일 자.

60) 위의 글.

61) 위의 글.

회의 의장에 허헌(남로당 위원장)이, 부의장으로 김달현(북조선청우당 위원장)과 이영(남조선 근로인민당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회의는 조선 헌법 승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 조선 정부 조직, 최고재판소 선거 등 의사일정을 확정하였고, 저녁 회의에서는 49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위원장 김두봉)가 뽑혔다.⁶²⁾ 9월 4일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조선의 진정한 인민입법권력 기관이다”는 말로 끝맺었다.⁶³⁾

한편 헌법위원회는 조선헌법안의 기초로 북조선인민회의가 작성한 북한 헌법 전문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는 조선최고인민회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헌법안에 대한 일련의 수정과 보충이 이루어졌는데, 9월 10일자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17명으로), 2. 최고인민회의 개회 요건(대의원 과반수 출석), 3. 내각 성원(수상, 부수상, 상)의 선서문, 4. 내각 또는 상에 대한 대의원의 질의권, 5. 헌법 수정 절차(대의원 총수 2/3의 찬성).⁶⁴⁾ 같은 기사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출과 김두봉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위원들을 소개하였고, 김두봉의 제의로 회의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을 전했다.

9월 9일 조선최고인민회의는 김일성의 위임에 따라 조직된 정부 구성을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프라우다』 9월 12일 자는 내각구성원들을 소속과 결들여 소개하였고, 아울러 김익선이 이끄는 15인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의 선거와 검사총장으로 장해우의 승인을 보도하였다.⁶⁵⁾ 그 다음 날 신문은 9월 10일 김일성이 발표한 정부 정강이 전문 그대로 실었다.⁶⁶⁾

북한은 수립된 자신의 정부에 대하여 “통일적 조선 중앙 정부”임을 강조하였다.⁶⁷⁾ 이 명칭은 남한과 동일이 되더라도 북한 정부가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다

62) 「조선최고인민회의 회의 개마」, 9월 4일 자.

63)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9월 7일 자.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에 57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북조선 선거권자 99.97%, 남조선 선거권자 77.48%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대의원 구성으로는 노동자 120명, 농민 104명, 사무원 152명, 수공업자 7명, 상인 22명, 기업가 29명, 문화일꾼 9명, 기타, 15명이다.

대의원 458명은 남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 32개의 대표이며, 114명은 무소속이다. 여성대의원은 69명이다. 248명의 대의원은 민족해방투쟁에 참여로 체포와 투옥 경력이 있다. 287명의 대의원은 손에 무기들 들고 일본제국주의와 싸우거나 지하활동에 참여하였다. 158명은 조선 분단 정책과 남조선 식민지 노예화에 반대한 투쟁에서 억압과 박해를 당했다. 이 가운데 147명은 미군 법정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64)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9월 10일 자.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직」, 9월 12일 자.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9월 13일 자.

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통일문제는 남한을 '흡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련은 '통일적 정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에 주된 강조점을 두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4월 24일 '조선의 통일전까지 북조선인민회의 4월 회의에서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안을 북조선 영토에서 실행할 것'⁶⁸⁾을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통일 후 상황에 따라 헌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전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소련은 북한 정부를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갖는 통일적 정부로 보았지만 '중앙정부'임을 적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9월 13일 자 『프라우다』는 북한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의 삶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장문의 해설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글은 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남북조선에서의 선거과정을 재차 소개하면서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와 헌법 확정, 인민민주주의정부의 조직은 조선 인민의 통일의 도정에서 중요한 조치로서 보았다.⁶⁹⁾ 또한 김일성이 이끄는 인민민주정부는 전조선인민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애정과 지지에 의거하고 있다는 말로 그의 리더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북한 정부가 인민적 지지 속에 출범한 것을 알리는 것도 보도 매체의 의무적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 『프라우다』는 정부 수립 직후 북한 전역에서 정부의 창설을 환영하는 대중 집회와 시위를 보도했는데, 평양 30만 명, 함흥 12만 명, 신의주 11만 8,000명, 원산 9만 1,000명, 청진 8만 9,000명, 해주 5만 7,000명 등 각 지역에서 운집한 군중의 수치를 열거하였다.⁷⁰⁾

반면 『프라우다』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방해한 남한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8월 중순부터 서울의 신문과 라디오는 최고인민회의의 비합법적 선거에 참여하는 남조선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다. 『서울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8월 15~24일 서울에서 170명이 체포되었고 그 가운데 9명은 중학교 여학생들이었다. 체포된 사람들에게서 111,798명의 투표자 서명과 함께 비합법 선거 참여자들의 투표용지가 압수되었다. 8월 25일 경무부장 조병옥은 남조선에서 비합법 선거 참여에 대해 모두 1,379명을 체포하였고, 9월 2일 이승만은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고 전했다.⁷¹⁾

67) 이틀레텐. 정부 수립 당시 김일성은 매 연설마다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김일성 선집」(조선로동당 출판사, 1954) 참조

68) 「조선의 헌법문제에 대하여(1948.4.24). 1948년 3월 29일-5월 28일 전연방공산당(불)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의사록 No 69」 ПРАСПИ. № 17. стр. 162. ст. 39. л. 38.

69) 같은 기사는 "소비에트 인민과 사회는 조선인민민주주의 정부의 창설을 전조선인민의 통일을 향한 도정에서 중요한 조치로서 환영한다" 말로 재차 통일을 향한 목표들 재차 언급하고 있다.

70) 「정부 수립을 맞이한 조선에서의 축전」, 9월 15일 자.

71) 「남조선에서 대대적인 체포」, 9월 14일 자.

5. 정부 수립 직후 대남 인식과 소련군 철수

분단 후 소련의 주요 대남 관심사는 역시 미국의 정책에 맞추어졌다. 남한 정부가 여전히 미국의 수종하에 있다고 간주한 소련이 미국의 정책적 조치에 주목을 한 것은 당연한 듯이 보였다. 『프라우다』는 정부 수립 직후 뉴욕 라디오 보도를 인용하여, 최근 남한정부가 한국 자원의 개발 계획 및 미국 차관의 활용 문제 등에 대해 스미스 장군이 이끄는 미국측과 회담을 개시하였다고 전했다.⁷²⁾ 8월 27일에는 『뉴욕헤럴드 트리뷴 New York Herald Tribune』의 보도를 인용하여 8월 24일 한미간에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의 체결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협정에 의해 미군 사령관이 남한군대와 경찰에 대한 총체적 지휘를 하게 되었다고 썼다.⁷³⁾ 9월 10일 자 보도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의 제의에 따라 남조선 군대의 훈련을 위해 미군 장교뿐 아니라 일본 장교들을 남조선에 파견하고, 이승만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⁷⁴⁾ 이렇듯 소련의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더욱 예민해지고 있었다.

소련은 남한 내 전권은 사실상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나라는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변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남조선의 모든 경제는 사실상 이미 미국인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고”, 한미협정으로 인해 남한의 경찰과 군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될 것으로 보았다.⁷⁵⁾

이와 같은 대남인식과는 달리 소련은 북한에서 자국 군대의 철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사실 소련군의 한반도 내 장기 주둔을 계획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945년 말에 이미 소련지도부는 자국군대의 철거를 엄두에 두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⁷⁶⁾ 소련이 1947년 9월 이래로 미소 양군 동시철거를 내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자국군의 북한 내 장기 주둔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72) 「서울에서 남조선 '정부'와 미 대표의 회담」, 8월 19일 자.

73) 「미국은 남조선에서 무력을 창설하고 있다」, 8월 27일 자. 같은 기사는 현 남한 경찰 병력은 5만 명이며, 주로 미제 소화기로 무장되어 있다고 전했다.

74) 「미, 일 장교들의 남조선 파견」

75) 「남조선 상황」, 9월 18일 자.

76) 소련군 총정치국장 쉬킨이 1945년 12월 25일 자로 작성한 「북조선 정치 상황에 관한 보고」에는 “현 시기에 우리는 조선에서 우리 군대를 철거할 경우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이라는 구절이 있다. 쉬킨이 로코프스키에게 「북조선 정치상황에 대한 보고(1945.12.25)」 A BHP, ch 019, on. 7, n. 4, p. 46, 12-13. 소련군의 장기 주둔 의사가 없었던 것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스탈린이 종종 북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 관련된다.

볼 수 있다. 이 주장은 또한 소련의 정치적, 명분적 우위 확보뿐 아니라 한반도 내 세력관계로 볼 때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 수립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었다. 소련으로서는 하나의 제의로 몇 가지 이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치밀한 수임기였던 셈이다.

5월 초 주북 소련군 사령관 코로트코프 중장은 미소양국에 보내는 남북연석회의의 호소문에 대한 소련 정부의 답변을 김두봉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서 소련은 나라를 통일하고 독립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조선인민의 염원을 공감하면서 "예전과 같이 소련정부는 조선에서 미국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즉각적인 군대 철거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⁷⁷⁾ 『프라우다』는 소련정부의 답변은 조선 인민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북조선 각지에서 소련 정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대중집회와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고 전했다.⁷⁸⁾ 이어서 북한 주둔 소련군대의 축소를 보도했는데, 주북 소련군 사령관 코로트코프 중장이 자신의 참모부와 함께 소련으로 떠났고 메르쿠로프 소장이 남은 군대를 이끌게 되었다.⁷⁹⁾

분단 정부 수립 후 미소 양군의 동시 철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미 미국측이 이 제의를 거부한 이상 소련은 단독 철수 방침을 굳히고 있었다. 군대 철수 의지는 소련측으로부터 나왔으나 형식적 주도권은 북한측이 행사하였다.⁸⁰⁾ 9월 1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조선으로부터 미소 양군의 동시 철거에 대한 요청을 담은 미소 양국정부에 대한 서한을 채택하였다. 이 서한의 전문을 소개한 『프라우다』에는 남북한의 다양한 정치세력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 수립, 주요 좌·우·중도 정당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정치적 협력 도달, 압도적 다수의 남북 주민의 정치적 단결 등에 의해 전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 시기 및 그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안전한 질서와 사회적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⁸¹⁾ 이에 대해 9월 18일 소련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1948년 12월 말까지 북조선에서 소련군 철거를 완료할 것을 소련 내각회의에 명령을 내렸고, 후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북조선 영토에 남아 있는 소련군대를 소련 영토로 철거할 것.

77)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수에 대하여」, 5월 8일 자.

78) 「조선인민은 소련정부의 답변을 환영하고 있다」, 5월 16일 자.

79) 「조선에서 소련군대 축소」, 8월 11일 자.

80) 그러나 북한측은 소련군의 일방 철수에 내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광서, 「소련의 한국전 개입과정」,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40집 9호, 2000, 154쪽 참조.

81) 「미소정부에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서한」, 9월 14일 자.

2. 소련무력성으로 하여금 북조선에서 소련군대의 철거는 올해 10월 후반기 이전에 착수하여 1949년 1월 1일 경에 완료하도록 할 것.⁸²⁾

이와 함께 소련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남조선에서 위의 기간 내에 미군 철수에 동의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북한에서의 군대 철수는 소련의 대외관계에서 매우 비중 있는 사건이었다. 『프라우다』는 소련 군대의 철수 결정에 대해 북한, 미국,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의 반응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였다. 신문은 UPI통신을 인용하여, “이 결정은 미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며, 미국은 미군의 즉각적인 남한 철수가 전국을 공산주의 지배로 이끌 수 있다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⁸³⁾ 이튿날에는 군대 철수에 대한 북한에서의 “환영과 감사의 분위기”가 상세하게 전달되었다.⁸⁴⁾ 소련군 철수는 몇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948년 12월 말에 완료되었다. 이 과정은 자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었을지라도 소련으로 하여금 아직 남한 철군을 결정하지 않은 미국과 대비하여 정치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6. 맺음말

소련은 남북 분단이 가시화되자 이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 수립을 제1차적 목표로 삼았다. 미소공위 결렬 후 소련은 미소양군 철수 후 조선인민 스스로에 의한 국가 수립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친소 정부 수립의 또 다른 가능성이 이 방식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통일적’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어지는 수순이었다.

소련이 보는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책임은 미국 지배층의 정책과 이승만이 이끄는 우익세력에게 있었다. 소련은 ‘소용돌이치는’ 남한 정세에 주목을 돌리면서 남한 정부 수립을 미국의 지원과 폭압 정치의 산물로 간주하였을 뿐 다른 요인들을 거의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소련이 남한 정부 수립에 오직 소수의 우익 정당·사회단체만이 참가했다고 계속 비난한 사실은 이러한 논리를

82) 「조선에서 소련군 철수에 관한 소련 외무성의 보도」 9월 20일 자; 「조선에서 군대 철거에 관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서한에 대한 소련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답신」, 9월 21일 자.

83) 「조선에서 군대 철거에 관한 소련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응」, 9월 24일 자.

84) 「조선인민은 소련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9월 25일 자.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5.10선거를 끝으로 소련의 보도 매체가 남한 정부 수립에 아무런 주목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전달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소련은 북한 정부 수립 과정, 즉,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와 헌법 확정, 정부 조직은 한반도 통일 과정을 위한 방향으로 인식하였다. 물론 소련이 좌파 주도의 통일정부를 출근 추구한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고 북한 단독 정부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 정부의 위상을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정부가 전조선의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북한 정부의 '정당성'은 남쪽으로부터의 지지자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써 보강하고자 하였다. 북한 정부가 단독정부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남한 단정을 향한 미국측이 꾸며낸 허구이며, 남쪽이 먼저 단독정부를 추진했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소련의 남북한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은 북한지도부의 그것과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남한=괴뢰정부, 북한=통일정부라는 북한측의 태도는 고스란히 소련의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 다만 소련이 북한측의 '통일적 중앙정부'가 아닌 '통일적 정부'로 부른 것은 남북 당사자보다는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정의를 시도한 것이며, 통일주체의 위상에 대한 정의에서 북한과 미묘한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일본의 한국인식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보도를 중심으로—

이 규 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일본의 한국인식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보도를 중심으로-

이 규 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머리말

1. 해방 후 한국의 단독선거를 둘러싼 인식
2. 총선거 실시에 대한 인식
3. 정부 수립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인식

맺음말

머리말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에 따라 판이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배와 피지배를 경험한 민족 사이의 입장은 무척 다르다. '8·15 기억'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이 그 전형일 것이다. 8월 15일은 한국인에게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의 날이었지만, 일본인에게서는 종전 기념일로 기억된다. 또 한국인에게서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국가건설의 출발점이었지만, 일본인에게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굴욕의 날이자 제국 영토=조선을 상실한 아쉬운 날로 각인되어 있다.

조선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시각 또한 인식 주체에 따라 다른데, 이런 상황은 피지배 민족에서만 아니라 지배민족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배자 일본인 가운데도 지배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책무 등의 자각 정도에 따라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군국주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조선 독립과 건국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일본의 통치정책 하에서 조선 산업의 근대 자본주의적 성장과정의 본질적 특색은 생산 무역 자본의 모든 부면(部面)을 통해 최근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으로 대일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동아전쟁의 비극적 종말은 일본의 해외영토의

전면적 상실로 이어졌고, 조선도 새롭게 최근 독립국으로서 우리 통치권 밖으로 분리될 정세에 이르렀다. 단순히 면적과 인구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선일체(日鮮一體)'의 표어 방향으로 밀접히 결합된 조선의 독립은 분명 일본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동반한 불이익의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¹⁾

1910년 8월 일한병합 이후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군국주의 일본에 의한 굴욕과 착취에 신음한 조선민족이 이제 독립하고 드디어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등장한다. 그 민족적인 환희의 외침은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국가로 재생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인민도 대한민국 독립식전을 맞이하여 축하의 말을 보내고 싶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을 획득한 조선민족이 더 나아가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완성하여 동아의 부흥에 기여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마지 않는다.²⁾

전자는 일본 외무성 조사국이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을 총괄한 내부 문건이고, 후자는 아사히신문이 대한민국 건국에 즈음하여 발표한 사실의 일부이다. 외무성은 일본의 패전은 '해외영토의 전면적 상실'을 초래했고, 조선의 독립 또한 일본이 직면한 하나의 불이익이라고 강변한다.³⁾ 반면 아사히신문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나아가 통일국가의 수립을 염원하였다. 조선의 해방과 건국을 둘러싸고 전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후자는 지배민족으로서의 반성 위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의 확립을 바라고 있다. 특정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보고문의 목적은 아사히신문⁴⁾에 게재된 일련의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일본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짐작

1) 外務省調査局, 『經濟的觀點より見たる我國朝鮮統治政策の性格と其の問題』(調三資料第二號), 1945年 12月 20日, 117~118면.

2) 『社説 大韓民國の獨立式典』, 『朝日新聞』, 1948年 8월 15일자.

3) 이러한 인식은 외무성만이 아니라 관변학자의 인식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는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라는 정세는 조선의 인구과잉, 실업문제를 심화시킨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鈴木武雄, 『「獨立」朝鮮經濟の將來』(筆寫本), 1948年 6月 20日, 33면).

4) 아사히신문은 유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이다. 1879년 1월 25일 오사카에서 기쿠라 노보루(木村勝)가 창간하였으며, 1881년부터 무라야마(村山)와 우에노(上野) 가문이 운영해왔다. 1888년에 『에사마시신문』(めざまし新聞)을 매입하여 도쿄에 진출하고, 제호를 『도쿄 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오사카의 아사히신문은 제호를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으로 바꾸었다. 아사히신문은 창간 당시 정치적으로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을 표방하면서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인 주장을 전개하여 일본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필화사건 등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으며, 극우파의 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1940년 9월부터 제호를 전국적으로 『아사히신문』으로 통일하였다.

할 수 있듯이 패전 이후 미국의 점령아래 있던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해방정국과 분단, 점령과 전후개혁이라는 양국의 현안문제 그리고 냉전이라는 국제관계의 변화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획일적일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사나 일본사 영역을 불문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인데, 본고에서는 주로 아사히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한 일본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관련기사가 대개 단편적 사실의 보도에 치중되어 있고, 또 기사가 특파원의 현지 취재를 통하지 않고 미국의 AP통신, AFP통신, UP통신, 로이타통신에 의거해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 신문이라는 자료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때로 편집국 기자의 입장에 따라 임의적으로 누락된 기사도 존재하고, 사안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던 사정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1. 해방 후 한국의 단독선거를 둘러싼 인식

□ 단독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시점은 1947년 하반기에 들어와서이다. 아사히신문은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 지의 1947년 11월 7일자 사설을 소개하면서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보도하였다. 국제연합의 관리 하에 1948년 3월 남한지역에서 단독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선거 이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논평하였다.⁵⁾

□ 1948년에 들어서도 단독선거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이승만이 미국에 단독정부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게재하고,⁶⁾ 남한에서의 단독선거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도 소개하였다. 조선 문제를 토의하는 국제연합 소총회에서의 미국의 제안발언을 소개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⁷⁾

5) 「國連の管理下 南鮮に獨立政府か」, 『朝日新聞』 1947년 11월 9일자.

6) 「南鮮に單獨政府要求 李承晩博士」, 『朝日新聞』 1948년 1월 28일자.

7) 조선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선거는 남부부터 개시하여 점차 북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명이 방해받지 않을 것, 즉 남에서 차츰 북으로 옮겨가 38도선에 도달했을 때, 국제연합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부정당하지 않고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만약 불행하게도 위원회가 소비에트의 반대로 인해 38도선 이북의 선거 감독을 계속할 수 없을지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회대표를 뽑고 나머지 3분의 1의 국민은 그들의 대표들 의회에 보낼 기회를 부정당하는 일이 된다. 조선민중과 전세계는 누가 이 의회를 거부했는지 알 것이다" (「まず南鮮で選挙 國連小總會で米に代表が提案」, 『朝日新聞』 1948년 2

□ 단독선거의 결정과정에 관한 기사가 뒤를 이었다. 신문에는 1948년 3·1절 축하대회에서의 하지 미군사령관의 국제연합 조선위원회의 감독 아래 5월 9일 실시될 계획이라는 발언과 이에 대한 이승만의 환영연설이 소개되었다.⁸⁾ 나아가 3월 12일에 개최된 국제연합 조선위원회의 남한단독의 총선거 실시 의안이 찬성 4, 반대 2,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알렸다.⁹⁾

□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선거의 준비상황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었다. 1948년 4월 12일자 기사에서는 약 80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록했다고 전했다.¹⁰⁾ 또 총선거를 대비하여 미태평양함대 소속 순양함 1척과 구축함 1척이 각각 인천과 부산에 정박하였고, 지상군의 경계 강화와 공군의 시위비행 등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육해공군의 시위활동에 대해 “선거 중에 좌익본자가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¹⁾고 논평하고 있다. 한편 신문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 일본 동아통신이 청취한 1948년 4월 23일자 평양방송의 남북한정당대표연석회의의 결정사항을 보도하였다.¹²⁾

□ 단독선거를 둘러싼 한국의 상황 변화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이 바라보았다. 1948년 4월 30일자 사설에서는 4월 19일부터 개최된 남북조선정당대표의 연석회의와 다가올 총선거 이후의 정세에 “우리 또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¹³⁾고 사태의 추이에 주목한다. 먼저 국제연합 소총회의 단독선거 결정의 방침에 앞서 개최된 남북조선정당대표연석회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 조선을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책략”¹⁴⁾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한 각 정당의 단독선거 반대의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즉 사설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한국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의 일부가 단독총선거에 찬성하고 있을 뿐, 이전에 암살당한 여운형씨, 김규식 임법원총장 혹은 지주, 상공업자, 지식인이 지지하는 김구씨 일당을 비롯한 남선노동당, 근로인민당, 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대다수 정단(政黨)은 암암리에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¹⁵⁾고 바라보았다.

월 28일자).

8) 「五月九日に南鮮總選舉 ホッソ中將言明」, 『朝日新聞』 1948년 3월 9일자.

9) 「南鮮總選舉を可決」, 『朝日新聞』 1948년 3월 14일자.

10) 「八百万人登録 南鮮の單獨總選舉」, 『朝日新聞』 1948년 4월 12일자.

11) 「南鮮總選舉に米艦派遣」, 『朝日新聞』 1948년 4월 13일자.

12) 보도된 남북한정당대표연석회의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민족은 어디까지나 통일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단독선거에도 반대한다. 연석회의에 남선선거반대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選舉反對委員會 南北鮮連席會に設置」, 『朝日新聞』 1948년 4월 27일자).

13) 「社説 南鮮の總選舉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14) 「社説 南鮮の總選舉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 이어 사실에서는 동일독립국가건설을 주장한 김구의 입장과 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규식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남선으로부터는 김규식, 김구 양자를 비롯해 30여 정당의 대표자가 참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¹⁵⁾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석회의의 성격과 회담내용의 성사 여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사실은 연석회의에 대해 “조선의 독립과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¹⁷⁾고 평가하면서 회의의 성패는 오히려 북한의 평양에서 열리는 특별인민회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바라본다. 즉 “제4차 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드디어 ‘인민공화국헌법초안’을 토의하는데, 문제는 연석회의의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대회의 토의에 상정될 것인가”¹⁸⁾에 달려있다고 바라본다.

□ 사실에서는 총선을 앞둔 정세의 추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일과 분열에 대해 “남북 양선 정당대표의 연석회의도 민족의 분열을 회피할 수 있는 토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독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조선민족은 지금 냉혹한 현실 속에 있다. 해방 이후 2년여, 지금 역사적인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¹⁹⁾고 맺고 있다.

2. 총선거 실시에 대한 인식

□ 총선거의 실시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신문은 총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선거의 배후에는 ‘서구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미군정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좌익에 대한 호칭도 미군정이 지칭한 ‘공산주의자의 앞잡이’ 혹은 ‘소련의 대변인’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5월 이후 신문에는 좌익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지도와 함께 연이어 게재되었다.²⁰⁾ 제주도를 비롯해 각지의 상황은 주로 미군정 당국자의 입장을 인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대투쟁의 양상에 대한 보도는 예를 들면 “남선의 좌익은 지난 2월부터 총선거를 방해하기

15) 「社説 南鮮の總選挙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16) 「社説 南鮮の總選挙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17) 「社説 南鮮の總選挙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18) 「社説 南鮮の總選挙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19) 「社説 南鮮の總選挙と統一問題」, 『朝日新聞』 1948년 4월 30일자.

20) 예를 들면 「南鮮また暴動」, 『朝日新聞』 1948년 2월 29일자 ; 「ケリラ隊三千 廣州道に暴動」, 『朝日新聞』 1948년 5월 4일자 ; 「南鮮で破壊行為續發」, 『朝日新聞』 1948년 5월 10일자 ; 「廣州道でケリラ戦」, 『朝日新聞』 1948년 5월 11일자.

위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후의 상황은 거의 매일 남선과 제주도의 아무리 작은 부락에도 무뢰한이 침입하여 경찰파출소와 선거관리소, 경찰관과 우익에 대해 본 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헤치고 있다”²¹⁾는 형태의 보도가 이어졌다.

□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사도 게재되었다.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규식과 뉴욕 타임지 특파원 리차드 콘슨과의 특별인터뷰 기사를 통해 단독선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²²⁾

□ 선거 직전 상황에 대한 기사도 특집으로 편성되었다. 특집은 신문사 와다(和田) 동아부장이 AP통신 도쿄지국에 의뢰하여 전화로 AP통신 서울지국장 로이 로버츠와의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집에서는 먼저 총선거의 의의를 ‘조선인에게는 유사 이래의 일이고 800만 유권자가 던지는 한 표를 통해 남선측은 북선이 선전하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수립에 스스로 회답하는 것이다”²³⁾고 규정한다. 이어 선거를 앞둔 서울의 분위기, 선거반대의 움직임, 선거방해나 폭동에 대한 예방수단, 각 정당간의 특별한 쟁점, 격전 예상지, 일반 민중의 선거에 대한 관심, 예상 투표율, 북한의 선전에 대한 반향, 투표 시간, 미군 관계자와 국제연합 위원회의 당일 활동, 선거 이후 국제연합 위원회의 향후 일정, 선거 이후 독립정부의 수립과정, 북한의 대응, 김구와 김규식 등 연석회의 참가자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문답형식으로 보도하였다.

□ 선거 당일의 속보도 신속히 보도되었다. 선거일의 모습은 “남선 최초의 총선거는 나라 전체가 긴장 속에 10일 오전 7시부터 실시되어 투표율도 꽤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선거방해공작으로 보이는 폭행과 파업의 파도 속에 7일 이후 이미 1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9일 밤에는 서울 시내에서 우익 청년단 본부 부근에 폭탄이 던져졌다. 인천우편국에도 1명의 여성이 폭탄을 던졌지만 범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미군 당국은 당일의 폭동이나 방해의 발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²⁴⁾는 내용의 속보로 전해졌다. 총선거에 일부 좌익세력의 방해공작도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 선거 직후의 개표상황에 대한 소식도 사진과 더불어 보도되었다. 단독선거 반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등록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11일부터 개표가 시작되어 이승만계가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도하였다.²⁵⁾ 하지 사령관의

21) 「無事すむか十日 左右激争 迫る 南鮮總選挙」, 『朝日新聞』 1948년 5월 4일자.

22) 「單獨選挙に反対せず 金奎植氏談」, 『朝日新聞』 1948년 5월 8일자.

23) 「電話で聞く現地の緊張 投票にも弾丸の危険 争點は新政府の形態」, 『朝日新聞』 1948년 5월 9일자.

24) 「南鮮の投票順調 一部に左翼テロの妨害」, 『朝日新聞』 1948년 5월 11일자.

25) 「開票はしまる 李承晩系南優勢」, 『朝日新聞』 1948년 5월 12일자.

말을 인용하여 단독선거를 둘러싼 반대세력의 움직임은 실패로 끝났지만, 개표장의 투표함에 대한 습격이 예상된다라는 혼돈상황을 전하면서 일부 북한군의 38도선 이남으로의 도발도 무위로 끝났다고 보도하고 있다.²⁶⁾

□ 개표상황과 정당별 득표성적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예상대로 이승만의 한국독립촉성국민회가 제1당을 차지했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과 우파 경향의 무소속과 소수정당이 뒤를 이었고 서울에서는 전 공산당 출신이 당선되었음을 알렸다.²⁷⁾

□ 선거 결과를 총괄하는 사실을 통해 향후 정국을 진단하였다. 먼저 사실에서는 '조선의 단독총선거는 교통과 통신선의 파괴, 노동자의 파업, 학생의 동맹휴교, 경찰서를 비롯한 투표소, 입후보자 자택의 습격 등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예정대로 10일 국제연합 조선위원회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²⁸⁾고 평가하였다.

□ 향후 정국에 대해서는 국민의회와 결성과 헌법초안의 채택을 통한 국민정부의 형성, 그리고 국가보안대의 조직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예상하면서 남한에서의 국민국가의 탄생을 전망한다. 이에 대해 사실에서는 '조선인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민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날이 가까워졌다.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배려를 조선민족에게 보내고 싶다'²⁹⁾고 말한다.

□ 하지만 사실에서는 향후 문제는 북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다. '북선의 인민회의가 남선의 국민정부에 대항하여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전하고 미소 양군의 철수를 기다려 남선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불길한 내전의 예상에 남선의 인심이 흔들리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불안하다'³⁰⁾고 전망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북한의 남한으로의 송전중지 사실을 보도한다. 그리고 해설을 통해 '남선총선거가 끝난 다음 북선측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주목되었는데 북선측은 드디어 전력 공급을 단절하였다'³¹⁾며 긴박한

26) 「共産分子の妨害失敗 南鮮總選舉 ホッソ中將談」, 『朝日新聞』 1948년 5월 12일자; 「北鮮軍 南鮮に侵入」, 『朝日新聞』 1948년 5월 12일자.

27)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이승만이 이끄는 한국독립촉성국민회와 그 자매단체인 대동청년단이 66 의석을 획득하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이 28의석을 얻어 제2당이 되었다. 하지만 무소속후보의 당선이 89의석으로 의외로 많았고 기타 소수와 가운데 공산당원이 2의석을 획득했다. 「南鮮 開票進む」, 『朝日新聞』 1948년 5월 13일자; 「李承晩系第一黨 南鮮總選舉」, 『朝日新聞』 1948년 5월 14일자.

28) 「社説 南鮮の總選舉と今後の問題」, 『朝日新聞』 1948년 5월 15일자.

29) 「社説 南鮮の總選舉と今後の問題」, 『朝日新聞』 1948년 5월 15일자.

30) 「社説 南鮮の總選舉と今後の問題」, 『朝日新聞』 1948년 5월 15일자.

31) 「南鮮への送電中止 豫想された北鮮の手」, 『朝日新聞』 1948년 5월 15일자.

정세를 예고한다. 미국도 하지 사령관을 통해 송전 개시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하는 등 남북의 정세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³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앞날에 대해 '결코 내전은 일으키지 않겠다'는 북선 지도자의 성명을 나는 신용한다'는 김규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현재 조선의 모든 사람이 이성과 양식으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추창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마지 않는다"³³⁾고 강조하고 있다.

□ 총선거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문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 선거 결과 한국독립촉성국민회가 제1당이 되었고 다른 정당도 이승만을 지지하기 때문에 국민의회가 소집되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다고 바라보았다.³⁴⁾

□ 이승만이 대통령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아사히신문은 이승만의 통일과 독립에 관한 포부를 타진한다. 그와의 인터뷰는 AP통신 서울지국장인 윌리엄 모어를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총선거에서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각, 선거의 결과 소당분립 현상에 대한 입장, 신헌법구상의 내용, 국방보안군 창설문제,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입장 등이었다.³⁵⁾

3. 정부 수립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인식

□ 총선거 이후 국민의회는 5월 31일 개최되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며 의회의 식순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신헌법에 의거한 정부의 수립과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국방군의 창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더불어 이승만계와 한국민주당과의 협조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정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승만이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에 비해 한국민주당은 행정권을 내각에 두려는 의회제도를 구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³⁶⁾

□ 이후 국민의회에서는 예정대로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미국 또한 국제연합 조선위원회의 감독 하에 수립된 신정부를 곧바로 승인할 준비를 개시하

32) 「送電開始を要求 ホッソ中將 北緯へ抗議の手」, 『朝日新聞』 1948년 5월 23일자.

33) 「社説 南緯の總選挙と今後の問題」, 『朝日新聞』 1948년 5월 15일자.

34) 「大統領に李承晩氏が 第一黨は獨立促成國民會」, 『朝日新聞』 1948년 5월 15일자 ; 「南緯國民議會 今週中に召集か」, 『朝日新聞』 1948년 5월 17일자.

35) 「朝鮮獨立の構想 李承晩博士の抱負を語る」, 『朝日新聞』 1948년 5월 24일자.

36) 「きょう開く南緯議會 早急に新政府を樹立」, 『朝日新聞』 1948년 5월 31일자.

었다.³⁷⁾ 6월 25일 국제연합 조선위원회는 이승만에게 정부 수립을 위해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이승만 또한 8월 15일까지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 90일 이내에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국방군이 조직될 때까지 미군의 잔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³⁸⁾

□ 이후 신문에서는 남한정부의 수립 과정에 관한 단편적인 보도를 게재하면서, 북한의 움직임도 동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6월 30일 국제연합 조선위원회가 남한국회를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같은 지면에 미군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태로 7월 중에 북한이 남한을 침입할 것을 예고하는 공산당의 '비밀지령'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실었다.³⁹⁾

□ 이러한 보도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국회에서 7월 6일 헌법초안의 심의가 전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평양방송을 인용하는 형태로 7월 9일부터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보도하였다.⁴⁰⁾ 또 북한에서 7월 10일 조선인민공화국헌법을 시행하고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전하는 한편, 남한에서는 7월 12일 국회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상정하여 가결했다는 내용을 전했다.⁴¹⁾

□ 총선거의 결과 남한과 북한에 두 정권이 수립된 것을 총괄하고 앞으로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제연합 조선위원회는 남선국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5월 10일의 남선총선거를 자유의사의 정당한 발현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탄생한 남선국회를 전원 일치로 승인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국제연합 조선위원회의 보고서가 9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발표되어 세계의 여론에 붙여질 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소련측의 포석이 헌법의 실시로 표출되었고 나아가 북선에 이어 김일성씨를 수반으로 한 북선 독립정권의 수립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상황은 북선 소련군의 철수와 남선 미군에 대한 철수 요구일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아무튼 국제

37) 「議長に李博士 南鮮議會開く」, 『朝日新聞』 1948년 6월 1일자 : 「米 南鮮政府假承認か」, 『朝日新聞』 1948년 6월 2일자.

38) 「八月中旬までに南鮮政府樹立 國連 李議長に申入れ」, 『朝日新聞』 1948년 6월 27일자.

39) 「國連南鮮國會を承認」, 『朝日新聞』 1948년 7월 2일자 : 「北鮮共產軍の計劃 '秘密指令' 警察で押收」, 『朝日新聞』 1948년 7월 2일자. 비밀지령은 "전투는 모든 소련군이 철퇴할 예정인 7월초에 개시한다. 인민군은 남선에 들어가 남선노동당(공산당)과 손을 잡을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40) 「南鮮憲法審議を終了」, 『朝日新聞』 1948년 7월 8일자 : 「北鮮あす人民會議」, 『朝日新聞』 1948년 7월 8일자.

41) 「八月二十五日 北鮮の總選舉」, 『朝日新聞』 1948년 7월 19일자 : 「南鮮國會憲法を可決」, 『朝日新聞』 1948년 7월 19일자.

연합의 방식에 의한 대한민국의 발족과 소련측의 북선 정권과 인민군에 의한 실행행동과의 대립이 앞으로 많은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⁴²⁾고 말한다.

□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에 대한 소개 기사를 실었다. 이승만의 약력과 활동을 소개하면서 ‘반공의 거두’⁴³⁾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또 국무총리 이하 장관의 임명을 보도한 다음 특히 상공부장관으로 임영신(任永信)을 등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임영신에 대해서 “임여사는 금년 47세, 미국의 대학을 졸업후 조선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종전 이후 여자국민당 당수와 이승만 박사계의 남선 민주협회의의 재미대표로 또 국제연합에서는 업저버로 활동하였다. 지난 31일 뉴욕으로부터 귀국 도중 북선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에게 무기제공을 의뢰하였다. 또 남선을 주권국가로 즉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⁴⁴⁾고 전하고 있다.

□ 정부 수립 이후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8월 15일 제3회 해방기념일에는 성대한 독립축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중국신문은 중국정부 외교부의 정보를 인용하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은 곧 남선의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 미 국무성도 이미 7월 23일 경성주재 대사관 참사관을 임명하는 등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국가의 토대가 좁아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도는 어떠할까? 중국정부 기관지인 화평일보는 4일자 사설에서 ‘한국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일은 정부 내부의 조직과 미군이 철수한 이후의 치안이다. 정부 내부의 조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공산당 지배하의 북선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고 논한다. 이미 소련은 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결정에도 정부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곧바로 남선의 정정(政情)에도 파란이 예상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뇌부의 향후 노력이 주목된다”⁴⁵⁾고 글을 맺고 있다.

□ 아사히신문은 정부수립 이후 미군 철수문제의 추이에 주목하였고, 이승만의 미군잔류 요청사실을 보도하였다.⁴⁶⁾ 미군 철수에 관한 관심은 8월 15일 독립식전의 준비상황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신문은 1면 기사로 맥아더의 식전 참석을 알리면서 첫 기사로 “대한민국의 독립식전은 해방기념일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수도광장에서 열린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최초의 민주정부 수립’을 선

42) 「新世界録音 二つの政府が出現 次は米月ノ兩軍の撤退問題」, 『朝日新聞』1948년 7월 19일자.

43) 「李承晩氏當選 韓國初代大統領」, 『朝日新聞』1948년 7월 21일자.

44) 「ニュース手帖 發足した大韓民國政府」, 『朝日新聞』1948년 8월 6일자.

45) 「ニュース手帖 發足した大韓民國政府」, 『朝日新聞』1948년 8월 6일자.

46) 「米軍の残留を要請 李ニ韓國大統領」, 『朝日新聞』1948년 8월 7일자.

언할 것이다. 또한 미군 철수의 예비행동인 미군정권 기능의 한국정부 이양은 16일부터 개시되어야 할 것이다”⁴⁷⁾고 보도하였다.

맺음말

제국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식민지 조선을 상실하였다. 해방정국에서 건국에 이르는 조선의 정황은 남달랐다. 1947년 10월, 미국은 조선의 통일 정부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시켜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연합 조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북측이 이를 거부하자 1948년 5월 남북 민중의 강력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감시와 미국의 전투준비 태세 하에서 남쪽만의 단독선거를 강행하였다. 이리하여 8월 15일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이, 9월 9일에는 남쪽의 대중도 지하 선거를 통하여 참가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남북 분단체제가 만들어졌다.

일본은 이러한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남달리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이 미국의 점령 하에 놓여있다는 상황도 작용했다. 한반도의 정세가 일본의 향후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했다. 조선의 독립과 정부수립을 고의적으로 폄하하려는 외무성 조사국과 같은 견해도 존재했고, 아사히신문과 같이 냉정하게 사태의 추이를 보도하면서 두 개의 정부수립과 통일을 바라는 견해도 존재했다.

아사히신문은 격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고문에서는 기사 그 자체가 지니는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지 못했다. 사실 보도를 중시하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언론 통제를 받고 있다는 조건도 작용했을 것이다. 향후 이들 문제의 해결을 통해 정부수립을 둘러싼 일본의 한국인식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47) 「韓國ある獨立式典」, 『朝日新聞』 1948년 8월 14일자.

<참고자료 1>

○與謝野政府委員　今年の一月の末に本委員會におきまして、当時の國際情勢につきまして概括的なことを御説明申し上げました。その後の國際情勢につきまして御参考までに概括的なことを御説明申し上げたいと存じます。別に特に変わった資料はあるわけでもございませんので、御承知のことが多かろうかと思うのであります。大体今日の國際情勢の大きな問題はいずれもアメリカとソヴェイトとの關係ということに歸するものが多いのでありまして、米ソ關係ということを中心として最近の情勢についてお話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國際情勢の一切の問題はいずれも米ソ關係に歸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りますが、これを離れて具体的に個々の問題について少し申し上げますと、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朝鮮の問題であります。朝鮮は國際連合の当初の予定であつた三月に南北朝鮮を通ずる選舉を行うということが實行できなかつたのでありまして、その後極東委員會その他においてもいろいろ問題が討議されたのでありますが、結局五月十日に南朝鮮だけで選舉を行うということをしめまして、御承知のように、十日に選舉が行われたのであります。この選舉には共産党、右翼の一部その他の反對がございまして、濟州島その他各地においてテロ行爲等もあつた模様であります。結局アメリカのホツヂ司令官も發表しておりますように、満足すべき状態でこの選舉が終つた模様であります。選舉の結果につきましてはまだ公式に發表されておらないのでありますが、大韓獨立促成國民會、李承晩氏の率いるこの會が五十六名、韓國民黨が二十八名、その他の小會派二十九名、無所屬が八十二名というような結果になつてゐるということが傳へられています。また南北朝鮮間のいろいろの交渉につきましても、新聞等に傳へられるいろいろな問題がありまして、この選舉に先だちまして南朝鮮の一部政治家と北朝鮮の政治家との間に會議があつたりしたこともあるのでありますが、今日さしあたり問題になつてゐるのは、北朝鮮から南朝鮮への電力の供給の問題であります。北朝鮮は前から南朝鮮に對する電力の供給を斷つということを言つていたのでありますが、この十四日の正午にいよいよ南朝鮮に對する電力に供給を斷つということを通告したのであります。アメリカ側でも、前からこういう問題がございましたために、準備を進めておりまして、發電設備をもつた船を控えさせておりまして、南朝鮮に對する電力供給が斷られた一時間後にはもう公共施設への供給には差支えない程度に電力を供給してゐる。こういうことが今さしあたりの問題になつてゐるのであります。これは南朝鮮から北朝鮮に對する電力に對する支拂いが、アメリカ側がドルで支拂うと言ふのの對して、北朝鮮側では施設その他に要する現物で支拂つてく

れということでもめている。またアメリカ側がソヴィエトとこの問題を直接交渉をしようとするのに對して、ソヴィエト側はいわゆる北鮮側には人民共和國の政府があるからそれと交渉してくれというふうなことを言つて、なかなか交渉がめんどう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いわ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衆議院 外務委員會 5号 1948年5月18日)

<참고자료 2>

○外務省調査局長(松平康東君) 戦後における朝鮮の状況でございますが、御存じのカイロ宣言、これは一九四三年十一月二十三日に、米英華の三大國がカイロで調印したものであります。この宣言におきまして朝鮮人民の奴隷状態に留意し、やがて朝鮮を自由且つ孤立のもたらしめる決意を有するということを公約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これが四五年七月二十六日のポツダム宣言において、カイロ宣言の條項は履行せられるべきであるとの確認を受けるに至つたわけでありませぬ。その結果日本の無條件降伏に伴ひまして、朝鮮は一九一〇年の併合以來三六年振りに日本の支配から脱しまして、政治的自由性を恢復して即時完全な獨立の實現を期待したわけでありませぬ。然るに朝鮮半島は北緯三八度線を以て南北に二分せらるるに至りました。北部はソ連軍、南部は米國の占領するところとなつたわけでありませぬ。即ちソ連は参戦と同時に東北鮮から侵入を開始しました。八月末までの間に各地所在の朝鮮人共産主義が組織いたしました人民委員會に行政權を接收せしめました。これに對し米軍は九月八日南鮮に上陸し十一日に京城に軍政部を設置して統治權を持つに至るのであります。

元來南北鮮の分割占領は、日本降伏を促進させるための作戦上の便宜から米ソ間の暫定協定でありまして、米軍司令官は進駐と同時に現地ソ連軍司令官との協議により南北の統一、交通の再開を図つたのであります。ソ連側は北鮮に對するその權限を主張してこれに應ぜず、ために統合の問題は駐屯軍司令官の局地的折衝では埒があきませぬので、結局四五年十月十六日からモスクワで開かれました米英ソ三國外相會議の議題にしたわけでありませぬ。この外相會議におきまして、朝鮮の統一獨立問題を討議いたしました結果、十一月二十七日に朝鮮共同信託統治案を正式に發表したわけでありませぬ。これによりますと米ソ兩軍の代表者の構成する共同委員

會というものを設置いたしまして、その委員會は朝鮮の民主的諸政党團體と協議して、朝鮮民主臨時政府を樹立いたしました。委員會はこの臨時政府と協議して、米英ソ華の四國による期間五ヶ年以内の朝鮮信託統治に関する諸措置を決定するというのであります。このモスクワ協定に基きまして、朝鮮米ソ兩軍は、四六年一月十六日から三週間開かれておりました予備會議を経て、三月二十日より共同委員會を京城に開催したわけでありまして、そうして議題として一、政党團體との協議の条件及び順序、二、臨時政府及び地方行政機關の構成と組織原理、三、臨時政府の政治綱領その他適当な法案、四、臨時政府の構成人物の選定が擧げられまして、分科委員會を設けて審議を進め、四月十八日には政党團體との協議の条件として委員會が決定いたしました一つの宣言、これはモスクワ協定を支持し、共同委員會の決定を遵守し、これと協力することを約する旨の宣言であります。この宣言に政党團體が署名するよう各政党團體に要望したわけでありまして、然るに委員會の米ソ代表は協議の対象とすべき政党團體の範囲について意見の對立を來したのであります。すでに四五年十月二十日米國國務省當局が朝鮮に信託統治を實施したいとの意向を發表いたしますや、朝鮮におきましては即時獨立のみを予想しておつた朝鮮民衆は一齊にこれに反對していましたが、越えてモスクワ協定の共同信託統治案が發表されたのに對しましても、南鮮の右派は反託國民總動員委員會を組織いたしまして、朝鮮的なデモを行いました。これに反對したわけでありまして、然るにこれに對しまして、左派は北鮮の動向に準じまして当初の態度を豹變いたし、信託統治に賛成したのであります。こういう状況の下におきましてソ連代表はモスクワ協定の規定する信託統治に反對する者は、モスクワ協定の掲げる任務を遂行すべき共同委員會との協議に参加する資格がないと主張いたしました。南鮮に絶對多數を占めておりました右派の完全な閉出しを図つたのであります。これに對して米國代表は言論自由の建前から、協議に参加すべき政党團體は委員會に協加の態度を表明すればいいのであつて、信託統治そのものはこれを支持しなくてよろしい、というまあ意見を出したわけでありまして、然るにこの見解の相違は遂に妥協点を見出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五月六日共同委員會は無期休會に陥り、ソ連代表は直ちに平壤に引揚げてしまつたわけでありまして、

こういうわけで兩者の意見が阻隔いたしました結果、朝鮮の政府の樹立ということも暗礁に乘上げたわけでありまして、マーシャル國務長官は若しソ連が委員會の再開に應じない場合には、南鮮に獨自の政府を作ることには止むを得ないという考えから、四七年三月にモスクワで開かれました外相會議で、この問題をもう一遍議題に載せたいわけでありまして、漸くその結果モトロフ外相との間に了解が成立いた

しました。五月二十日から再び委員會が再開される運び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せぬ。然るにこの間南鮮の右派の信託統治反對の態度は變ることなく、新たに反託獨立闘争委員會を組織いたしまして、モスクワ會議にも信託統治反對の電報を打っておりませぬし、委員會再開直前の米國代表の忠告に對しても尙その反對の態度を改めないところがあるのであります。これに對して南鮮の中間派及び左派、それから北鮮の諸政党、團體は委員會に全面的協力を表明したのであります。こういうような事態の間に、五月二十一日から開かれました共同委員會は前年と同様な會議で、臨時政府の樹立計畫案を作成して、これに協議參加を希望する政党團體に對しまして、先程申上げました宣言に署名するかどうかを問合せました結果、南鮮四百二十五、北鮮三十八の政党團體が協議參加を申込んで來たわけでありませぬ。然るに又再びこの政党團體の範囲につきまして、米ソ間に前年と同様な意見の對立が起つたのであります。七月五日以降委員會の審議は少しも進捗を見ず、たまたま八月初め南鮮に行われました左翼の大量檢舉もこれに絡んで、共同委員會は全く暗礁に乗り上げるに至つたのであります。その間難局打開のため双方より種々の提案が行われたのであります。結局ソ連側と米國側との意見の一致ができませんで、結局共同委員會による米ソ兩國間の直接交渉というものは最早難局打開の道としては不適当ということになつたのであります。そこで米國は九月十六日から開かれました國連總會に朝鮮問題を提訴いたしまして、そうして十一月十四日の國連の本會議において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中國、サルヴァドル、フランス、インド、フィリッピン、シリア、及びウクライナの各國代表から構成される國連臨時朝鮮委員會の監視下に一九四八年三月末までに國民議會代議員の選舉を行い、議會は國民政府を形成し、政府は委員會と協議して、保安軍を編成すると共に、占領軍から行政權を接收し、その完全な撤退を實施可能な限り、速かに、若しできれば九十日以内に行うよう協議するということになつたのであります。國連の朝鮮委員會は、本年一月八日京城に到着いたしまして、全鮮的選舉のため活動を開始しようとしたのであります。ソ連政府は二十二日委員會の北鮮入りを正式に拒絶いたしました。一方この委員會の構成員の一國でありましたウクライナも亦委員會の代表派遣を重ねて拒否いたしました。このため委員會はちよつと行動に迷うような事態に立ち至つたわけでありませぬが、結局國連小總會の指示を仰ぎました結果、朝鮮委員會は全鮮的選舉監視を行うべきであるかどうか、若しそれが不可能であるならば、委員會の立入り得る地域のみで、先程申上げました十一月十四日の國連總會決議を實施すべきであるという指令を出したので、この指令に基いて、國連の委員會は活動したわけでありませぬ。そうしてそこで國連委員會は選舉法を検討いたしまして、朝鮮人指導

者の意見を聴取いたしまして、結果選挙期日は五月十日、選出せられるべき代表数は二百名とし、米軍当局の支援の下に選挙が行われたわけですが、南鮮の左派、中間派、及び一部の右派は、この選挙に不参加の態度をとったわけでありませう。選挙は結局九二%を超える投票を得たのであります。その結果右派の圧倒的勝利に終わりました。国民議会は五月三十一日開院式を行い、七月十二日には憲法を制定し、李承晩氏を大統領に選挙いたしまして、大韓民國を樹立いたしました。八月十五日に獨立式典が行われたのであります。米國、中國、フィリッピンはこれに先立って韓國に事實上の承認を行いました。米國は大使格の駐韓特使を任命いたしました。そうして八月十六日から後は漸次軍政から韓國政府へ行政權の移譲が行われておるのであります。一方國連委員會も南鮮選挙の有効性を承認いたしまして、現在パリで開かれております國連總會は、この國連委員會の報告を審議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これが南鮮の今までの政情であります。

これに對しまして北鮮におきましては四月十九日に平壤に南北鮮政党政團連合會議を開いて、南鮮の選挙に反對する朝鮮人の民族感情に呼びかけ、又五月十四日選挙直後の南鮮に對しましては、電力の供給を切斷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南鮮における事態の展開を阻止するに努めたわけですが、七月十日には機先を制まして、先に採擇いたしまし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を北鮮に實施し、八月二十五日には、その最高主催機關たる最高人民會議の代議員選挙を南鮮代表の参加を得て實施するに至ったのであります。九月二日から開かれました最高人民會議は全日成を首班とする内閣を組織いたしまして、ここに北鮮人民共和國の形態は完成したわけであります。

こういうようなわけで南北兩鮮はここに二つの國家、それも政治原理と機構において全く異質的な國家が相對峙する形勢となつた次第であります。この前記南北政党政團連合會議は、四月二十六日に米ソ兩國政府に對しまして、占領軍の同時撤退を求めるメッセージを送つたのであります。北鮮のソ連軍司令官が直ちにこれに答えて、ソ連は南鮮の米軍が撤兵すればいつでも即時撤退する準備を完了したと發表いたしました。これに對して米軍司令官は、米國は撤兵前に南鮮が北鮮の勢力に對抗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んという聲明をしております。九月十九日にはソ連政府は今年末までに北鮮のソ鮮軍を全部撤退すると發表いたすと共に、米國がこれに做うことを希望いたしました。これは九月の十日に人民共和國政府が米ソ兩國に發した撤兵要請に應えるのであります。大韓民國李承晩大統領はかねて米軍の繼續駐屯を要望してござりまして、米國政府も亦國連總會における朝鮮問題の審議が終了するまでは、占領軍撤退は行われんという見解を表明しております。この眞

偽は不明であります。新聞報によりますと、現在北鮮のソ連軍の兵力は二万五千乃至四万と言われております。この外に北鮮人民軍約六万、訓練された民兵は約二十万、警察二万五千、こういう勢力であります。これに對して南鮮は米占領軍のほか約六万の警察が組織せられるものと見られております。

こういうわけで今回の國連の總會におきましては、大韓民國に全鮮政府としての正式承認を與えんとする米、英、中國以下の陣營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が、朝鮮人民の民族意思の正当な表現であるとしておりまするソ連圏諸國との間に激しい論戦が展開されることが予想せられるのであります。撤兵の問題もこれに絡むわけでありまして、今度の總會審議の歸結を前にいたしまして、朝鮮問題は大きな問題になつておるわけであります。(衆議院 不当財産取引調査特別委員會 36号 1948年6月24日)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 5월~8월 「대공보」의 신문기사 분석—

임 상 범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 5월~8월 「대공보」의 신문기사 분석—

임 상 범 (성신여대 사학과)

1.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났는가?
2. 국가 건설을 위한 민의 수렴과 정통성 확보 과정을 살펴보다 : 총선 실시
3. 국가 건설의 주도권 다툼에 관심을 기울이다.
 - 1) 국회 구성과 헌법 제정
 - 2) 총통 선거와 정부 조직
4. 국가 건설의 주도권 다툼에 관심을 기울이다 : 단독정부 수립과 내전 문제
5. 중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1.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났는가?

중국은 무협을 통해 내 상상의 세계로 들어왔다. 매일 밤 나의 꿈을 사로잡은 그 상상계로 인해 나는 중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변화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했던 고등학교 시절,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상상에서 삼으로 나의 관심을 옮겨가게 했다. 나는 욕망 가운데에 살아 꿈틀대는 그들을 알고 싶었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대학 시절에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유토피아와 연결되었지만, 그것도 '텐안먼 사건'과 함께 희미해지면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폭력을 직시하게 되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중국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다.

그런데 언제나 내 곁에 있던 중국에게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사 연구자로 제한했던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최근까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본 심포지엄은 내게

새로운 관심사를 제공했다. 내게 주어진 과제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948년에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만났는지’였다.¹⁾

나의 게으름 탓인지 모르겠으나, 1948년 당시 ‘중국이 남북한 정부의 수립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식견도 갖추지 못했다. 다행히도 심포지엄 준비위는 내게 가능하면 동시대 ‘건국’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특정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 정부기관 자료와 같은 일차자료를 발굴 정리하는 형태로 발표문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20세기 전반기 동안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공보(大公報)』라는 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준비하고자 한다.

『대공보』는 1902년 텐진(天津)에서 잉리안즈(英斂之)에 의해 창간되었고, 1929년 9월 1일 우딩창(吳鼎昌)·후정즈(胡政之)·장지환(張季鸞)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대공보』의 논조는 시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었는데, 1941년 9월 충칭(重慶)에서 병사한 장지환을 뒤이은 왕원성(王芸生)은 국민당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1948년 1월 상하이로 본사를 이전한 『대공보』는 내전의 책임을 공산당에 돌렸지만, 국민당에 실망한 1948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들을 본격적으로 게재했다. 논조의 변화에 대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대공보』를 비난하기도 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대공보』는 나름대로 자유주의자의 신념에 따라 중간노선을 강조하며 다당제의 실시를 주장했다.²⁾

그런데 우리가 신문 기사를 살펴볼 때, 신문사는 대부분 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당시 『대공보』는 주로 ‘중앙사(中央通訊社)’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았는데,³⁾ 중앙사의 한국 주재 특파원이 직접 보낸 것도 적지 않았다.⁴⁾ 중앙사는 국민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통신사로 국민당의 공식 기관지인 『중앙일보(中央日報)』⁵⁾와도 직접 관련되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중국 신문사들은 중앙사의 기사를 전재했다. 따라서 1948년의 한국 상황에 대한 『대공보』의 논조를 살펴보면 우선 논설, 다음 『대공보』만의 독자적인 인터뷰 기사, 마지막으로 중앙사 기사를 부분 전재할 때 다른 신문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한편 중국이 우리를 만났던 1948년은 중국인에게는 국가 건설의 방향을 결정할 ‘결전의 한 해였다’. 장제스(蔣介石)는 신년 축하문에서 “헌정(憲政)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필사즉생의 각오로 공산당을 물리치고 건국을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헌정의 실시는 장제스의 입에 발린 소리만은 아니었다. 웨드마이어는 장제스가 진정한 개혁을 추진해야 미국이 실질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한 개혁은 공산당은 물론 민주당파조차 정부 기구에 포함되

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친미 중간파 세력들이 정부에 참가해 장제스를 견제해서 국민당의 부패를 방지하기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1947년 11월부터 국민당 통치지구에서 선거 활동이 전개되었고, 1948년 3월 하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민대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총통과 부총통을 선출했다. 상투적인 정치 술수를 거쳐 장제스가 총통으로 선출되었는데 보다 복잡했던 것은 부총통의 경선이었다. 장제스는 가장 유력했던 라이벌 리풍런(李宗仁)을 견제하기 위해 쑨커(孫科)를 대항마로 내세웠지만, 리풍런이 4월 25일에 경선 포기를 내세우며 기습을 가하자 쑨커는 할 수 없이 사퇴했다. 부총통에 당선된 리풍런은 장제스와 함께 1948년 5월 20일 난징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국민당 내부에서의 정치적 다툼과 무관하게 6월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경제면에서는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았다.⁶⁾ 1948년은 중국과 중국인들이 선거와 헌정으로 대변되는 민주 경제 건설, 국가 건설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자리 다툼과 내전, 국가 건설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물가 정책과 경제 건설에 관심을 기울였던 시기였다.⁷⁾

사람들은 대부분 일차적으로 자신의 관심과 관점에 입각해서 타인을 살펴보고 한다. 중국 신문사는 국외 소식이라도 중국인이 1948년에 가장 관심 가졌던 위와 같은 화두를 염두에 두면서 선택해 서술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당시 중국인들의 ‘관심들’을 고려하며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2장에서는 국가 건설을 위한 제도 성립을 총선 과정 및 그 이후 국회 구성과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는 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을 총통 선거와 정부 조직 과정 및 단독정부 수립과 내전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들은 1948년 중국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었던 것들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자들과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만 아니라, 자신들의 반면 교사이면서 자신들의 관점을 대리할 수 있는 기사였을 것이다.

2. 국가 건설을 위한 민의 수렴과 정통성 확보 과정을 살펴본다 : 총선 실시

미국은 1947년 9월 17일에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아래 자유선거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제시했고, 그해 11월 14일 이 안건은 유엔에서 43대 0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전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북한이 반대하자 1948년 2

월 26일에는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총선거론이 결정되었다. 한편 4월 14일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북한에 의해 제기되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5월 10일 남한의 단독선거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 가는 5월 초였다.

5월 4일, 『대공보』는 선거 감시를 담당할 유엔 조선위원회 비서장인 후스찌(胡世澤)가 상하이에서 발표한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게재했다. “5월 10일의 보통선거는 계획대로 거행될 것이며, 장래 조선의 정세는 투표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동시에 미국과 유엔은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기대하지만 공산당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⁹⁾ 이렇게 남한의 선거를 둘러싼 미국과 유엔의 의도는 중국인들에게도 명확히 알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대한 한국의 여론과 상황도 긴박하게 언급되었다. 평양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 참가했던 김구와 김규식이 서울로 귀환하면서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병을 요구한다⁹⁾는 소식은 미국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로 제기되었다. 또한 10여 개 당파와 단체가 선거에 참여하겠지만, 동시에 각지에서 소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상황 보도¹⁰⁾는 선거의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공보』는 상하이의 대표적인 신문인 『신보』와 달리 선거를 둘러싼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남한의 단독선거에 대해 반대하고 김구와 김규식의 북조선행의 성공을 축하하는 친 김구계 베이징 거주 한국인 이충모(李忠模)와의 전화 인터뷰 기사를 선거전날인 5월 9일에 게재했다. “자신은 두 사람의 통일 공작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일본의 항복 당시 각 당파의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갈구했다. 지금까지 본인은 미국, 유엔과 중국정부에 남북 지도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의 실패에 유감을 표시한다. 이승만 박사와 일본의 추구를 제외한 각 정당의 지도자와 대부분의 인민들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실령 미국의 강제아래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만들어져도 오랫동안 존속하리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다만 현재 애국자와 반동분자의 구분이 명확해져서 장차 가장 강력한 민족진영이 출현할 것이고, 혁명가는 주의를 불문하고 새로운 진영을 결성해서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분투하고 타국의 간섭과 협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낙관적이다. 나는 김구 선생과 새로운 혁명진영의 지도자인 김규식, 조소앙, 홍명희 선생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¹¹⁾

반면 『신보』는 5월 7일자 논설에서 직설적으로 단독선거를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는데, 동시에 중간파의 입장을 대변했던 김구에 대해

서도 비판적이었다. "미국의 입장이 명백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남한의 단독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다른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 남북 조선의 대립과 충돌은 날로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조선은 제3차대전의 도화선으로 될 수도 있다. 남한의 단독선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조선인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결과는 분열된 남한 정부를 성립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김구의 반대는 소련에 이용당할 뿐이다. 조선의 정세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대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첫째 조선인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고 미소양군의 분할 점령으로 조선에 대해 분열정책을 실시한 꼴이 된 것이다. 둘째 조선의 남북분열은 경제적으로도 조선에 치명상을 입혔다. 셋째 미국의 일본 부흥 정책이 남한의 민심을 잃게 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변화시킬 때이다. 만약 원래의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면, 동방의 화약고를 폭발시킬 수도 있다."¹²⁾ 한편 정부 기관지인 『중앙일보』는 선거전의 혼란상과 함께 단독선거의 결과가 우익들의 전면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예보하고 있었다.¹³⁾

어쨌든 10일에 거행된 선거 결과는 최소한 외관상 중국인들이 직전에 경험한 '국민대회 선거'보다 성공적이었다. 대공보는 다음날인 11일자 신문에 로이터사와 중앙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소규모의 소동이 각지에서 일어났지만 공산당의 파괴 공작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모든 후보가 우익이었지만 선거민의 80%가 투표에 참가하는 자유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다.¹⁴⁾ 『중앙일보』는 이에 덧붙여 서울주재 중앙사 기사가 직접 새벽에 50여 곳의 선거소를 방문했는데, 약간의 경찰이 총검을 꽂은 소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선거에 간섭하려는 기도는 보이지 않았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소 직원도 보이지 않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음을 강조했다.¹⁵⁾ 이후 『대공보』를 비롯한 중국의 신문들은 남한의 정황이 평온을 되찾아갔고, 그 결과는 이승만의 승리로 나타났음¹⁶⁾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 마샬은 선거민의 90%가 투표에 참가한 사실을 들어 공산당의 방해공작이 실패하고 민주 선거가 성공해서 조선 인민의 정부가 건립되었음을 축하했다.¹⁷⁾

그러나 선거가 미칠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조차 비판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었다. "남한의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 목적은 우선 자주정부를 수립한 뒤 조선의 통일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한의 우파 지도자 김구와 자유주의자 김규식이 모두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파괴하려고 했

으며, 선거 이후에는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다. 남한의 선거는 남북분열의 시작이다. 전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을 방비하는 전략기지의 쟁취를 목표로 삼고 조선을 통제하려고 한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 선거에 참가한 후보는 극우파인 이승만과 김성수가 이끄는 정당뿐이며 자유주의적인 우파와 중간파조차 참가를 거절해서 대표성과 호소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미국의 정책은 상당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조선인은 미국이 일본을 도와 부흥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¹⁸⁾

『대공보』의 18일자 사설 「남한의 선거」는 단독선거와 미국의 정책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그들은 이 글을 통해 얼마 전에 시행되었던 ‘국민회의’ 선거를 다시 한 번 비난하고 장제스를 루이 14세로 비교려는 듯했다. “남한의 선거는 한국 인민의 통일 요구를 이유도 없이 말살했다. 현재 미소 철군, 통일 선거, 독립정부의 건립에 대한 조선인의 요구는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제멋대로 단독선거를 실시했다. 남한 선거는 민의를 측정해서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원래 의도를 무시하고 모든 후보를 우파로 도배했으니 선거 결과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자신은 조선을 대표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공산당이라는 이승만의 말은 더욱 얘기할 것도 없다. 대표적인 우파인 김구조차 그를 반대하고 있으니, 단 한 명의 상대도 없는 선거는 거행할 필요조차 없다. 민석린에 따르면, 남한의 경찰은 모두 일본시대의 낡은 인물들이고 항일 혁명가들은 모두 배척당했다고 한다. 일본은 남한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현재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민족 독립사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합법화될 것이다. 미국 민주정치와 진면목이 남한에서 드러났다. 남한 선거는 조금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었다. 800만 명의 선거인은 6만 명의 무장경찰과 100만의 민단의 ‘보호’ 아래 투표장에 끌려 나갔는데, 남한 인민이 그들의 정부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단지 괴뢰정부를 만들려고 했으며, 조선이 두 개로 나뉘어 극동의 상황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¹⁹⁾ 한편 『신보』도 선거와 그 이후의 조선 정국에 대해 『대공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²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김구와 김규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3. 국가 건설을 위한 제도 성립 과정을 살펴보다

1) 국회 구성과 헌법 제정

누가 무엇이든 비판해도 남한의 단독선거는 현실이었고, 이제 과제는 제헌국회를 구성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남한의 단독선거를 거 세계 비판하면서도 『대공보』는 중앙사 특파원이 조선의 유력자를 통해 얻어낸 앞으로의 정국 정황을 게재했다. ‘조선의 첫 번째 의회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거행될 것이며, 여기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조직할 것이고, 신정부는 곧 최소 1억 달러의 차관을 미국에게 요청할 것이다.’²¹⁾

당시 대공보는 중앙사와 타스사가 보내주는 기사에 따라 제헌의회의 상황을 보도했다. 유엔 한국위원회 대표가 식장에 출석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 인사가 곤혹스러워했지만, 제헌의회의 1차 회의는 5월 31일 개최되었다.²²⁾ 여기서 주석에 당선된 이승만은 전세계를 향해 조선공화국이 탄생했음을 선포했다.²³⁾ 제헌의회의는 정부 성립과 총통 선출에 관한 헌법 제정,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모색, 경제문제 해결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수만의 학생과 청년들이 “소련은 조선에서 물러나라”, “우리는 국방군을 건립하고자 한다”라는 표어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²⁴⁾

제헌의회의의 개막을 알리는 기사 이후, 대공보는 6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상황에 대해 그다지 주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격렬해지는 내전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국제적으로는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이후 심각해지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립 및 미국의 유럽 원조에 관심을 기울였다.

서독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점차 격해지는 7월초 한국은 다시 한 번 중국 신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당시 『대공보』는 주로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에 대해 간단한 사실 보도에 치중했다. 서울 주재 중앙사 특파원은 제헌국회에서 7월 5일 헌법 초안을 논의한 결과를 타전했다. 수천 년간 ‘조선’, ‘고려’, 혹은 ‘고구려’로 국호를 삼았던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결정했다. 한국의 헌법 초안은 중국의 헌법을 저본으로 삼았는데, 『대공보』 기사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6조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를 신성한 의무로 한다’에 대해 특히 관심을 표명했다.²⁵⁾

2) 총통 선거와 정부 조직

- 1948. 7.20.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 1948. 7.21. 통일독립촉진회의 반대 선언
- 1948. 8.15. 이승만의 정부 수립 선포로 대한민국 성립

헌법을 통과시킨 남한 국회는 14일에 민주정부를 정식으로 성립시킬 것을 의결했고, 신정부는 남한 미군당국의 업무를 접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소련 점령 아래 있는 북한의 공산당 괴뢰들도 소련식 헌법의 효력 발생을 선포했고, 8월 25일에 자신들의 선거를 치를 것을 밝혔다. 결국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신의 정부를 합법화하는 과정을 진행시켰다.²⁶⁾

『중앙일보』와 『신보』는 사실을 통해 자신들의 관점을 밝혔다. 우선 7월 14일자 사실에서 『중앙일보』는 중국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총선'은 동유럽의 선거와 같이 민주적으로 치뤄질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며, 중국이 지지하는 정부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탄생해야 하며, 북한과 같이 민주를 위반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행동을 선택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동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²⁷⁾

<신보 : 사실>1948.7.17.
강권정치와 한국의 비극, 596쪽.

10일자 중앙사의 기사는 선거 결과 이승만이 승리하면 한국이 중국 측에 기울게 될 것이며, 반면 김성수가 승리하면 일본측에 기울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의 정부 형태가 총리가 주도권을 갖는 프랑스식이 될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미국식이 될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²⁸⁾ 이 기사는 대공보 11일자 신문에도 게재.

<대공보 : 남한의 총통 선거>1948.7.20.

南韓今天選總統，內閣人選下月可決定，中央社漢城19日專電，韓國國會於休會兩日後，定明晨秘密投票，選舉大韓民國總統，韓國政府之組織至此可趨於具體化，副總統之選舉，定明日下午舉行，各政黨之間對總理人選以及國務會議(亦即內閣)11位部長之抉擇，預料需經兩周商討，始可協議，故政府之組織約在8月15日以前可以完畢，按諸韓國憲法，各部部長及總理皆由總統任命，惟總理人選需經國會同意，李承晚博士及李始榮預料必可當選為正副總統，徐載弼氏原為李承晚勁敵，惟現已聲明不參加競選，即如當選，亦將拒絕接受。²⁹⁾

<대공보 : 이승만의 총통 당선과 중한 양국의 정보 단절 상황>1948.7.21.
李承晚當選韓總統，聯合國代表即不予承認，中央社漢城20日專電，李承晚博士於今

晨11時50分由韓國國會選舉爲大韓民國總統，任期四年。然聯合國赴韓代表團昨突通知韓國國會，謂并未承認其具有國家之資格。…中央社漢城20日專電，中韓原屬同文，韓方文物且幾完全承認自我國。惟戰事結束以來，韓國首府之漢城竟至無法購到任何我國出版之中文書籍，中文報紙亦不能見到。據一般華僑及往來中韓間之韓人談：南韓美軍政府禁止中文書籍進口，甚至來往旅客所携一、二份中文報紙於登岸時亦被港口人員檢扣。³⁰⁾

<신보 : 사실> 1948. 7. 22.

한국독립통일의 서광 : 이승만 박사 초대대통령 당선 축하, 601쪽.

<중앙일보 : 사실 李承晩當選韓國總統> 1948. 7. 22.

한국 독립민주정부의 최고 책임자의 선출 소식에 우리는 모두 기뻐한다. 조선 독립은 소련과 한국 공산당의 방해로 받았지만 마침내 조직되기 시작했으니 민주세계의 일대 쾌거이다. 이승만과 이시영은 한국 독립운동의 거두이다. 우리 동북과 한국은 국제연군의 위협아래 있는데, 양국의 애국 국민의 계속된 노력으로 주권국가의 평등합작으로 원동 화평과 안전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중한 양국 애국 국민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전세계 화평을 애호하는 인사들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대공보 : 이승만의 취임과 무당파 인사들의 집단 행동> 1948. 7. 24.

韓國新總統李承晩今天就職，內閣總理日內可提名，中央社漢城23日專電，李承晩與李始榮定24日午前10時正宣誓就任正副總統新職，至內閣總理之正式提名猶有對於本月27日，又此間報道一重要事件稱：國會內無黨派人士120名昨會召集緊急會議，并即席簽名決議反對極端右傾之韓國民主黨黨員被提名出任政府中內閣總理，內政及國防部長等要職。據傳，李承晩會允‘考慮’無黨派人士之意見。又根據憲法規定，任命內閣總理必須由國會批准。³¹⁾

<대공보 : 이승만과 의회의 내각선정을 둘러싼 모순과 그 원인의 하나인 지역색> 1948. 8. 1.

南韓內閣難產，李承晩與議會矛盾日深，民主黨內部也發生裂痕。中央社漢城7月30日專電，自李承晩爲政府首次提出之總理人選被國會否決後，李氏在提名方面遭受之困難不僅使渠與國會間之矛盾已趨表面化，且使南韓勢力最大之政黨韓國民主黨黨員間亦發生內部裂痕。李氏定今日另提總理人選，渠明告國會云：爲提名事，渠之處境

殊爲困難，因本月7日李允榮提名之被否決，乃國會有有人在幕後操縱故也。韓總統復坦然宣稱：渠固知國會若干有力政治集團內部已有約定，即除非渠等本集團之人獲得提名，對其他總理人選皆不予支持。李氏作此談話後，使情勢至爲混亂。迨至最近尚與李氏密切合作之韓國民主黨極右翼集團之盧立繞曙氏於聆悉李氏此言後，嘗要求總統收回此項意見。渠指責李氏爲‘獨裁者’，其言行儼然‘帝國主義日本之大皇’。至此，民主黨主任秘書尹致英突高聲吶喊盧氏下台，斥盧氏爲‘國賊’，并稱：國會議員對元首應有相當之尊敬。尹氏驅逐盧氏之同意，博得不少議員之掌聲，但會議停止時，對此并未作決定。尹氏旋宣布渠將退出民主黨。消息靈通人士稱：尹氏此舉，將有若干黨員起而響應，但欲李承晚與國會間之能完全言歸於好，則尚有困難。又據稱韓國民主黨實際係由反李之湖南系與雍李之嶺南系兩大派系組織而成者。³²⁾

<대공보 : 남한의 미국원조 요청>1948.8.2.

中央社紐約7月31日專電，…此外，并要求美國貸款韓國，助其復原。韓國要求美國立即承認其爲一主權國家，并擬於9月申請加入聯合國。³³⁾

4. 국가 건설의 주도권 다툼에 관심을 기울이다 : 단독정부 수립과 내전 문제

<대공보 : 한국 독립에 대한 김구의 부정적 시각>1948.5.20.

朝鮮獨立暫難實現，金九決退隱二三年，待獨立在望時再出山。中央社漢城18日專電，…中央社記者今日與此七十三高齡之革命領袖晤談時，渠以外交司令暗示對“短期休養”事尚未作最後決定，…渠稱：金九自知此時不能求得韓國之獨立，故願暫時歸隱，至獨立在望時再出而盡力。³⁴⁾

<대공보 : 김구와 김구식의 남북통일 운동>1948.5.26.

朝鮮統一運動，南北統一委會將成立，金九金奎植都是領袖，中央社漢城24日專電，自金九最近發表聲明，說明渠已改變初衷，決定不接受醫生勸告麻谷寺作短期休息後，今又獲悉南北韓統一促進委會可能即將成立，金九及金奎植即爲該會領袖。³⁵⁾

<진수일보 : 남조선에서 미군 철수 주장의 소개>1948.3.3.

南鮮人民再度示威要求美軍撤離朝鮮。新華社陝北28日電，漢城訊：…要求美軍立

即撤出朝鮮，讓朝鮮人民決定自己的命運。³⁶⁾

『중앙일보』는 5월 12일자 사설을 통해 남한의 선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현재의 정세로 보건대 북한의 합작은 기대하기 힘들니 통일도 완성될 방법이 없는 듯 싶다. 통일이 힘들다면 선거 이후 한국 내외의 모습은 더욱 침예해질 것이다. 우선 북한은 독립정부를 세워 대항할 것이고 시기가 성숙되면 반란을 일으켜 한국을 아시아의 그리스로 만들 것이다. 다음 한국의 각 민주당파 내부의 분열이다. 현재 우리는 김구가 다른 민주당파와 합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하나 문제는 미소 양군의 철병이다. 한국이 독립하면 외국군의 철군은 당연하지만, 북한이 2년간 철저한 준비 끝에 50만의 무장부대를 양성했지만, 남한에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 병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공산당은 북한에서의 외국군 철수를 실시해서 자신들의 독립성을 증명할 것이며 동시에 미군의 철병을 호소할 것이다. 만일 미군이 철군하면 북한은 즉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 남한을 석권한 뒤 형식적인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영원이 독립과 자주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견해가 얕은 사람들은 공산당의 철병 주장에 이용되고 있으니 한국의 앞날이 우려스러운 바다. 더욱이 한국공산당의 무장부대 일부가 이미 중국의 동북에 진입해서 국제연합군을 만들고 있으니 한국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한국 자신의 존망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중대한 문제이다.³⁷⁾

<대공보 : 미국 교포의 남한 정세 담화>1948.5.30.

美國韓僑協會會長，金揚榮談南韓局勢，李承晚金性洙可能合組政府，惟只能在美國支援之下存在，籲請議員防止朝鮮淪於內爭，中央社華盛頓28日合衆電，美國韓僑協會會長金揚榮稱：根據朝鮮選舉結果，李承晚或有出組南韓政府之勢，但其地位必呈不穩之現象，…金揚榮并表示，李承晚可能與金性洙共組聯合政府，但亦僅能在美國支持下維持其壽命，國民大會召開在即，金氏會要求所有議員注意防止反動且令人難以忍受之政府之產生，此種政府一旦產生，則將迫使一切自由勢力走入地下活動，而使國家淪於內爭及自毀之途徑。³⁸⁾

<대공보 : 김구의 북한 단독정부 수립 방안 반대론>1948.7.22.

金九聲明反對北韓成立政府，本報南京21日專電，新亞社漢城19日電(遲到)：平壤電台前會廣播北韓預定8月25日成立人民政府，韓國獨立黨業已發表聲明，堅決反對，黨魁金九迄無表示，但18日金氏從於打破靜默，發表反對意見，金九認為北韓成立單獨

政府，有背今年4月在平壤舉行之南北韓政黨聯席會議精神，不予同意。此項意見適在南韓選舉總統前夕發表，各方對之俱極主義。³⁹⁾

<대공보 : 남북한의 대립 상황>1948.7.26.

南韓美軍定期撤退，李承晚政府行使職權，對治安最感困惑，蘇拒絕恢復電力供應。中央社東京25日專電，…華府7月2日訊稱：美已派定駐新朝鮮共和國之外交代表，其後2日，北韓人民議會宣布：2月初曾經平壤電台首先透露之北韓憲法將立付實施，其後48小時，南韓國會通過憲法，並宣布其對韓國全境均屬有效，…美軍自南韓撤退後，此新生之共和國所最感困惑者，厥唯治安問題，…中央社記者本年1月曾報道，唯一將交由新朝鮮政府支配之武裝部隊之警察總數約有4萬8,000人，比照之下，蘇方在北韓所訓練之‘人民軍’約有15萬人。⁴⁰⁾

<대공보 :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문제점>1948.7.27.

社評：朝鮮—遠東的火藥庫，由於柏林問題的緊張，回頭看東方，我們憂慮着美蘇衝突的前哨—朝鮮，那裏也埋藏着一個火藥庫。

李承晚已於本月20日當選為韓國首任總統，李始榮當選為副總統。表面上，南北朝鮮的對立並沒有新的發展；然因二李當選正副總統，南北朝鮮統一合作之門已閉，本年4月初，在南韓單獨選舉前，朝鮮南北各政黨，不分左右中間，集會於平壤，做成議案，發表宣言，要求統一，反對分裂，乃霍奇將軍李承晚等漠視朝鮮民族這點願望，絕不取消或變更單獨選舉，5月10日在戒嚴令下進行武裝普選，親美親日的右派集團，並無競選對手，當然全勝，按照既定的程序，於5月31日選出議長李承晚，李氏遂宣布“朝鮮共和國重生了”，同時要求：“美國軍隊應留駐朝鮮”，朝鮮共和國已經獨立，但需要留得美軍保護，此時南韓政團又集議表示反對，6月4日金九金奎植等決議推選六人組織統一運動委員會，南韓臨時政府民政長官安在鴻也於6月8日提出辭職，與二金合流，贊同統一，李承晚仍置之不理，本其計劃，一途躁進，單調議會，積極制憲，7月12日“大韓共和國憲法”完成三讀，17日正式公布，遂定於20日由議會間接選舉正副總統，程序火急，不稍停留，由是李承晚議長加銜為總統，李始榮副之。

在李承晚完成民主程序之日，就是南北韓統一問題走到絕路之時，認為大韓共和國是應該統一朝鮮的，事實上李承晚不能統一，大韓憲法應該是全朝鮮的憲法，事實上北韓並不遵行，國民議會應該包括各黨派及全國各地方代表，事實上現在議會與議員，乃李承晚金性洙的囊中物，韓國正副總統應有全國選出，應得全國人民的擁護，事實上二李乃靠外力，在國內則形勢孤立，這幕戲草草演完，即以議會，以憲法，以總統，拒絕北韓合作，及壓迫異己黨派，革命元老金九卒被排斥，這完全是分裂朝鮮，製造內戰。

違反全朝鮮民族願望的辦法。

現在朝鮮分裂之局已成，北韓是否成立那一面的‘人民政府’，並不重要，重要在南北對峙，已不可妥協調和。北韓對南韓的李政府，當然不會就範，南韓內部的紛擾更多，6月29日至7月5日，平壤舉行第二次全國各政團會議，南韓由10餘個政團參加，他們指出，單獨選舉的目的，是要“使國家解體，使南韓受美國的奴役，變成美國的殖民地。”因此他們宣布國民會議為非法，他們又指出：“大韓憲法草案(當時還未通過)是“反動的，反民主的。”“有了這部憲法，構成全國人口主要部分的勞動人民，就沒有任何政治權利或經濟權利了。”他們不能承認，對正副總統當然也不承認，他們號召全國人民，“為國家的統一而鬪爭，為基於人民意志的自由表現，建立一個真正民主的統一的立法機關，建立一個全國統一的政府而鬪爭。”就是說，在朝鮮內部，反對南韓政府的風暴正在形成中。

為此，南韓政府更加依賴靈奇將軍了，李承晚一面請求美軍繼續留駐南韓，堅決反對蘇聯及北韓建議的‘美蘇同時撤軍’，一面在訓練着20萬美式配備部隊，據說，北韓已有12萬5千軍隊，一說25萬，駐韓美軍當局更事張皇，本月初會說：“戰事將於7月開始，屆時所有蘇軍將自北韓撤退，然後北韓人民軍南下，擊潰南韓政府，戰至聯合政府成立為止。”據說是獲得了共黨秘密文件，所以知悉北韓的計劃，7月快過去了，然謠言并未過去，也可以說，謠言的存在就是內戰的危險存在，靈奇將軍便於此時機，大量訓練南韓軍隊，誰都知道，南韓美軍是受麥克阿瑟元首節制的，日韓構成一個戰略單位，委帥援助日本復興，南韓是其一部分，雖然說，在戰略上南韓是美國的危險地區，2萬3000名美軍，不足以當守衛之任，但美國在遠東的戰略地位，以日本為中心，自甚優越，假使大戰在朝鮮爆發，美式日軍便可潮湧增援，據合衆社本月20日東京電，日本人對戰爭躍躍欲試，興趣十分濃厚，美日和南韓結成一條戰線，點上一把火，朝鮮這火藥庫隨時可能爆炸。

朝鮮與其他弱小國家一樣，是被作弄於強勸政治的危險圈內了，美握南韓，蘇佔北韓，各有一套，也各有其準備，世人現正注目柏林的危機，恐怕由柏林爆發三次大戰，其實在朝鮮的北緯三十八度，也正在儲備着火藥庫！⁽⁴¹⁾

<중앙일보 : 한국 독립정부의 성립>1948.8.7.

한국의 독립은 일치한 한국인민의 분투와 연합국의 전적인 협력 덕분에 요행히 성공했다. 우리는 중국인을 대표해서 치하한다. 보선 당시의 상황은 매우 험난했다. 한국인민의 일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방해로 전체 한국의 독립 자주는 파괴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이 총통에 선출되고 8월 12일에 행정권이 완전히 이관될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통제아래 있는 평양 정권은 파괴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은 오랜 험난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문제가 역량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의 진정한 독립, 통일, 민주를 바라지 한 당파에 대해 편애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 통일을 파괴하는 반민주 역량을 등정하지 않는다. 이에 새로이 성립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신속히 승인하며, 정식 외교 사절을 교환하고자 한다.

<대공보 : 북경 거주 한인 李忠模와 천진 대공보 기자의 >1948.5.3.

李忠模談韓國前途, 新的建國理想容易實現, 只要美蘇駐軍同時撤退, 不會有兄弟鬩牆的內戰, 本報北平電話, 前天晚上北大國際政治研究會舉行了一次座談會, 邀請在平韓僑領袖李忠模等參加, 討論韓國最近的政治情形, 李忠模在會上答覆了中國方面人士很多的詢問, 他說: 平壤會議的產生不是偶然的, 對於朝鮮的統一事業, 金九先生早以五個條件提交美國, 美國不能接受, 於是又提交北韓, 蘇聯接受了, 這五個條件就是: (1) 反對無產階級獨裁; (2) 反對資產階級獨裁; (3) 承認私有財產; (4) 反對美蘇以朝鮮為基地; (5) 美蘇撤退在韓駐軍, 李氏據說: 蘇聯在北韓實施地下工作, 美國上一節行政責任都交由韓人負責, 蘇聯沒有什麼? 人攻訐的理由, 美國在南韓, 只是將日本的總督府的牌換成了美國的軍政廳, 其他人物, 日本時代人物沒有變更, 這種美國化的落伍統治, 是美國的??, 美國政府本來有意支持李承晚, 但露奇將軍對他并不??, 露奇重用韓奸附??分子, 因那些日本走狗在國內有經濟基礎, 文化水準較高, ??英稱, 會逢仰美國人, 日本投降前, 韓國四大黨共有黨員不過四百人, … 以產生全國性政黨, 這次平壤政治協商, … 已經組成統一對策委員會, 希即成立過度政府, 南韓普選及北韓平壤會議以後, 韓國并不定像中國似的發生內戰, 真正韓國人民并不希望有任何一種軍隊, … 美蘇在南北韓, 為支持他們自己政策所樹立的軍隊, 韓人??討厭, 都希望他們解除武裝, … 日本投降兩年而來, 在韓國已經產生了正統的革命陣容, 這個正統陣容的產生, 是因為美蘇分治對韓人的壓迫比日本還厲害, … 這個正統革命陣容, 可以保證韓國不會有兄弟關係的內戰, … 關於韓國的建國理想, 李氏主張不必建設成蘇聯型國家, 他認為蘇聯雖然是世界上第一個打倒資本主義的國家, 但是假定全世界各民族的總目標都是共產主義, 蘇聯將來可能成爲一個最落後的國家, 認為他以資本主義最高的標準, 做爲共產主義最低的標準, 事實上是不可能的, 韓國要想達成一個新的建國理想, 最容易, 認為韓國在日本統治時, 全國百分之七十經濟在日本手裏, 日本打到, 這 … 經濟應歸韓國政府, … 所以美蘇軍隊如果撤出韓國, 使韓國人民自己組織政府, … 來提高人民的生活與文化, 韓國的建國理想是很光明而且容易實現的。⁴²⁾

<대공보 : 김규식의 미국 비판과 내전의 위협 경고>1948.5.7.

南北韓比較觀, 金奎植返漢城招待記者, 稱讚北韓指責南韓腐敗, 舊金山6日廣播, 合衆社漢城電, … 他又說: 北韓共黨政府口頭答應, 如果沒有內戰, 將繼續供應南韓水電, “我想他們的意思是說將有內戰”(43)

<중앙일보 : 김규식의 미국 비판과 중국내 조선 공산당원 군대 소개>1948.5.7.

聯合社六日漢城電, 朝鮮自由黨領袖金奎植本日將南韓之腐敗歸咎於美國佔領當局, … 金氏稱: 在東北, 中共八路軍中有二十萬人自組北韓人民軍,(44)

<중앙일보 : 소련군과 미국군의 동시 철수 주장>1948.5.9.

聯合社八日漢城電, 平壤電台本日廣播蘇佔領軍司令柯洛科夫之聲明稱: 蘇軍已完成一切準備可以立即撤離南韓, 俾使美國軍隊亦同時自韓境撤退,(45)

<대공보 : 제주도 사건 소식>1948.5.29.

南韓騷亂未已, 警察廳長昨飛濟州島, 舊金山28日廣播,(46)

<대공보 : 이충모의 한국 통일운동 소개>1948.6.6.

李忠模談韓國統一運動, 本報北平電話, 李承晚在南韓國會中宣布朝鮮共和國已成立, 在平之金九私人代表李忠模說: “如此成立朝鮮共和國, 不是朝鮮人民的希望, 不過南韓黨派甚多, 使致力於韓國獨立統一者遭遇不少困難, 現在南韓有了一個政府, 作爲南北韓統一運動的交涉對象, 亦未始不可因禍得福, 惟將來統一如遭受阻力, 李承晚應負歷史上的責任.” 李氏并表示, 金九與金奎植兩氏在朝鮮未獲統一前, 絕不擔任任何政府義務, 現兩氏在漢城主持南北韓統一委員會, 此委員會受北韓及全體人民支持, 現美軍當局對此委員會已採取容忍態度, 平壤會議所決定者, 仍有實現可能, 故金九已放棄退隱計劃, 繼續致力於韓國統一運動,(47)

<대공보 : 평양개최 남북한 정당연석회의의 통일 방안>1948.7.11.

南北韓政黨再度會商, 決反對南韓單獨政府, 將組最高人民會議中央機構, 本報上海10日專電, 新亞社漢城訊: 此間接獲平壤廣播, 使一般人均感覺此項消息之突如其來, 平壤廣播稱: “第二次南北韓政黨宴會會議, 會於6月29日再平壤開幕, 至本月5日結束, 會後會發表聲明一項, 要點有: (1) 破壞南朝鮮單獨選舉之國民會議, 倘由此會議產生南朝鮮單獨之政府, 亦將予以破壞, … 據平壤廣播稱: … 會議中并會由南韓方面勞動黨代表朴憲承及北韓人民委員會委員長金日成分別報告, 在第一次南北韓政黨

宴席會議後之工作情形。⁴⁸⁾

<대공보 : 이범석의 총리 임명에 대한 관점과 이의 내전 관점>1948.8.3.

南韓國會通過，李範奭任總理，他是韓民族青年團長，認南北戰事無法避免，中央社漢城2日專電，前在我國中央訓練團受訓畢業戰時曾在我國軍隊中擔任遊擊隊領袖之韓國右派人士李範奭少將今日經韓總統李承晚提名為第一任內閣總理後，業由國會以110票對84票表決通過，現年49歲之李範奭任民族青年團團長，該團共有團員……政界人士認為：韓總統李承晚之遴選無黨無派之李範奭為總理，係屬明智之舉，李氏之作此種提名，不僅其本身免於政治集團之強大壓力，且已使中美人士感及滿意，一方面亦多少取悅於金九，金奎植派，李範奭乃重慶韓國臨時政府之一分子，故與金九不無關係，此間美國人士認為係一愛國明快幹練之人物，其所主持之韓民族青年團，實際與我國之中央訓練團相類，範圍較少，乃為南韓數十青年團體中每年領取美佔領當局津貼兩千萬韓幣之唯一青年團體，李氏對華之親善無可置疑，渠畢業於雲南講武堂第十二期，及重慶中央訓練團第三期，渠曾在華居住25年，在俄8年，在歐1年，按渠於最近晤見中央社記者時會稱：渠之事業，大受蔣總統人格及偉大領袖才能之鼓舞，渠并表示南北韓之戰事無法避免。⁴⁹⁾

<대공보 : 총리 이범석의 기자회견담, 통일과 내전의 전망 및 중국과의 연합>1948.8.8.

南韓新揆預言內戰，他要藉友邦之助統一全國，并主張中韓兩國聯合反共，中央社漢城7日專電，南韓總理兼國防部長李範奭將軍於昨夜接見中央社記者時稱：倘南北韓間發生武裝衝突，此將非內戰，而係為保衛全體韓人利益之戰，李氏稱：韓國將藉各友邦之助，主動為韓國之建設及統一而努力，渠相信韓國乃為一完整之個體，不能本任何地理種族或文化觀點而加以分割，渠稱：一俟南韓‘真空狀態’得以填滿，則統一全國并無若何困難，按所謂‘真空’之意何在，李氏未予詳言，諒係指目前南韓無充分國防而言，倘美軍撤退，南韓即無法抵抗北韓共產黨之攻擊，……渠稱，渠為中國之真正友人，中韓兩國目前正面臨同一問題，此一問題對於世界可能獲致永久和平或導往不幸之戰爭，李氏稱：世界任何一隅發生星星之火，則足以引起燎原之災，中韓兩國應聯防同一威脅，李氏末稱：南韓當局已準備採取一切必需措施，以消滅共產黨欲於8月25日在南韓秘密舉行選舉之企圖，中央社漢城7日專電，韓總統李承晚本日任命三無任所閣員，即李青天將軍，金性洙及李允榮。⁵⁰⁾

<대공보 : 북평 거주 한인의 이범석 내각 평가>1948.8.9.

李範奭內閣組成後，韓旅平人士表冷漠，據謂閣員多係舊日貴族財閥，無一會參加革命資望也不够，本報北平電話，南韓第一屆內閣組成後，記者會訪此間一部分韓國人士，他們對這個同樣出於冷門而以接受美方軍事為主要任務之李範奭內閣不但不存有任何希望，而且十分冷漠，據稱：閣員中多未曾參加韓國獨立革命運動，而且資望不够，他們多半是舊時代中的貴族與財閥，沒有一個是平民出身的，美國人為什麼支持李範奭呢？認為他在大戰時曾參與美韓合作指揮所的工作，韓屬太平洋總部日本登陸指揮部，更重要的是因為李在中國東北韓僑抗日義勇軍中是金佐鎮的部下，金屬於韓獨立運動的右派，在東北為金日成一派刺殺，故李與金日成等有血仇，李出任閣揆後是不會與北韓合作的，這樣很明顯還是走着分裂的道路。⁵¹⁾

<대공보 : 한국정부의 미군 무기 요구>1948.8.13.

韓國政府後天成立，美韓軍警加強戒備，靈奇聲明繼續控制軍權，中央社漢城11日專電，高級權威人士本日謂：韓國政府將於本月15日成立，次日即與美方正式談判美方移交政權事宜，…中央社漢城10日合衆電，記者獲悉：美軍刻正加緊推進自朝鮮撤退之準備工作，已開始啓運大量供應物資出漢，…實際上韓國政府方面則希望全部美軍物資將留交初告成立之韓國，…韓政府最大之需要為武器，該政府將於15日正式成立。⁵²⁾

<중앙일보 : 영국 정부의 한국정부 승인 예정>1948.8.15.

英準備承認韓國政府：中央社倫敦13日合衆電，外務部發言人宣佈：英國準備承認韓國政府，發言人又稱：美國政府與韓國政府建立特別關係之舉甚是，韓國政府乃在聯合國監督下民選成立者。⁵³⁾

<중앙일보 : 한국정부 수립에 관한 소식>1948.8.15.

韓政府今宣布成立，漢城將有盛大遊行，委帥由日飛韓發表演說，李範奭謝中美首先承認，：聯合社14日漢城電，韓國經過日本將近四十年之束縛後，將于明日宣佈為一共和國，內閣總理李範奭於韓國政府成立大典之前夕，公開發表聲明，表示韓國對中國及美國之予以承認深為感謝，…李承晚總統所領導之政府僅能統治美軍所佔領之南韓，蘇軍所佔領之北韓則拒絕參加聯合國所主持之產生新政府之選舉。⁵⁴⁾

<중앙일보 :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 수립 선포식>1948.8.16.

韓國政府成立，李承晚盼與各國友好，并揭示六大立國原則：中央社漢城15日專電，韓國民國政府今日成立，李承晚總統發表講演：下，今日韓國已獲獨立，…韓國與美

國之關係甚為良好，中國政府已於八月十二日臨時承認韓國政府，因而再度表明兩國友好關係之密切，數百年來中韓兩國之真正友睦，其故即在此，…中央社漢城15日專電，韓國‘太極圖’國旗，今晨11時28分正式表揚於統治此片領土，…大韓民國之再生，乃正式公諸於世，…中央社漢城15日專電，聯合國赴韓代表團主席盧納今日代表該團向韓人慶賀其政府之成立，盧氏為菲律賓之代表，彼稱：此次政府之成立，為韓人走向成為國際社會一員之路之開端。⁵⁵⁾

<신보 : 사실>1948.8.16.

동아의 신기상, 608쪽.

<대공보 : 한국정부의 정식 성립 참가 중국 대표>1948.8.15.

韓國政府今成立，麥克阿瑟往參加典禮，英外部宣布準備承認，劉馭萬奉派為駐韓外交代表，中央社南京14日電，總統14日頒布命令如下：特派劉馭萬為中華民國駐韓國大使銜外交代表，此令，中央社倫敦13日合衆電，外務部發言人宣布，英準備承認韓國政府，發言人又稱，美政府與韓國政府建立特別關係之舉甚是，韓國政府乃在聯合國監督下民選成立者。⁵⁶⁾

<대공보 : 대한민국 정부 성립식>1948.8.16.

韓民國政府成立，李承晚宣布立國六原則，理應舉國同慶所借南北隔離，強調善隣惟望領土不被強占，委帥致詞人為障礙必予撤除，中央社漢城15日專電，大韓民國政府今日成立，李承晚總統發表講演稱：今日韓國已獲獨立，是為四十年來韓國之期望，夢想，奮鬥與犧牲之頂點，…中國政府已於8月12日臨時承認韓國政府，因而再度聲明兩國友好關係之密切，數百年來中，韓兩國之真正友睦，其故即在此，蘇聯為吾人之隣邦，吾人願與此大國和平友好，吾人僅要求蘇聯允許吾人自由生活，吾人自亦希望蘇聯本身亦復如是，蘇聯一旦有此種意向，則韓國即向其伸出友誼之手，…李氏繼警告不滿現狀之韓人，不問是否共黨分子，均不得企圖推翻政府，渠稱：韓國人民享有多種自由與權利，惟無顧覆或企圖推翻政府之權利，…中央社漢城15日專電，聯合國赴韓代表團主席盧納今日代表該團向韓人慶賀其政府之成立，盧氏為菲律賓之代表，彼稱：此次政府之成立，為韓人走向成為國際社會一員之路之開端，中央社漢城15日專電，韓國‘太極圖’國旗，今晨11時28分正式表揚於統治此片領土，…大韓民國之再生，乃正式公諸於世。⁵⁷⁾

<대공보 : 북평 거주 한국 교민의 해방 3주년 기념식>1948.8.16.

韓國解放昨三周年，旅平韓僑開會紀念，一致主張成立統一政府，本報北平電話，在平韓國僑民15日下午1時在東單僑民會召開紀念解放三周年大會，會長內懸中，韓國旗，并有壁報，標語，標語中有：“分裂是亡，團結是興”，“我們希望統一政府早日實現”，“反對同族相殘殺”等，開會時由僑民會長徐庭弼主席致詞，大意稱：多數韓人均主張成立統一政府，故對南韓單獨成立政府并不感覺興趣，李範奭對中央社記者表示：韓國內戰不能避免，站在同胞的立場上應該糾正他，我們反對同族互相殘殺，對北韓8月20日進行選舉也不贊成，如果國內派有外交人員來平，我們應當表示我們的意見，我們應當走統一政府的路線，韓國駐華代表團東北辦事處長李光演講：對徐氏的主張甚表贊同，強調海外僑民更應追求統一的道路，中國人士由李宜琛律師致詞：祝賀韓國人民獲得解放及幸福，中，韓兄弟之邦要共同爭取和平與安定，會後舉行遊藝會并聚餐。⁵⁸⁾

<대공보 : 북평 유학생 37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1948.8.16.

本報北平電話，韓國留學生會在‘八一五’三周年紀念會中舉行民意測驗，印製五項題目，採無記名測驗法，與會成年僑民共41人，有38人領票，37人填寫投入票匭，當場開匭統計結果如下：(1)對南韓政府的意見：(甲)支持者 9人；(乙)反對者 22人；(丙)不管者 5人，(2)那種政治路線共鳴：(甲)金九的統一路線 30人；(乙)李承晚單獨路線 4人；(丙)其他路線 1人，(3)對美，蘇撤軍的意見：(甲)要求兩軍即時撤退者 34人；(乙)要求兩軍駐屯者 1人；(丙)要求美軍駐屯者 1人；(丁)要求蘇軍駐屯者 無人，(4)日本再武裝對朝鮮影響如何：(甲)有危險 28人；(乙)無關係者 8人，(5)觀測美，蘇撤軍有無發生內戰可能：(甲)可能發生者 17人；(乙)不能發生者 20人。⁵⁹⁾

<중앙일보 : 필리핀의 독립 승인과 소련에게 독립 승인 요청>1948.8.19.

韓將向蘇聯洽商請求承認韓政府，并將向日提賠償要求，… 菲律賓承認大韓民國。⁶⁰⁾

<대공보 : 정부수립 이후 남한의 정국 보도>1948.8.20.

南韓政局動蕩，李內閣不孚衆望，反對黨企圖推翻，馬歇爾拒評韓統一問題，中央社漢城19日專電。⁶¹⁾

<신보 : 사실>1948.10.23.

남한을 통해 본 아시아의 위기, 619쪽.

5. 중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우리의 시각에서 본 중국>

1949년을 승리와 패퇴의 해로 이해하(199)는 것은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한 결론적인 설명에 다름 아니다. … ‘1949년의 중국’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실감에 착목하려고 한다. … 당사자인 중국인이 아니라 그 이웃 한국인의 실감을 재현해보려고 한다.(200) … 적어도 19세기말 이래 한국지식층은 중국의 변혁과정을 한국의 운명과 직결된 것으로 보아왔고 그래서 중국의 사정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아왔다. … 바로 이 축적에 기반해 해방 직후 정보공급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한국문제와 연결시켜 비교적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한국문제의 연장에서 중국정세를 파악하는 자세가 동시에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제약(또는 왜곡)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냉전적 진영논리가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213)⁶²⁾

<한국 신문사의 중국 소식의 특징>

당시 우리 일간지의 중국보도는 정보원의 한계에 영향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도정책으로부터도 제약이 가해졌다.(203) … 사실 해방 직후 중국에 대한 한국 일간지의 관심이 처음에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등기는, …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도 있었다. 그런 중국인식에서 국(204)공합작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끌었다.(205)⁶³⁾

-
- 1) 본 심포지엄의 기본 입장은 “1948년은 남북한과 동북아 열강들이 기존의 인식(틀)을 새롭게 조정해 나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 대상을 자신의 이해에 맞게 재규정해 나가야 했다”는 것이다.
 - 2) 方漢奇 主編, 「中國新聞事業通史」2, 中國人民出版社, 1996, p.182, 420, 462, 701, 997, 1015, 1037. 왕원성은 당시 「대공보」의 미국주재기자로 공산당의 비밀당원이었던 양강(楊剛)을 통해 공산당과 교섭을 마치고 11월 8일 홍콩으로 탈출해서 공산당과의 합작을 밝힌다. 劉統, 「中國的 1948年, 兩種命運的決戰」, 北京·三聯書店, 2006, pp.392~395.
 - 3) 1924년 4월에 창설된 중앙통신사는 국민당 중앙과 국민정부의 중요한 문서와 뉴스들 제공했으며, 국민당 4계 2중대회 이후에는 정식으로 국민당 정부를 대표하는 통신사로 자리잡았다. 한편 로이터 통신(路透社), Ap 통신(聯合社), UP 통신(合衆社)와 같은 대표적인 외국 통신사로부터도 적지 않은 기사들 받아냈다.

- 4) 반면 한국 신문사는 1949년 4월 2일에서야 「경향신문」이 기자 김병도를 중국 특파원으로 파견했을 뿐, 대부분의 기사를 구미의 정보원에 의존했다. 백영서, 「1949년의 중국 : 동시대 한국인의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0, p.202, 211.
- 5) 「중앙일보」는 1927년 9월 왕징웨이(汪精衛)파였던 구명위(顧孟餘) 등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1929년에 난징에서 복간되었고, 국민당 4계 2중전회 이후 국민정부의 정식 기관지로 인정받았다. 方漢奇 主編, 「中國新聞事業通史」2, 中國人民出版社, 1996, pp.354~355.
- 6) 劉統, 「中國的1948年, 兩種命運的決戰」, 北京:三聯書店, 2008, pp.5~8, 58~59, 65, 68~79, 224~227.
- 7) 이것은 1948년 5월부터 8월까지 「大公報」의 국내 소식 헤드라인에 실린 기사의 제목에서 잘 나타난다.
- 8) 「胡世澤談朝鮮問題最近二事具決定作用, 南韓普選仍如期舉行, 聯合國不願韓國受共黨控制」, 「大公報」1948.5.4., 三版, 「南韓將如期普選 胡世澤昨對記者談月中將飛聯合國任所」, 「中央日報」1948.5.3., 二版, 「조선 전반 정세에 대해 분석」, 「申報」1948.5.3., pp.577~578.
- 9) 「南北韓會商協議, 金九金奎植返漢城, 一致反對南韓單獨普選, 要求美蘇撤軍 霍奇拒絕」, 「大公報」1948.5.8., 三版.
- 10) 「南韓明天普選約有十個黨派參加, 各地又發生新騷動」, 「大公報」1948.5.9., 三版.
- 11) 「美決成立南韓政府, 不願蘇方撤軍準備, 南韓人士反對今天普選」, 「大公報」1948.5.10., 三版.
- 12) 「조선의 위험한 정세를 주시하자」, 「申報」1948.5.7., pp.580~583.
- 13) 「南韓明日舉行普選, 各地騷動不斷發生, 右翼李承晚派可獲全勝, 北韓蘇軍宣稱準備撤離」, 「中央日報」1948.5.9., 三版.
- 14) 「南韓普選昨天完成, 選民百分之八十投票, 各地時有小規模騷動, 全部候選人都是右翼分子」, 「大公報」1948.5.11., 三版.
- 15) 「南韓普選順利進行, 投票者甚踴躍, 結果可於今日陸續揭曉」, 「中央日報」1948.5.11., 三版.
- 16) 「大公報」1948.5.12., 三版, 「大公報」1948.5.13., 三版, 「韓普選初步結果, 李承晚獲票最多, 討論南韓電力問題, 霍奇請求蘇方答覆」, 「中央日報」1948.5.13., 三版.
- 17) 「打破朝鮮僵局, 馬明望蘇與聯合國合作, 使南北韓能夠重告統一」, 「大公報」1948.5.14., 二版.
- 18) 「亡國四十年全勝幸慶復國, 北韓卅八度分治形同腰斬, 朝鮮分治, 美蘇互爭朝鮮統一無期, 聯大決議南韓舉行普選」, 「中央日報」1948.5.11., 七版.
- 19) 「大公報」1948.5.18., 三版.
- 20) 「남한 보통선거 이후의 조선 정국」, 「申報」1948.5.19., pp.586~590.
- 21) 「南韓議會, 下週召開」, 「大公報」1948.5.19., 三版.
- 22) 「南韓制憲議會, 今召開首次會」, 「大公報」1948.5.31., 三版.
- 23) 「李承晚宣布朝鮮共和國成立, 盼美軍撤退後顧問留下, 霍奇美將盡力幫忙」, 「大公報」1948.6.2., 三版.
- 24) 「大公報」1948.6.1., 三版.
- 25) 「南韓國會討論憲草, 國號將改稱大韓民國」, 「大公報」1948.7.6., 三版.
- 26) 「朝鮮分裂之勢已成, 南韓憲法通過即組政府, 北韓人民委會籌備普選」, 「大公報」1948.7.13., 三版.
- 27) 「中央日報」1948.7.14., 三版.
- 28) 「南韓大選今舉行, 將可決定韓國未來傾向, 美重申對南韓政策不變, 對蘇撤軍聲明認係宣傳」, 「中央日報」1948.5.10., 三版.
- 29) 「大公報」1948.7.20., 三版.

- 30) 「大公報」1948.7.21., 三版.
- 31) 「大公報」1948.7.24., 三版.
- 32) 「大公報」1948.8.1., 三版.
- 33) 「大公報」1948.8.2., 三版.
- 34) 「大公報」1948.5.20., 三版.
- 35) 「大公報」1948.5.28., 三版.
- 36) 「晉綏日報」1948.3.3., 三版.
- 37) 「社論：選舉前後的韓國局勢」, 「中央日報」1948.5.12., 二版.
- 38) 「大公報」1948.5.30., 三版.
- 39) 「大公報」1948.7.22., 三版.
- 40) 「大公報」1948.7.28., 三版.
- 41) 「大公報」1948.7.27., 三版.
- 42) 「李忠模談韓國前途, 新的建國理想容易實現, 只要美蘇駐軍同時撤退, 不會有兄弟鬩牆的內戰」, 「大公報」1948.5.3., 三版.
- 43) 「南北韓比較觀, 金奎植返漢城招待記者, 稱讚北韓指責南韓腐敗」, 「大公報」1948.5.7., 三版.
- 44) 「東北有韓共廿五萬金奎植談話予證實, 渠嚴責南韓美官員腐化, 將混亂局面歸咎於美國」, 「中央日報」1948.5.8., 三版.
- 45) 「南韓明日舉行普選, 各地騷動不斷發生, 右翼李承晚派可獲全勝, 北韓蘇軍宣稱準備撤退」, 「中央日報」1948.5.9., 三版.
- 46) 「大公報」1948.5.29., 三版.
- 47) 「大公報」1948.8.4., 三版.
- 48) 「大公報」1948.7.11., 三版.
- 49) 「大公報」1948.8.3., 三版.
- 50) 「大公報」1948.8.8., 三版.
- 51) 「大公報」1948.8.8., 三版.
- 52) 「大公報」1948.8.13., 三版.
- 53) 「英準備承認韓國政府」, 「中央日報」1948.8.15., 三版.
- 54) 「韓政府今宣布成立」, 「中央日報」1948.8.15., 三版.
- 55) 「韓國政府成立」, 「中央日報」1948.8.15., 三版.
- 56) 「大公報」1948.8.15., 三版.
- 57) 「大公報」1948.8.16., 三版.
- 58) 「韓國政府成立」, 「中央日報」1948.8.16., 三版.
- 59) 「韓國政府成立」, 「中央日報」1948.8.16., 三版.
- 60) 「中央日報」1948.8.19., 三版.
- 61) 「韓國政府成立」, 「中央日報」1948.8.20., 三版.
- 62) 백영서, 「1949년의 중국 : 동시대 한국인의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0, p.
- 63) 백영서, 「1949년의 중국 : 동시대 한국인의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0, p.202.